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7. 8. (수요일), 14:00 ~ 19: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 출석위원 : 이재운, 강봉원, 김건수, 김문식, 김왕직,
서동철, 유재춘, 이경찬, 이순희, 이승용,
이승우, 이영식, 진상철, 한숙영(이상 14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 건축물 신축	(공 개)
3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 개)
4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 개)
5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6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내 문무대왕 유조비 및 안내판 제작 설치	(공 개)
7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8	사적 제207호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 사항 변경허가)	(공 개)
9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내외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 개)
10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내외 역사문화 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 개)
11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근린공원 조성	(공 개)
12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내외 모형관 건립	(공 개)
13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공 개)
14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증축)부지 조성	(공 개)
15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공 개)
16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컨테 이너) 설치	(공 개)
17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내 농수로 정비	(공 개)
18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주변 산불예방 이격공간 조성	(공 개)
19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 개)
20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내 설법전 등 건립	(공 개)
21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	(공 개)
22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요지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	(공 개)

23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내외 도로 정비	(공 개)
24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북장대 중수 및 성벽 보수	(공 개)
25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조망공간 및 진입로 정비	(공 개)
26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주변 건축물 신축	(공 개)
【검토사항】		
27	의정부지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28	거창 거열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29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30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검토	(공 개)
31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검토	(공 개)
32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 개)
33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봉분 정비 검토	(공 개)
34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배수구 일대 보수공사 계획 검토	(공 개)
35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내 경관조명 설치 검토	(공 개)
36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해자 용수공급 및 주변정비 계획 (실시설계) 검토	(공 개)
【보고사항】		
37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 (안) 보고	(공 개)
38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관리동 및 전시동 등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 보고	(공 개)
39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 보고	(공 개)
40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제30호분 발굴 조사 및 공공기준점 설치 보고	(공 개)
41	사적 제122호 창덕궁 돈화문 월대 정비사업 보고	(공 개)
42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4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0-07-001

1. 서울 한양도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93-12, 18, 27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74m 이격/2구역(심의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53.7m²
 - 건축면적 : 151.72m²
 - 연면적 : 509.37m²
 - 건축규모/지붕형태 : 지하1층, 지상5층(최고높이 14.8m) / 경사형지붕

라. 참고사항

(1) 한양도성도감 의견('20.06.22.)

- 신청지 주변 구 주택은 2~3층 규모, 근래 신축 주택은 5층 정도 규모로서, 3구역의 건물높이(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를 참조하여 3구역의 허용 기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보류 14명

2. 청주 흥덕사지 주변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건축물(구루물아지트)를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흥덕사지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건축물(구루물아지트)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 1986.05.07. 지정)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3) 신청내용<건축물(구루물아지트) 신축>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71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 2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7m 이하)}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986.9m²
 - 건축면적 : 527.08m²
 - 연면적 : 1,967.40m²
 - 건축규모/지붕형태 : 지하1층, 지상4층(최고높이 17.0m) / 평지붕
 - 기타 : 옥상부 태양광패널 설치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3.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의사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의사총(사적 제431호 / 2001.08.17. 지정)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증축>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377-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현행	증축 후	비고
대지면적	587.0m ²	좌동	
건축면적	67.32m ²	164.98m ²	97.66m ²
연면적	259.68m ²	455.0m ²	195.32m ² 증가
규모/지붕형태	지상2층, 최고높이6.8m/평지붕	지상2층, 최고높이9.4m/평지붕	H2.6m 증가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명, 부결 13명

4. 영월 장릉 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 장릉 보호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월 장릉(사적 제196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영흥리)
- (3) 신청내용<유아숲체험원 조성>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1-1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860㎡(시설물 15개소) * 시설물 설치 최대 굴착 40cm

명칭	규격	수량	명칭	규격	수량
조합놀이시설		1개소	대피시설		1개소
모래놀이터	19.63㎡	1개소	안전시설(담장)	H=0.75m	80m
숲속교실	5.0m×4.0m	1개소	관목식재(조팝나무)	H=1.0m	140주
재활용품 타악기	2.3m×2.0m	2개소	출입구	5.2m×3.0m	1개소
거미줄 밧줄타기	3.0m×2.5m	2개소	그네 놀이시설	L=3.60m	1개소
밧줄 건너기	L=8.0m	1개소	시소 놀이시설	L=3.02m	2개소
터널놀이시설	L=5292m	1개소	통행로	A=180㎡	180m
통나무 징검다리		1개소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5.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초당동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가 하였으나 규모를 확대하고, 높이를 변경하여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년 3차 위원회('20.03.11.) 조건부가결 : 2년마다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 2007.12.03.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25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구분	기 허가 사항	금회 신청사항	비고
구조	기성제 콘테이너	경량철골조	
면적(연면적)	18㎡	153.4㎡	
높이	2.5m	6.1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6. 경주 문무대왕릉 내 문무대왕 유조비 및 안내판 제작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내 문무대왕 유조비 및 안내판 제작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문무대왕릉 내 문무대왕 유조비 및 안내판 제작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2차 위원회('19.12.11.)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 1967.07.2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6
- (3) 신청내용<문무대왕 유조비 및 안내판 제작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840번지 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문무대왕 유조비(6.76m×1.4m×2m) 및 안내판 제작 설치
 - ※ 통일 완성 676년 상징
 - 설치 위치
 - 1안 : 대종천 인근, 이견대 방향 해변가(대왕암으로부터 500m 이격)
 - 2안 : 남측 해송림(대왕암으로부터 430m 이격)
- (4) 신청인 의견
 - 건립배경
 -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대왕의 왕릉이자, 호국의지가 담긴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인지성이 낮음.
 - 건립목적
 -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성 재평가 :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 내에

- 유조비를 건립하여 역사문화 영역 확대
- 현존 공간의 재활용 : 현재 난개발 된 보호구역에 유조비를 건립함으로써 왕릉 주변 정비의 발판 마련
- 미래 가치창출 : 삼국통일의 상징인 경주 문무대왕릉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신규 관람 자원 확대, 삼국통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북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 및 관광 명소로 활용
- ※ 현재 시행 중인 2020년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주시가 선도 사업으로 건립예정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 ○○○)

- 현지 실사결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 내의 모래사장은 심한 침식으로 보행도 원활하지 않고 주변에 위치해 있는 횃집 등은 폐점된 상태로 있어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비호감 지역으로 버려져 있는 상태이다.
- 따라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모든 요인들은 제거하는 문무대왕릉 주변 정비계획이 절실하다.
- 이러한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선도사업으로 유조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경주시는 우선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유조비 건립의 위치는 그 계획안 검토 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 다만 경주시에서 제시한 대왕암 전면(당시 1안)과 현 주차장 입구(당시 2안)은 경관상 유해하여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남측 해송림(당시 3안, 현 2안)은 해송림 조성지구로써 문무대왕릉과 경관상 차폐되어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종천 인근(당시 4안, 현 1안)은 이견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문무대왕릉과의 경관 등에 대한 simulation이 필요하다.

(2)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 ○○○)

- 문무대왕의 수중능이 있는 해변가 일대는 많은 횃집이 있으나 실제로 회를 파는 식당은 많지 않다. 간판은 횃집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속인들이 새들어 있으면서 곳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횃집을 구하지 못한 무속인들은 무허가 비닐 하우스를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외관상 좋지 않다.
- 무속도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종교의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민속·역사·문화적으로 보존되고 연구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문무대왕릉 인근 해변가의 경우 다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할 때 한 무속인이 곳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잘려진 소머리(쇠뿔도 달려있었음)에 큰 칼과 삼지창을 X자로 머리에 걸쳐놓아 보기에 섬뜩하기도 하고 다소는 혐오감을 주기도 하였다. 만약, 초중고 학생들이 대왕암 견학을 왔을 때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아주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문무대왕 경역 정비’ 사업은 시의적절하며 문무대왕유조비도 제작·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조비의 규모가 6.76m × 1.4m × 2m에 달하여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향후 재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해(676년)를 기리고자 상징적으로 높이를 6.76m로 정한 것으로 생각 되지만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높이 6.39m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개토대왕비와 이 유조비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6.76m 높이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문무왕 유조의 내용을 새겨두면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과 각 급 학교 학생들은 해독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안내판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76m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이고 비를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놓아서 반은 한문 다른 반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가로쓰기 함). 또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문무대왕유조비는 이미 1990년 8월 20일 석굴암연구회/성보문화재단에서 이견대 인근에 건립한 바 있다(박경식 2016:29-36; 한국선현현창회 편 2016:202-204). 동일한 내용으로 위치는 다르지만 두 개의 비가 서게 되는 셈이 된다(사진 참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임.
-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유조비의 위치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대왕암 경역 전체 정비 계획안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회 ○○○)

- 현장조사 결과 문무대왕 보호구역의 환경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해변에 있는 횃집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무속행위로 인해 문무대왕릉 앞의 경관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의 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문무대왕의 유조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다. 다만 계획안대로 보호구역의 환경 정비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주차장이 보행교를 건설하는 쪽으로 이동한다면, 새 주차장의 입구에 해당하는 위치, 대중천 인근(당시 4안, 현 1안)에 유조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조비의 높이를 6.7m로 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유조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 정비 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회 ○○○)

- 문무대왕릉 앞 해변지대는 오랜 기간 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바, 차제에 주변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문무대왕릉 앞 해변에 유조비를 건립하는 것은 문무왕이 국가를 위한 유언을 널리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규모(6.76m)가 거대하여 사적지 핵심유적을 위압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설치지점을 대왕암 전면(당시 1안), 현 주차장 입구(당시 2안)를 피하고 남측 해송림(당시 3안, 현 2안)과 대중천 인근(당시 4안, 현 1안)(규모 조정 필요) 중 택일한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5)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회 ○○○)

- 문무대왕릉 보호구역 내 횃집과 무속행위로 사용되는 시설물은 왕릉 주변의 경관을 매우 저해 하고 있으므로 유조비와 안내판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여 주변 환경을 살리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주시에서 제안한 대왕암 전면(당시 1안)의 위치는 왕릉의 위치와 매우 근접하여 오히려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현 주차장 입구(당시 2안)으로 할 경우에는 왕릉을 찾는 방문자들의 접근성, 입구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으나 유조비와 안내판이 왕릉을 가릴 수 있으므로 크기와 모양에 연구가 필요함
- 남측 해송림(당시 3안, 현 2안)의 위치는 방문자의 마지막 동선에 해당되어 접근성과 입구성은 줄 수 없지만, 주변의 정비사업 차원에서 본다면 왕릉과 주변경관을 충분히 관람하고 마지막부분에 유조비의 내용을 보고 마무리 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사료됨

(6)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 ○○○)

- 경주 문무대왕 유조비의 설치는 문무대왕릉의 위치에서 가시권을 벗어 난 장소 일 경우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경주시에서 제시한 안 가운데 대중천 인근(당시 4안, 현 1안) 근처에 설치 하는 것이 문화재 경관에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경우 유조비의 설치는 전체적인 Master Plan을 수립한 후 유조비와 설치 공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유조비를 설치할 경우 높이, 크기, 모양 등은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 유조비 설치 시 차폐식재의 개념보다는 주위의 Setting (배경)작업이 필요하다.

(7) 현지조사의견('20.01.13./문화재위원 ○○○)

- 현지조사 결과, 문무대왕 유조비 및 안내판 제작 설치는 문무대왕릉 방문객의 이해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경주시에서 제시한 유조비 높이 6.7m, 폭 1.4m, 너비 2m의 크기는 문무대왕릉의 크기와 비교할 때, 문무대왕릉을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크기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유조비 및 안내판 설치 위치는 경주시에서 제시한 대왕암 전면(당시 1안), 현 주차장 입구(당시 2안), 남측 해송림(당시 3안, 현 2안) 중, 현 주차장 입구(당시 2안)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현 주차장 입구(당시 2안)의 경우, 방문객들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문무대왕릉을 보기 위하여 이동하는 동선의 초입부분으로 문무대왕릉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도와 만족도 향상이라고 하는 유조비 및 안내판 설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명, 부결 13명

7.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기 허가사항에 대한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기 허가된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인구 및 주택 건설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년 14차 위원회('16.12.14.) 조건부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 (사적 제206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 (3) 신청내용<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6구역(신축 불가,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 사업내용

변경내용	기정	변경(안)
사업기간	2004.12.18. ~ 2020.12.31.	2004.12.18. ~ 2021.12.31.
세대수/인구수	4,215호 / 10,538인	4,365호 / 10,872인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335호/838인 ○ 공동주택 : 3,880호/9,700인 - 60㎡이하 : 1,670호/4,175인 - 60~85㎡ : 2,210호/5,52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313호/1,627인 ○ 공동주택 : 4,052호/9,245인 - 60㎡이하 : 2,752호/5,865인 - 60~85㎡ : 1,300호/3,380인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용지 - 321,841.0㎡(27.1%) ○ 공공시설용지 - 866,203.6㎡(7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용지 - 311,962.0㎡(26.2%) ○ 공공시설용지 - 876,476.6㎡(73.8%)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지표조사('00.8), 시굴('02.4~7) 및 발굴 실시('05.9~'07.2)
 - 발굴결과, 정조 초장 관련 재실터 등 건물유적 확인
- '04.12.18 현상변경허가 / 용건릉과 용주사를 잇는 옛길 보존
- '07.10.26. 매장문화재분과 회의/ 1, 3지점을 연결하여 사적 지정토록 권고
- '07.11.23. 매장문화재분과 회의/ 사적분과와 합동현지조사 실시 후 결정토록 함
 - 합동조사 결과, 1, 3지점은 역사공원 조성 및 녹지동선 개설 등 초장 관련 지역은 보존 및 택지개발이 가능한 절충안 제시
- '08. 3월 '효테마공원'이 국정과제 포함(문화체육관광부 추진)
 - 총 36만평 중 효테마공원 17만평 조성 확정('08.5월 이후)
- '09.2.24 총리실(국무차장) 주재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 ※ 회의결과 : 주공 손실분(870억)은 화성시(174억), 주공(265억), 경기도(431억)가 분담토록 함
- '09.5.18 현상변경 허가기간 만료('08.12.31)로 재신청(LH 공사)
- '09.7.13 현상변경 재허가
- '13.3.8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04.12.18~'18.12.31)
- '13.11.20 사적추가지정 민원 관련 전문가 현지조사(민원제기 / 경기문화연대)
 - 조사결과
 - 재실터, (추정)정자각터, 건물지는 보존조치
 - 정조 초장지와 만년재에 이르는 역사문화환경이 보존될 필요있음. 기허가 받은 사업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태안3지구 전체 사업권역 내에서 재배치하여 소화시키도록 권고함.
- '13.12.11 문화재위원회 추가지정 검토(추가지정 보류)
- '16.10.12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2.14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한옥 호텔 신축은 별도 심의(향후 사업시)
 - 한옥마을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 추정되는 정자각터 우측 단독주택 용지의 튀어나온 부분은 없애고, 재실터 왼쪽 이주자 택지 단독주택용지 중 재실터 쪽 한줄은 도로쪽으로 배치
- '17.2.13 조건부 허가 통지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8.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흥릉과 유릉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기 허가된 건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18년 4차 소위원회('18.05.23.) 조건부가결 : 단을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구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흥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1
- (3) 신청내용<금곡역지역 공동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 외 3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5m 이격/5구역(도시계획조례. 단, 32m 초과시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134.9㎡ → 8,108.00㎡(감 26.19㎡)
 - 건축면적 : 3,436.3586㎡ → 3,180.3511㎡(256.0075㎡ 감)
 - 연면적 : 54,417.9189㎡ → 54,494.5165㎡(76.5976㎡ 증)
 - 지하4층~ 지상21층/ 주5동
 - 시설물 높이: 0.8m ~ 2.35m 증가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0.06.30./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남양주 흥릉과 유릉에서 395m 이격된 5구역(10층이상 개별심의)에 기존 허가받은 규모에서, 옥상 피난옥탑과 1층 출입 시설의 높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 건물에서 약 2.35m가 증가하는 것으로,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고 주변 21층 규모로 개발되어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 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9. 강화산성 내외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내외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내외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9-4~강화읍 갑곶리 845-4 일원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사업연장 : 600m(문화재구역 84m포함)
 - 굴착폭 / 굴착깊이 : 평균 2.7m / 평균 2.0m(통신 1.2m)
 - 압입공사 연장: 76.9m(압입깊이 1.5m / 압입관경 55c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10.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내외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내외 화성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내외 화성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사적 제299호 / 1982.12.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 322-16번지
- (3) 신청내용<화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외(문화재구역 내외)
 - 조성방향
 -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현상변경 최소화를 위해 보도블럭 및 잔디 교체만 시행
 - (역사문화환경구역)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상에 인위적인 시설물 최대한 배제 및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 세부 사업내용
 - 신청면적 : 37,744㎡(문화재607㎡, 1구역10,651㎡, 2구역1,407㎡, 3구역25,079㎡)
 - 문화재구역 : 보도블럭 및 잔디 교체(기념탑 영역 제외)
 - 1, 2, 3구역 : 보도블럭, 수목식재, 주차장 등 환경정비 및 기념관(3구역) 신축

구분	신청안	비고
건축면적	771.14m ²	기념관, 화장실
연 면 적	5,303.08m ²	
규 모	지하1층, 지상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3.95m	

○ 사업예산 : 36,670,000천원(지방비: 100%)

라. 참고자료

(1) 지자체 자문의견('20.06.25./문화재위원 ○○○)

- 3구역 내 건축물은 지하로 배치하였고 돌출부분의 높이는 4m 이내로 허용기준에 적합함
- 기념탑 주변에 계획된 격자형태의 보행로(붉은 벽돌과 잔디 혼재)의 교체 및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암교회 앞(1구역) 주차장은 사회약자를 배려한 최소한의 주차공간만 마련하는 게 바람직 할 것임

(2) 지자체 자문의견('20.07.02./문화재위원 ○○○)

- 기념관이 건립되는 3구역은 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함

(3) 배치계획

- 기본구상(안)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경계획, 하천정비계획, 기념관 전시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11.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근린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계양산성(사적 제556호 / 2020.5.2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8번지 등 45필지
- (3) 신청내용<계양근린공원 조성>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8번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탐방로 조성 555m(폭 1.5m / 문화재보호구역 130m포함)
 - 데크 및 황토포장 설치
 - 쉼터 조성 1,512㎡(인공폭포 및 누각설치)
 - 사업예산 : 3,900,000천원(지방비: 100%)

라. 참고자료

- (1) 역사문화환경 영향검토('20.06.11./문화재전문위원 ○○○)
 - 사적 지정 이전에 훼손된 절벽지는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보수·보강 조치 등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정비사업계획은 문화재 주변경관과 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 역사문화환경 영향검토('20.06.10./○○대 문화재연구소 ○○○)
 - 동 사업은 훼손된 절개지를 복구하여 쉼터 조성 및 탐방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라 보존환경에 지장을 주는

규모의 시설 및 건축물 설치는 없음. 현황과 계획 내용으로 보았을 때 문화재의 보존환경과 경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개선이 기대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12.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내외 모형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내외에 모형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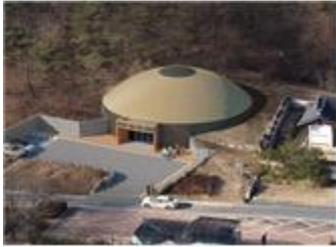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내외에 모형관 건립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15년 7차 위원회('15.07.08.) 결정 : (천장)벽화 존치하고 내부 충진(전시관 별도 건립) 및 영구폐쇄할 것
 - '19년 3차 위원회('19.03.13.) 원안가결 : 모형전시관 건립예정지 발굴조사
 - ※ 발굴조사(조사면적 2,315㎡) 결과 유구 등 매장문화재 없음.
 - '19년 12차 위원회('19.12.11.) 부결 : 모형관 설계 부적정
 - '20년 6차 위원회('20.6.10.) 보류 : 새로운 모형관 설계안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제165호 / 1968.12.19.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1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모형관 건립 사업>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322-1, 산13-6번지 일원{문화재구역,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당초안('19.12.11.)	'20.6차 위원회(1안)	'20.6차 위원회(2안)
대지면적	3,260.20㎡ * 945㎡ 추가시굴조사 필요	2,315.20㎡	2,855.20㎡ * 540㎡ 추가시굴조사 필요
건축·연면적	393.33㎡	239.58㎡	194.04㎡/222.75㎡

구분	당초안('19.12.11.)	'20.6차 위원회(1안)	'20.6차 위원회(2안)
규모	지상1층, 최고높이 9.83m, 주차2대	지상 1층, 최고높이 8.1m(봉분형태포함)	지상 1층, 최고높이 6.86m
조감도			
배치도			
구분	금회		
대지면적	2,315.20㎡		
건축·연면적	292.5㎡		
규모	지상 1층, 최고높이 8.1m(봉분형태포함)		
조감도			
배치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3.07./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건은 고령 고아리 벽화 지정구역과 연접구역에 벽화고분 폐쇄에 따른 모형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현 모형관 건립부지 위치는 적절해 보이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위치를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단, 모형관 규모는 전시보다는 모형에 집중하여 규모는 축소될 필요가 있음

(2)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건립사업 설계자문의견

(가) ○○대학교 교수 ○○○('20.03.16.)

- 1) 1, 2, 3안 중 3안은 외형상 벽화고분 모형관의 성격과 맞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됨.
- 2) 1안과 2안의 경우 외형이 벽화고분의 인상을 주무로 고려대상인데, 1안은 화장실, 공조시설 등의 출입구 안에 설치되는 것이고, 2안은 화장실이 출입구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됨.
- 3) 따라서 1안의 외형이 현재의 벽화고분 출입구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겉에서 볼 때 외형은 1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4) 단, 모형과 안의 전시실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고분평면도'만 배치되어 있어 실제 가장 중요한 고분모형과 내부벽화 등의 세부설계도가 없어 이에 대한 정밀 설계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나) 문화재위원 ○○○('20.03.17.)

- 1) 제시된 설계(안) 중에서는 2·3안 보다는 1안이 비교적 바람직하다.
- 2) 그러나 벽화고분의 모형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조감도에 그려진 입구전면의 작은 광장에 대한 평면도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와 형식을 인지하기 어렵다. 조감도 상에서 보는 대로 라면 현재 계획된 프런트 광장부 좌우측에 날개처럼 계획된 벽면은 물론, 전면 입구부는 벽화고분 원형의 이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둘째, 현재 정비되어 있는 벽화고분의 전면부는 형식, 구조, 석재 모두 원형이 아니다. 이를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 정비의 오류를 재현하는 것이다. 벽화고분의 석실처럼 부정형 할석을 적석한 후에 최종적으로 봉토를 덮었을 대가야인들의 설계 원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셋째, 공주 송산리고분군전시관 전면부의 모습을 답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은 모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석재는 벽화고분의 석실과 같이 할석으로 적석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느낌이 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된 백색 화강암의 석재로 거대하게 축조한 송산리고분전시관의 전면부와 입구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고, 최소한 무녕왕릉이나 능산리고분전시관의 사례 정도를 참고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모형관의 입구는 벽화고분 입구의 천정석이 표현되는 등 벽화고분 원형의 입구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문화재위원 ○○○('20.03.19.)

- 1) 1안과 2안의 고분모양을 계획 후 실내전시공간을 계획한 것보다는 3안의 노출된 안이 적절함.
- 2) 3안의 경우, 드라이 에어리어 등의 형상이 사각이고 모형전시공간이 폐쇄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3) 또한, 모형에 진입하는데 있어 석실의 방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주변시설(창고, 화장실 등) 등의 위치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13.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3차 소위원회('20.04.22.)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9-654, 68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7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사업내용	'20년 3차 소위-부결	금회(안)
대지면적	1,299.00㎡(도로:109.00㎡)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472.5㎡(472.5㎡)	좌동
건물높이	8.8m(경사지붕)	5.9m(경사지붕)
건축규모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좌동
옹벽	높이4.4m	좌동
절토 및 성토	절토 : 283.64㎡, 성토 : 641.27㎡	좌동

라. 참고사항

(1) 서면 검토의견('20.07.03./문화재위원 ○○○)

- 개발하고자 하는 대지는 1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신청한 건물은 높이가 5.9m로 이전의 심의 내용에 비하여 높이는 줄었으나 주변에 기허가된 건물 (경사지붕,1층,4m)에 비해 여전히 높고 건물 한 동의 바닥면적이 이전과 같이 상당히 커서 주변의 건축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증축)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증축)부지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증축)부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1, 187-51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512.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201.22m² + 증축 61.02m²
 - 건축규모 : 지상1층(지상 4.5m)
 - 진출입로 : 폭 4.5m, 길이 2.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15. 강화 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건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및 부지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56-7(문화재구역으로부터 9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신청면적	557m ²	1구역
지 목	전	
건축면적	84m ²	
연 면 적	84m ²	
규 모	지상 1층	
구 조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4.7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6.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내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심곡서원(사적 제530호 / 2015.01.28.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18㎡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제기 보관용)
 - 규모 : 가로6m, 세로3m, 높이2.5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심곡서원에서 향사 봉행 시 사용하는 제례용품 등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만 동 신청지는 보호구역에 속하며,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7. 김제 벽골제 내 농수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내 기존 농수로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제 벽골제 구역 내 기존 농수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일원
- (3) 신청내용<농수로 정비>
 - 위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659(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농수로 정비(자연 토사 수로 → 수로관 수로)
 - L= 604m(수로관 w=2,000mm, h=1,500m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8. 정읍 무성서원 주변 산불예방 이격공간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주변에 산불예방 이격공간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무성서원 주변에 산불예방을 위한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6차 위원회('20.06.10.)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정읍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 1968.12.19.지정)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
- (3) 신청내용<산불예방 이격공간 조성>
 - 위치 :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산14{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1구역(원지형 보존)}
 - 사업내용 : 기존 조릿대, 대나무 군락지 제거 후 소나무 등 식재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제거	조릿대 919㎡, 대나무 415주 제거		동일
전정	상록수 17주, 낙엽수 5주		동일
식재	소나무(4주) 은행나무(7주) 동백나무(12주) 차나무(600주) 수수꽃다리(900주)	<u>조형소나무(25주)</u> 은행나무(7주) <u>동백나무(70주)</u> 차나무(600주) 수수꽃다리(900주)	
석축쌓기	석축(자연석 쌓기/L=9m, H=1m)		동일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6.23./문화재위원 ○○○)

- 보통 서원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소나무가 주로 식재됨에 따라 식재 계획 중 동백나무 구역 일부는 소나무를 일정간격 이격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식재계획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9. 순천 낙안읍성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내 위치한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1983.06.14. 지정)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17 외
- (3) 신청내용<건물 용도 변경>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01-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독주택→음식점)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288㎡	
연면적(건축면적)	78.24㎡(78.24㎡)	
최고높이	5m(지상1층/초가지붕)	
구조	목구조	
용도변경	단독주택→단독주택, 음식점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신청인의 신청도면을 검토한 결과(낙안면 동내리 301-2번지), 현재 현장 실정이 설계도면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음(*물품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판매대 및 가림막은 도면에 표기 안됨).
- 낙안면 동내리 301-2번지 일원은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등에 따라 무단으로 상품 진열 및 천막 설치하여 우리시(사업소)에서 ‘원상회복 이행’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순천시(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비 차등 지급은 물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단독주택 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 허가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의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0. 화순 운주사지 내 설법전 등 건립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내 설법전, 문수당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순 운주사지 내 설법전, 문수당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2차 위원회('20.02.12.)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 '21년 3차 위원회('20.03.11.)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운주사지(사적 제312호 / 1985.04.15. 지정)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 외
- (3) 신청내용<설법전, 문수당 건립>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24-1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설법전 : 1동(1층), 건축면적 145.8㎡(44.1평), 최고높이 8.16m
 - 문수당 : 1동(1층), 건축면적 85.86㎡(30평), 최고높이 6.57m
 - 설법전, 문수당 주변 담장 설치(돌담, L=74m, H=1.2m)

구분		당초	변경(금회)	비고
설법전	건축면적	194.4㎡(58.8평)	145.8㎡(44.1평)	
	건축양식	목구조, 익공식	목구조, 익공식	
	건축규모	1층, 정면5칸×측면4칸, H:9.6m	1층, 정면6칸×측면3칸, H:8.16m	
문수당	건축면적	-	85.86㎡(30평)	
	건축양식	-	목구조, 소로수장집	
	건축규모	-	1층, 정면5칸×측면 3칸, H:6.57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2명, 기권 1명

21.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 1992.09.09.지정)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 외
- (3) 신청내용<태양광 시설물 설치>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9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 /4구역(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태양광 등 빛공해 시설 개별 심의}
 - 사업내용
 - 설치대지 : 1,494m², 설치용량 : 148.95kw
 - 모듈판(356장) : 1장당 2,171mm×1,030mm×35mm(2.24m²)
 - 건물위 : 300m² / 126장(52.29kw) / H = 1.3m, 11.12(건물포함)
 - 지면위 : 420m² / 205장(52.29kw) / H = 4.8m
 - 모듈판 문화재 반대방향으로 설치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22. 나주 오량동 요지 주변 태양광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요지」 주변에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 오량동 요지 주변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오량동 요지(사적 제456호 / 2004.10.27.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태양광 시설물 설치>
 - 위치 : 전남 나주시 동수동 166-8, 9, 1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2m 이격 / 2구역(보존구역, 농가관련 시설(주택, 창고)에 한해 5m 내 허용)}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2,037㎡)
 - 설치대지 : 3필지/4,717㎡(경작지)
 - 설치용량 : 398.4kwp
 - 모듈판(952장) : 1장당 2,080mm×1,030mm×35mm, H = 2.5m / 문화재 반대방향으로 설치
 - 차폐식재(측백나무 H=2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3.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내외 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내외 도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내외에 도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제군 관아와 향교(사적 제482호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교동 7-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도로정비>
 - 위치 : 전북 김제시 옥산동 280-8 일원{문화재구역, 1구역(보존구역), 3구역(최고 높이 5m 이하)}
 - 사업내용 : 김제군 관아와 향교 구역 내외 기존 도로 정비

(단위 : m)

구분	규모		도로 마감	비고
	L	W		
중로 1-9호선	245(변동없음)	8 → 10~20	사고석 포장, 아스팔트 → 화강석 판석	폭 확장
소로 2-4호선	12.7(변동없음)	가각조성	화강석판석 → 화강석 판석	가각 조성
중로 1-7호선	400(변동없음)	8→20	아스팔트 →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	폭 확장
소로 1-47호선	35(변동없음)	4→10	아스팔트 →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	폭 확장
소로 1-48호선	195(변동없음)	4→10	아스팔트 →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	폭 확장
소로 3-30호선	16(변동없음)	가각조성	아스팔트 → 아스팔트	가각 조성
중로 1-8호선	900(신설)	20(신설)	미개설도로 → 아스팔트	신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7.02./문화재위원 ○○○)

- 금번 사업계획은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대의 노후되고,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업 시행시 다음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중로 1-9호선의 폭 확장시 시굴조사를 시행하여 매장 유구의 존재여부를 확인토록함.(해당 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역임.)
 - 해당 사업이 계획(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중로 1-9, 소로 1-48 사이의 공간에 존치될 건물이 오히려 문화재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로 1-9호선 확장부측의 기존건물과 도로 사이에는 문화재 경관 개선을 위해 적절한 수목 식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실시설계를 시행할 시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계획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24. 진주성 내 북장대 중수 및 성벽 보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북장대 중수 및 성벽 보수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성 내 시설인 북장대(경남도 문화재자료 제4호)의 하부 기둥이 노후하여 중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북장대 초석과 진주성벽이 맞물려 있어 원형복원을 위한 시굴조사와 성벽 보수가 필요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 (3) 신청내용<북장대 중수 및 성벽 보수를 위한 시굴 등>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북장대 중수 : 전면 해체 보수(145.87㎡)
 - 성벽 시굴조사(820㎡) 및 하부 성벽 보수(L=9.9m, H=3.4m)

라. 참고자료

- (1) 문화재 기술지도 및 검토 의견서('20.06.12./문화재위원 ○○○, ○○○대 교수 ○○○, ○○○, ○○○박물관 ○○○)
 - 도지정 문화재인 북장대를 보수하기 위해 전면 해체를 시행한 바, 북장대 외측 초석이 성벽 면석과 맞물려 있어서 그대로 보수작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 상태에서 북장대가 정상적으로 보수되기 위해서는 북장대와 성벽선의 원위치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북장대 외측 성벽도 성돌퇴락이 심해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북장대터와 성벽 외측에 대한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원성벽선과 북장대 기단·적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성벽과 북장대를 동시에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25.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조망공간 및 진입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조망공간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에 조성되어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내의 조망공간 및 진입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232호 / 1973.06.11. 지정)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
- (3) 신청내용<조망공간 정비 및 진입로 정비>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문화재구역)
 - 조망공간 정비
 - 영상관 주변(1지점) : A=1,200㎡(디딤돌놓기, 돌쌓기, 난간설치)
 - 관광안내소 주변(2지점) : A=300㎡(디딤돌놓기, 돌쌓기, 난간설치)
 - 진입로 정비(연결동선)
 - L=200m, A=1412㎡(황토포장)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0.06.11./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이순신 순국공원 내 조망공간 및 진입로 정비 건으로, 보수 정비 차원에서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보수의 시급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시된 계획안은 이 부분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적의 현황을 보았을 때 유적과 공원 등이 함께 고려된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6. 김해 대성동 고분군 주변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해 대성동 고분군 주변에 건축물(휴게음식점, 소매점, 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 1991.01.09.지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18-2번지 외 24필지
- (3) 신청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85-5, 85-11번지(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6m 이격/5구역(최고높이 14m)}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휴게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 대지면적 261㎡, 최고높이 16.75m(지상 4층)
- (4) 신청인 의견
 - 경사지붕으로 건축을 하면 17m로 가능하나, 너무나 일률적이라 옥상을 녹지(조경)공간으로 꾸며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조성하고자 함

라. 참고자료

- (1) 김해시 가야사박물관 의견
 - 허가 신청지는 대성동고분군 동측으로 150m내에 위치한 부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코자하는 내용이며, 옥상을 녹지(조경) 공간으로 꾸미고자 함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김해 대성동고분군 5구역으로 평지붕의 경우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17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는 평지붕으로 최고높이 16.75m로 설계되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하는 사항으로,

- 신청지는 허용기준을 2m이상 초과하여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성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허가신청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2명, 보류 1명

II. 檢討事項

안건번호 사적 2020-07-027

1. 의정부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의정부지(議政府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정부지(議政府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20년 6차 위원회('20.06.10.) 보류 :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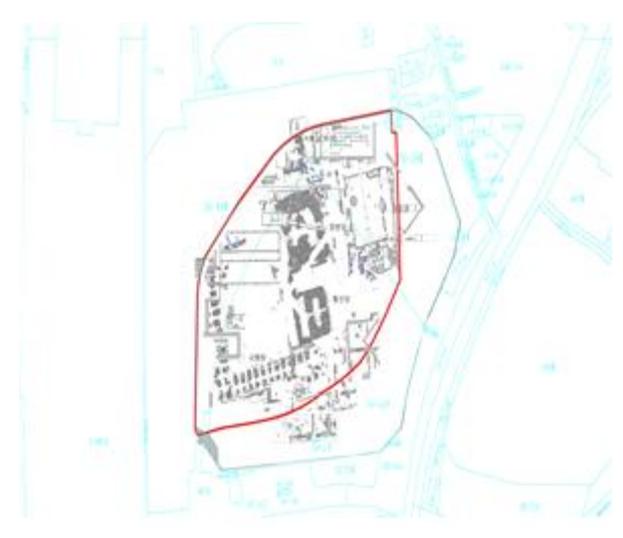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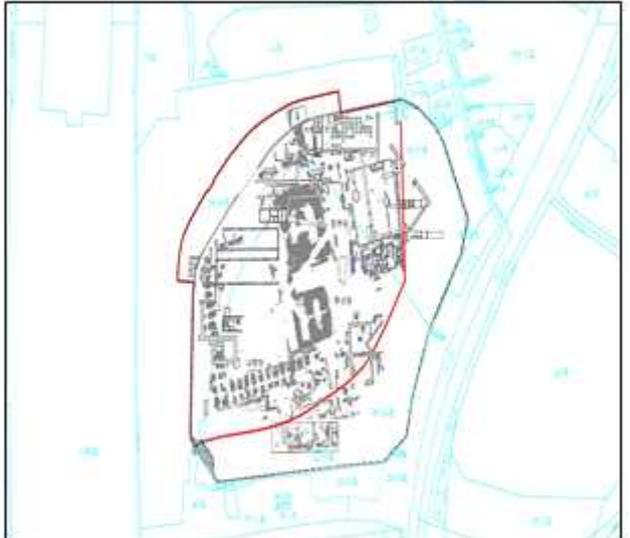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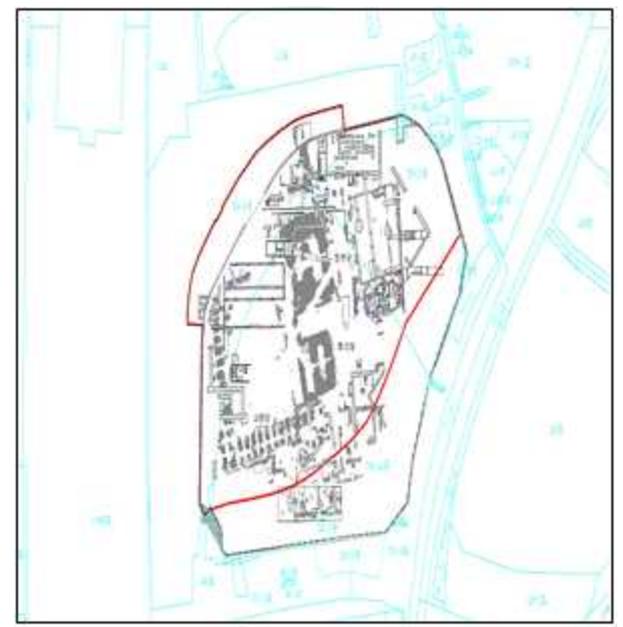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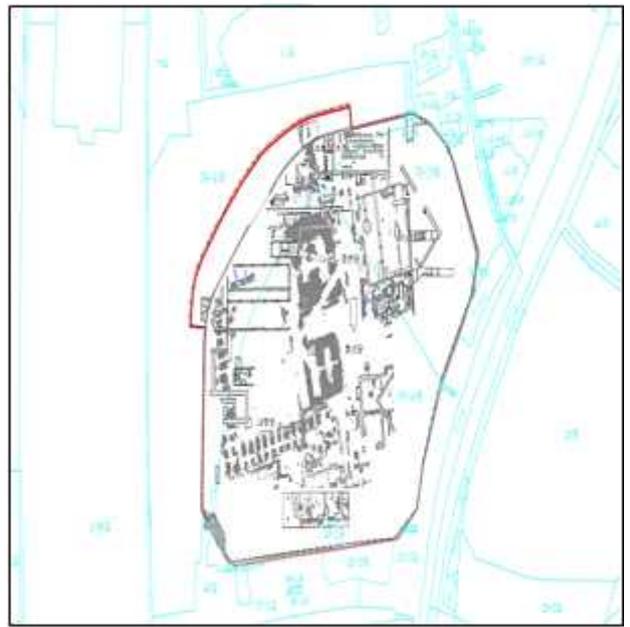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의정부지(議政府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 (3) 지정신청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4필지 7,082m²
- (5) 관리단체(안) : 서울특별시
- (6) 신청사유
 - 의정부지(議政府址)는 조선왕조 5백년간 국가 최고위 행정기구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조선 건국 초 문무 상대배치의 현장이 갖는 장소적인 의미, 원래 위치에서 지의 원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물리적 가치를 지닌 사례임

라. 검토의견

-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고, 2016년부터 시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회당)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됨
- 조선왕조 최고위 행정관청이 지닌 역사성 및 장소성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지정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제6차 위원회 이후 보완 제출 사항**

<p>당초 신청안(4필지 / 7,082㎡)</p>	<p>변경 1안(4필지 / 7,842㎡)</p>
	
<p>변경 2안(4필지 / 8,685㎡)</p>	<p>변경 3안(5필지 / 11,300㎡)</p>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2012년 : 의정부터를 서울시(역사문화재과)에서 마련한 '4대문안 정밀 지표 조사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방안'에서 역사성 회복이 필요한 역사문화지역으로 선정
- 2013년 : 서울시(역사도심재생과)에서 의정부터에 한글마루지 사업 상징조형물 건립 추진 이전 유구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해 문화재청 발굴허가를 받아 조사
 - 조사결과 의정부 관련 건물 3기의 기초부가 교란된 채 출토됨
 - 문화재청의 원형보존 조치에 따라 서울시 한글마루지 사업 상징조형물 사업 중단
- 2014년 : 광화문 앞 공원에서 발굴된 의정부터 유구들을 활용하여 의정부를 복원하거나 역사공원화 하는 등의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요청
- 2015년 : 의정부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학술연구 용역 실시
- 2016년 : 제 1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시유지 약 3,200㎡)
 - 의정부의 정본당과 협선당 온통기초 시설과 경기도청 관련 근대건물지 등 확인
- 2017년 : 제 2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시유지 한정)
 - 내행랑 건물지와 우물 1기를 확인
- 2018년 : 제 3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을 통해 11,300㎡ 전면 발굴)
 - 정본당과 석회당의 일부, 정자각과 연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
- 2019. 2월 : 국가사적 지정신청 (서울시→문화재청)
- 2019. 3월~8월: 제 4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 의정부 외곽 담장 유구 확인
- 2019. 8월 : 4차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담장 선을 경계로 한 사적 구역 변경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019. 10월 : 의정부터 종합정비 계획 수립 학술용역 실시('20.4월 준공예정)
- 2019. 12월 : 유적 정비 지침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20.5월 준공예정)
- 2019. 11월 : 서울시 문화재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
 - 사적 지정 심의 지연에 따라 서울시 기념물로 우선 지정
(면적 7,082㎡: 국유지 2,825㎡/ 시유지 4,257㎡)

- 2019. 12월 : 시 기념물 지정계획 시보 공고
- 2020. 1월 : 지정문화재 지정 예고에 따른 행정안전부 의견 제출
 - 문화재 지역 내 행안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매입 요구
 - 소유자 동의서 미첨부 및 사전 협의 없이 이행한 지정 절차를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요청
- 2020. 2. 26. : 서울시 기념물 구역 변경에 따른 문화재위원 현장조사
- 2020. 3. 20. : 서울시 문화재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
 - 사유지 한정 문화재구역 변경(면적: 4,257㎡) 지정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 12. 14.) : 사적 지정 신청 가결
-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18. 11. 6. 및 11. 12.)
 - 의정부 터는 조선 건국 초에 도평의사사(의정부의 전신) 청사가 지어지던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육조거리에서 유일하게 그 위치를 온전히 지켜왔다. 서쪽과 북쪽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면적 감소가 발생했으나 현대식 고층 건물로 개발되지 않아 지하 유구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2016~2019년에 걸친 학술발굴조사에서 고종 대 증건된 주요 전각과 행랑의 기단을 비롯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육조거리(현 세종대로)에 자리했던 최고의 관청이자 원위치에서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관청으로서 건축사, 도시사, 조선시대사의 측면에서 의정부 터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 현지조사의견('20.01.21./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1) 사적분과위원장 ○○○

- 의정부지는 청사, 관련 인물 등에 대한 관찬사료 뿐만 아니라 개인문집, 지지류, 일기류, 회화, 사진재료 등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남아있다.
- 최근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중심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회당과 협선당의 건물위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본당 뒤로는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의 흔적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육조거리 관청을 대표하는 의정부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함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문화재위원 ○○○

- 의정부의 위치에 관한 문헌 및 그림, 지도, 사진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여러 번의 발(시)굴조사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보니 일제 강점기 이래 이곳에 여러 건물의 신축/철거가 반복되어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결과 의정부 각 건물지의 기초와 원지, 우물, 담장과 배수로 등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향후 의정부를 복원할 경우 이들 고고학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곳에서 수습한 유물들(일제강점기 및 근대 포함)은 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래 조선의 최고 지배계층들과 그 이후 관료사회 물질문화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 시점에서 우선 이곳을(필요하면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여) 사적지로 지정하여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문화재위원 ○○○

-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이었다. 광화문 앞 의정부 청사는 태조시대 경복궁과 같은 시기 초창된 뒤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 중건이 이루어지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역사성을 갖는다.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건물터의 교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발굴조사에서는 의정부를 이루었던 5동의 건물지와 연지, 우물 등 관련 역사 기록에 부합하는 하부 구조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 따라서 의정부 터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 지역은 중학천과 백운동천이 자연해자를 이루는 곳에 왕궁(경복궁)과 행정관청가(육조거리)를 조성한 한양도성의 핵심코어다. 그럼에도 육조거리는 지금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고, 복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의정부 터 만큼은 역사성은 물론 육조거리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옛 터전 전체를 아우르는 사적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4) 문화재위원 ○○○

- 의정부지(議政府址)가 가진 장소성과 역사성, 그동안 이뤄진 발굴 성과를 고려할 때 이곳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번에 사적 지정을 신청한 구역은 그동안 발굴이 이뤄진 구역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아직 발굴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까지 포함하여 원래 의정부가 있던 전 영역을 사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 복원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변경 3안으로 지정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의정부지(議政府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1.21(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의정부지(議政府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의정부지(議政府址)로 신청되었으며, 14세기에 한양천도와 함께 세워진 이래, 현재는 터로 잔존하고 있으며, 지정명칭 부여원칙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의정부지(議政府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의정부지는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종로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종로구 내에는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요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다.
- 의정부지는 북악산의 정면으로 경복궁 앞쪽 대로의 우측에 위치하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이 둘러싼 분지지형의 정중앙에 해당된다.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바로 좌측 첫 번째에 자리하였다.
- 의정부지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로는 확장되고 주변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당시 역사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물리적 시설로 경복궁과 광화문이 복원되어 있지만, 세종로가 조선왕조 최고위 관청들이 가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이 가로의 북쪽 끝에 남아있는 의정부지라도 더 이상의 훼손 없이 보호 및 보존되어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려야 한다.
- 의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5동을 비롯한 조선시대 건물지 8동과 부속 시설인 연지와 정자,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각 건물지의 경우 전면기초와 적심 등을 통해 그 규모와 조성 기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문헌자료 및 근대 도면 등을 통해 그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유래

-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에 자리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의정부를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과 함께 중수를 시작하였고, 그 해 완공되었다. 그러나 1894년 12월에 의정부는 갑오개혁 당시 군

국기무처가 자리했던 경복궁 내 수정전으로 옮겨졌고, 의정부의 명칭은 내각으로 바뀌었다. 1896년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로 명칭을 회복하였으나 1907년 다시 내각으로 고쳐졌다. 의정부 및 내각의 처소는 경운궁과 창덕궁 등으로 몇 차례 이전하기도 하였다. 의정부가 궐내로 이동한 후 의정부가 있던 자리에는 내부가 들어서는데 내부의 전신은 1895년 을미개혁 때 내무아문으로 설치되었다.

의정부 내부 청사는 1909년 6월 착공하였고, 1910년 8월에 벽돌조 2층 건물로 준공하였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서울이 경기도의 일개도시로 전략함에 따라 경기도청으로 사용되었다. 의정부로 사용되던 당시의 당상대청 등의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으며, 육조거리에 면한 행각들과 일부 전각들만 철거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먼저 건축된 식민지 관공서였던 경기도청은 해방 후 한때 내무부와 건설부 등으로 사용되다가, 경기도청의 이전 후에는 치안국으로 사용되었다. 치안본부의 이전 후 한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의정부터 역사성 회복을 위한 복원 및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7월부터~2019년 8월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을 실시하였다.

의정부지 연도별 주요 연혁

년도	기관 및 조직	내 용
1398	도평의사사 (의정부 전신)	· 국정 최고 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사 청사 건립 (현 의정부지 주변으로 추정)
1399	-	· 송도로 도성 이전
1400	의정부	· 국정최고 의결기구로 의정부 조직 완성
1405	-	· 한양으로 환도
1592	-	· 임진왜란 발발 (의정부 청사 파괴된 것으로 추정)
1865	의정부	·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의정부 중수
1894	내부	· 의정부는 경복궁 수정전으로 이전 · 이조 터에 있는 내부가 의정부지로 이전
1909	내부	· 내부청사 건물 착공
1910	경기도청	· 완공된 건물에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이 이전
1945	미군정	· 경기도청 이전하고 미군이 사용
1948	경기도청	· 경기도청 내무부와 농무부가 의정부지로 이전 · 내무부 치안국으로 활용
1967~1977	정부 부처	· 경기도청 수원으로 이전 · 내무부, 중부지방국세청, 건설부 등이 혼재하며 청사를 사용
1977~1989	내무부	· 치안본부 별관
1989~1997	정부	· 정부합동 민원실
1990	-	· 국무총리실 청사 신축을 위해 전 경기도청 건물 철거
1997	시민열린마당	· 기존 건물 모두 철거하고 공모를 통해 공원 조성 및 활용
2016~2019	서울시	· 의정부지 역사성 회복을 위한 보존 및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발굴 조사 진행

의정부지 연도별 발굴조사 결과

발굴경과	조사기간	조사일수	조사대상지	조사 결과
1차	2016.7.18. ~ 2016.12.20.	75	세종로 76-14(시유) 세종로 34-2(시유)	정보당, 협선당, 내행랑 일부 확인
2차	2017.3.15. ~ 2017.11.10.	101	세종로 76-14(시유)	정보당, 협선당, 내행랑 일부 확인
3차	2018.6.14. ~ 2018.12.20.	40	세종로 76-2(국유)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6(국유)	석회당, 연지, 내행랑 일부 확인
4차	2019.3.25. ~ 2019.8.22.	54	세종로 76-2(국유)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6(국유)	석회당, 연지, 정자, 내행랑, 담장지 등 확인

■ 의정부지 특징 : 본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의정부지 장소가 갖는 의미

- 의정부지는 조선왕조 5백년 동안 의정부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4세기 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주산인 백악산 아래 궁궐이 들어서고 궁궐 앞 동편에 도평의사사가 들어선 이래로 이 자리는 조선 말기까지 줄곧 의정부가 위치하였으며, 영의정과 좌, 우의정 등 3정승이 수반이 되어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한다는 설립 목적을 수행해 나갔다. 비록 17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는 비변사의 위상에 눌려 정부 최고위 관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기를 맞기도 했지만, 조선왕조 중앙 행정기구 최고위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내주지 않았다.
- 19세기 후반 고종이 즉위하면서 국정을 주도해 나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 아울러 의정부 청사를 일신하고 또 맞은편에는 옛 삼군부를 다시 세워 조선 건국 초기의 체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궁궐 정문을 앞에 두고 문무 최고위 관청이 마주해 있는 모습을 조선왕조가 구축하고자 한 이상적인 통치 체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재현하려고 했다. 비록 흥선대원군은 10년이 못 되어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구축하려고 했던 문무상대 배치의 형태는 의정부 청사의 중건과 삼군부 청사 복설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 의정부는 19세기 말 정치적 격변 속에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에 의해 국권이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유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 특히, 서울의 중심지였던 광화문 육조거리는 운종가, 경희궁, 돈의문~서대문, 경복궁으로 이어져 있었고, 이 가운데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육조거리’라 불렀다. 육조거리 좌측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기로소가, 우측으로는 예조, 병조, 사헌부, 형조, 공조, 장례원 등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현대에 걸쳐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미대사관, 교보빌딩 등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의정부와 대칭을 이루고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삼군부는 일제 강점기까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

다, 현대에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훼손되어 대략적인 현황만 사진상으로 파악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정부지는 6백년의 긴 역사와 그 사이의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고려 건축형식을 계승한 상징성

- 1398년(태조7)에 지어진 의정부는 중앙에 지붕이 한 단 높은 중심 건물이 서고 좌우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 3당 병립 형태로 지어졌다. 정도전이 지은 「도평의사사청기」에 의하면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 청사는 높고 큰 집이 중앙에 있고 날개 같은 집이 손을 모으듯이 좌우에 있다고 하였는데, 조선 초 의정부 청사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865년(고종2) 청사 건물을 다시 지을 때에도 그 형태는 반복되었다.
- 3당 병립 방식의 건물 구성은 9세기 이전 신라의 절터에서도 나타나며, 고려시대에는 송악산 아래 궁궐의 중심전각은 물론 평양이나 파주 등 지방의 행궁은 물론 멀리 울주의 역원 건물에서도 반복되는 보편적인 형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부나 의정부, 삼군부 등 1품 관청에서 채택되었고 서울 문묘 명륜당을 비롯해서 전국 군현의 객사에서 따랐다.
- 최근 실시된 의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중심 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회당과 협선당의 건물 위치가 확인되었다. 정본당 뒤로는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의 흔적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종 때 다시 지어진 3당 병립 형식의 의정부 중심 전각 모습은 1901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발굴조사는 사진자료와 일치하는 건물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 3당 병립 형태의 건물 배치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이나 주요 관청 등에서 채택해 온 형식이며 조선왕조에서도 중앙 관청을 비롯해서 사묘나 지방 객사에서 수용해 왔다. 객사 건물은 20세기에 들어와 도시 중심부가 변화하면서 거의 다 사라지고 몇몇 도시 변화가 뒤늦었던 곳에만 잔존해 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종친부나 삼군부 등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던 3당 병립 형식의 건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종친부 건물이 최근에 와서 3당 중 2개 건물만이 복원되어 겨우 옛 모습을 부분적으로 회복한 정도이다.
- 의정부는 육조거리의 북쪽 으뜸 되는 위치에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3당 병립 형태의 전각이 가장 돋보이는 방식으로 서 있던 곳이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3당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이곳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한층 드러내 준다.

2) 조선 건국 초 문무(文武) 상대배치의 현상이 갖는 장소적 의미

- 경복궁 중건이 시작되고 의정부 청사를 새로 짓던 1865년(고종 2) 5월, 영의정 조두순은 삼군부를 복설하여 예조 자리에 설치할 것을 청하면서 “건국 초에 의정부와 마주해서 삼군부를 세운 것은 한 나라의 정령이 문사(文事)와 무비(武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제 터에 그리고 개별 건물의 배치도 국초를 따랐던 중건공사의 전모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을 완성하고 이어하던 날, 고종은 궁궐이 지어지고 그 앞에 의정부와 삼군부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조종조의 원대한 제도가 오늘에 이르러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의정부지는 조선 건국은 물론 그로부터 470년이 지나서도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큰 의미를 지닌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 고종 초에 중건된 의정부의 건물 형태는 중앙에 정본당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좌우에 대칭으로 협선당과 석희당이 나란히 선 모습이였다. 이런 건물 형태는 정도전이 도평의사사 청사를 두고 설명한 ‘외중익공좌우(巍中翼拱左右)’ 즉 중앙이 우뚝하고 좌우가 손을 마주하여 받드는 모습을 그대로 건물로 형상화한 배치였다. 고종 초반 의정부의 중건은 단순히 문무 상대배치를 재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건국 초기의 건축 형식까지를 재현해 내려는 의지를 담아낸 행위였다.
- 21세기에 들어와 의정부지가 갖는 의미는 한층 두드러진다고 하겠으며, 세종대로의 북쪽 끝에 자리하여 그 북쪽 경복궁 광화문과 함께 국가 상징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원 위치를 지닌 장소성

- 의정부는 1398년(태조7)에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에 지어졌다. 1394년(태조4) 정전과 내전 일곽을 갖추었던 경복궁은 4년이 지난 1398년에 와서 궁성을 축조했고 의정부 청사가 지어지던 거의 같은 시기에 와서 궁성 남문인 광화문이 완성되었다. 이때 광화문 앞 서편에는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의흥삼군부 청사도 지어져서 궁궐 앞에 문과 무를 상징하는 최고위 관청이 서로 마주하는 모습이 갖추어졌다.
- 의흥삼군부는 삼군부로 명칭을 고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역할이 병조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 삼군부가 자리 잡고 있던 광화문 앞 서편 터에는 예조가 들어섰다. 비록 맞은편에 있던 삼군부는 사라졌지만, 광화문 앞 동편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의정부는 조선 말기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다른 기관에 내주지 않고 위치를 고수했다.
- 광화문 앞길은 육조대로 또는 육조거리로 불리면서 조선시대 한양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가로는 국왕이 궁궐 밖을 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었으며 국왕이 궁궐로 돌아올 때도 이 길을 지났다. 국왕의 행렬은 다른 어떤 행차보다 성대하고 화려한 것이었으며 또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선왕의 신주를 봉안하고 궁궐로 돌아오는 국왕의 행차는 특히 오랜 근신기간을 끝낸 휴가분하고 명랑한 것이었으며 이때는 가로변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광화문 앞에서는 산대놀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행사는 한양 도성민들에게도 큰 볼거리가 되었다. 중국에서 황제의 칙서나 조서를 지닌 사신이 오면 역시 광화문 앞에서는 중국 사신을 위해 놀이가 펼쳐졌다. 의정부가 서 있던 육

조거리는 다양한 행사와 구경거리가 벌어지던 한양의 가장 돋보이는 장소였다.

- 17세기 이후 경복궁이 복구되지 않고 창덕궁이 국왕의 시어소가 되면서 육조거리는 한산한 거리가 되었으며, 의정부도 퇴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의정부 자체는 그 위치를 고수했으며, 육조거리의 머리가 되는 위치를 유지했다. 19세기 후반, 고종 즉위 후 경복궁 중건이 이루어지고 의정부가 다시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서 육조거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고종은 경복궁으로 이어하고 나서 한동안은 1년에 15회 가깝게 도성 안팎 사묘와 능침을 찾았으며, 그때마다 반드시 광화문을 출궁과 환궁 경로로 삼았다.
- 경복궁 중건과 함께 의정부가 청사를 일신하고 또 맞은편에 삼군부가 다시 세워졌다. 건국 초 궁궐 앞에 문무 최고위 관청이 마주하던 모습이 재현되었다. 1882년(고종19)에 와서 삼군부가 폐지되면서 이런 양상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의정부는 여전히 국정 최고 기관의 위상을 잃지 않았다. 광화문 앞길 육조거리는 여전히 한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가로로서 존재감을 이어갔다.
- 의정부는 20세기에 들어와 성격이 다른 관청이 들어서고 벽돌조의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지만,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육조대로가 세종대로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광화문이 다시 본래 위치에 지어지고 의정부지 역시 거의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되면서 터가 갖는 장소적 가치는 새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조선왕조 최고위 행정관청이 지닌 역사성

- 의정부는 조선왕조 중앙 행정관청 가운데 최고위급인 정1품 관청에 속했다. 조선 초기 정1품 관청은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의정부 외에 종친 관련 업무를 보는 종친부, 공신들의 업무를 보는 충훈부, 공주·옹주에게 장가든 부마와 관련한 의빈부, 왕의 친족과 외척의 업무를 다루는 돈령부였다. 이 가운데 의정부를 제외한 다른 관청들은 실제로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었다. 의정부의 유일하게 정1품 최고위 관청으로 실제적인 업무를 다루는 기관이었으며, 그 업무는 백관을 통솔하고 제반 국정을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정부의 처음 명칭은 고려시대의 체제를 따라서 도평의사사로 불렸다. 도평의사사는 정3품 관청인 6조에서 올라온 문서들을 가려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국왕에게 올렸다.
- 태종은 도평의사사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꺼려서 6조 관청을 정2품으로 승격시키고 6조에서 직접 국왕에게 국정을 보고하도록 고쳤다. 아울러 이즈음에 도평의사사는 이름을 의정부로 고쳤다. 이로써 의정부의 위상은 건국 초기보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조에서 국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6조 직계제는 세종 때 와서 다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서 의정부서사제로 전환되었다가 세조대에 다시 6조 직계제로 바뀌는 등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정1품 최고위 관청인 의정부의 지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 17세기 이후 국방문제를 다루던 비변사가 국정 전반을 주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

다. 본래 국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시 기관으로 마련한 비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의정부의 3정승은 비변사 회의를 주관하게 되고, 국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비변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자체의 역할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이런 양상은 19세기 후반 고종 즉위 후 비변사가 철폐되고 의정부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비변사의 철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국정을 다루는 최고 관청인 의정부의 위상은 회복될 수 있었다. 외세의 간섭이 커지던 19세기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정부는 한동안 내각으로 명칭이 바뀌고 경복궁 수정전에서 업무를 보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다시 원래 자리도 돌아갔다. 의정부는 1907년 통감부에 의해 관제 전반이 개편될 때까지 정1품 최고위 관청의 위치를 고수했다.

- 의정부는 조선왕조와 함께 5백여 년의 역사를 이어갔으며 최고위 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역사적 부침을 겪었던 조선왕조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의 역사도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왕조 국정의 최고위 관청이라는 위상을 잃지 않고 조선왕조와 함께 명운을 이어진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4필지 / 7,08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2	대	2,492.6	1,162				
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4	대	6,679	1,663				
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14	공	6,438.5	4,240				
4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0	도	1,163	17				
계				16,773.1	7,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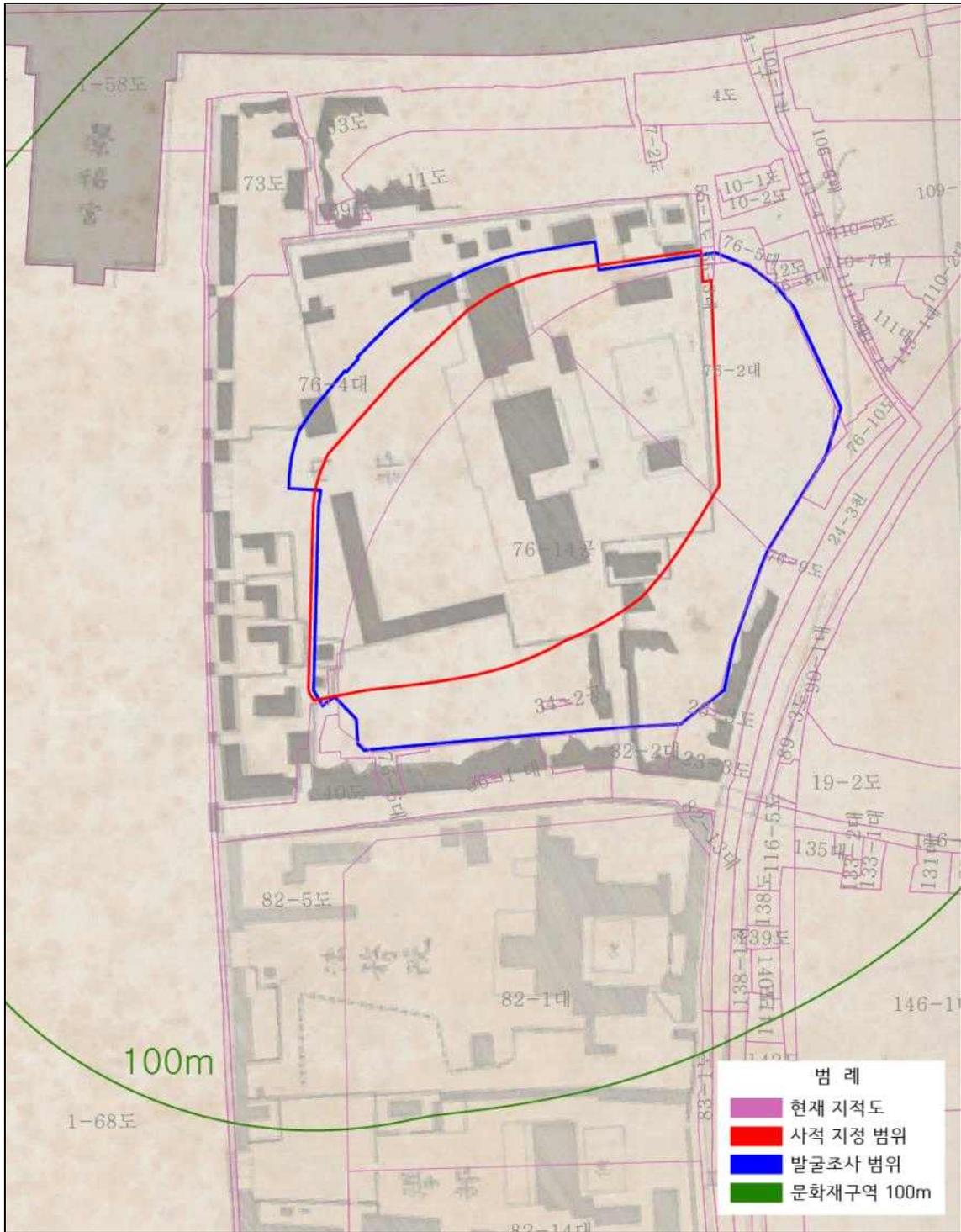
사적 지정 신청 면적 변경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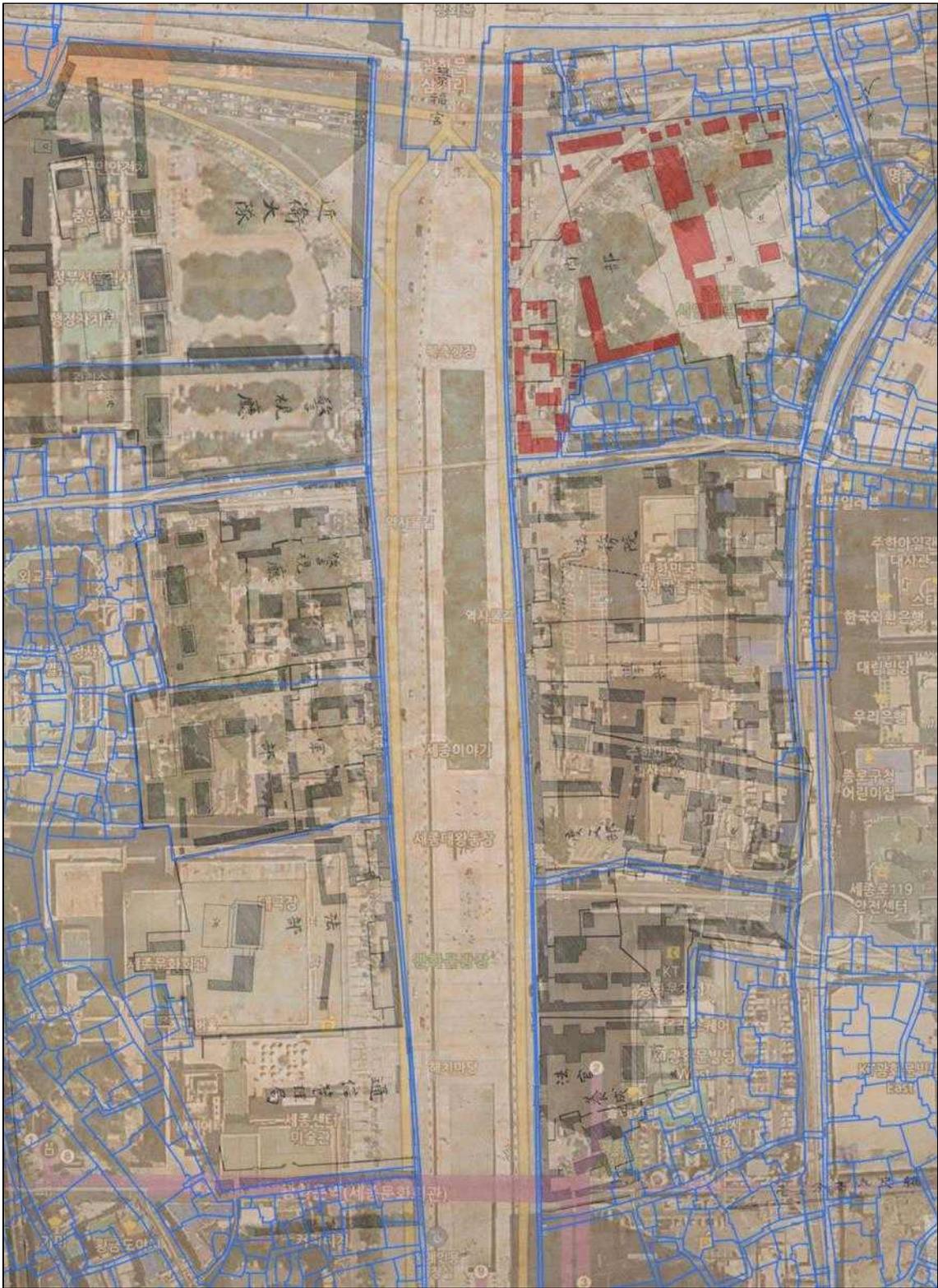
「광화문의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10년)+ 발굴조사 유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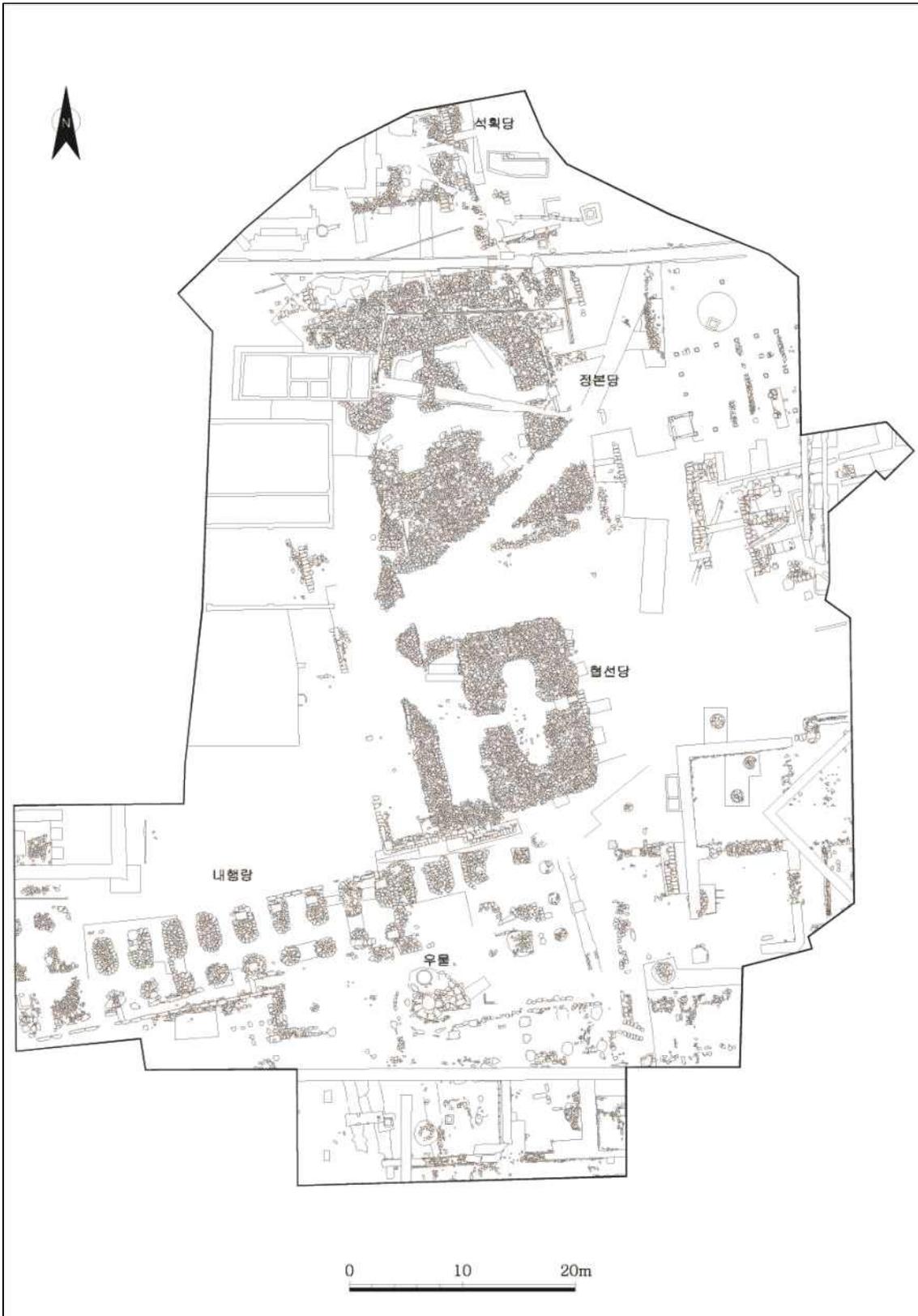
「광화문의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10년)+ 발굴조사 유구 평면도



「광화문의제관아실측평면도」+지적도+문화재구역100m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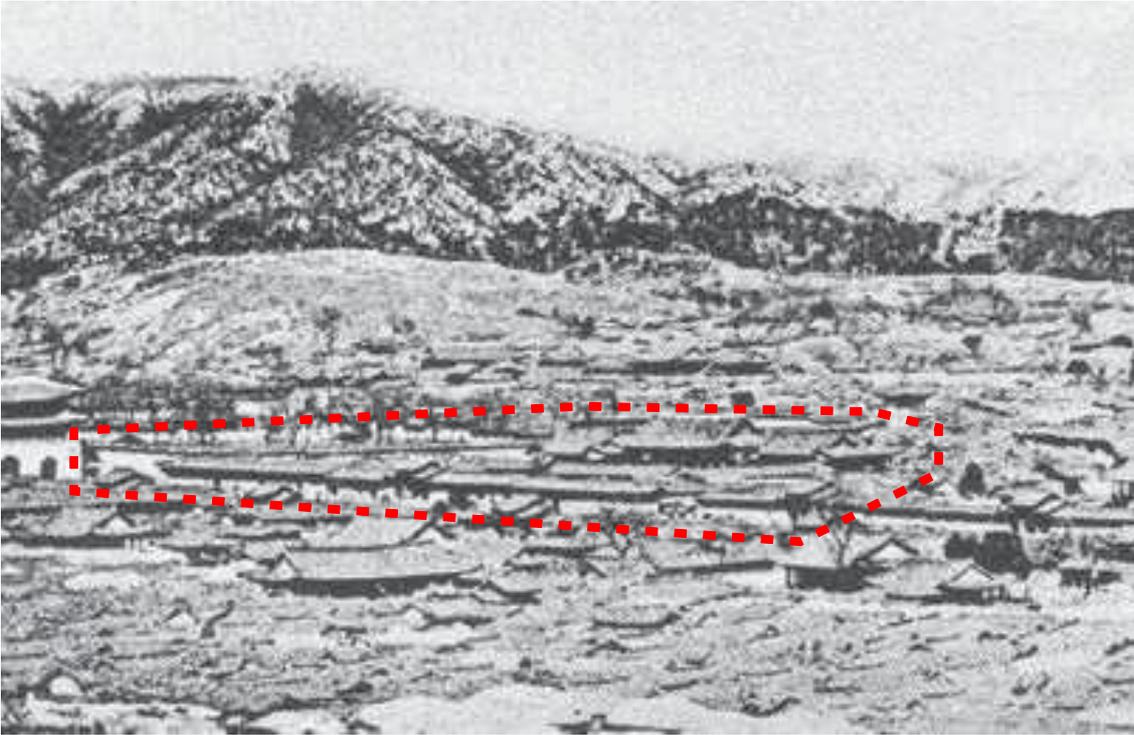


「광화문의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10년)+「지적원도」(1912년)+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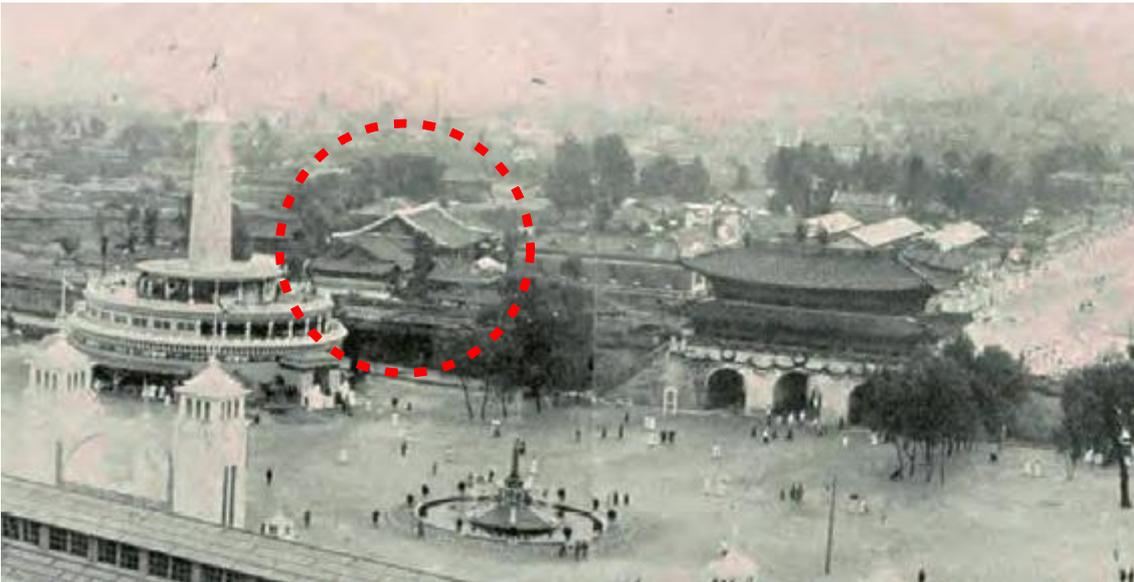


서울 의정부지 발굴조사 전체 평면도

□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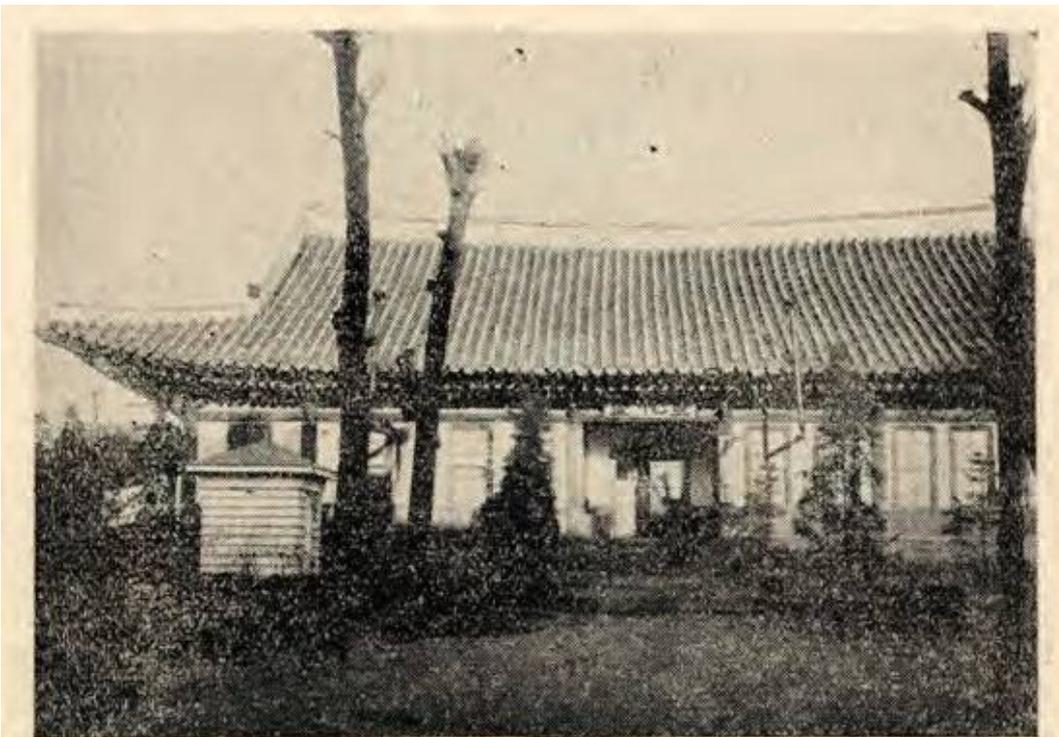
모리스 쿠랑 촬영 사진 부분, 1890(서울역사박물관, 「모리스 쿠랑의 서울의 추억」, 2010)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당시 의정부터 전경, 1915



“war office”라는 표제로 수록된 정본당의 정면 모습
 (Constance J.D. Tayler, Koreans at Home, 1904)



京畿觀察府宣化堂
 (現京畿道廳本館の東方にあつたもの)

경기관찰부선화당(『경성부사』 권2,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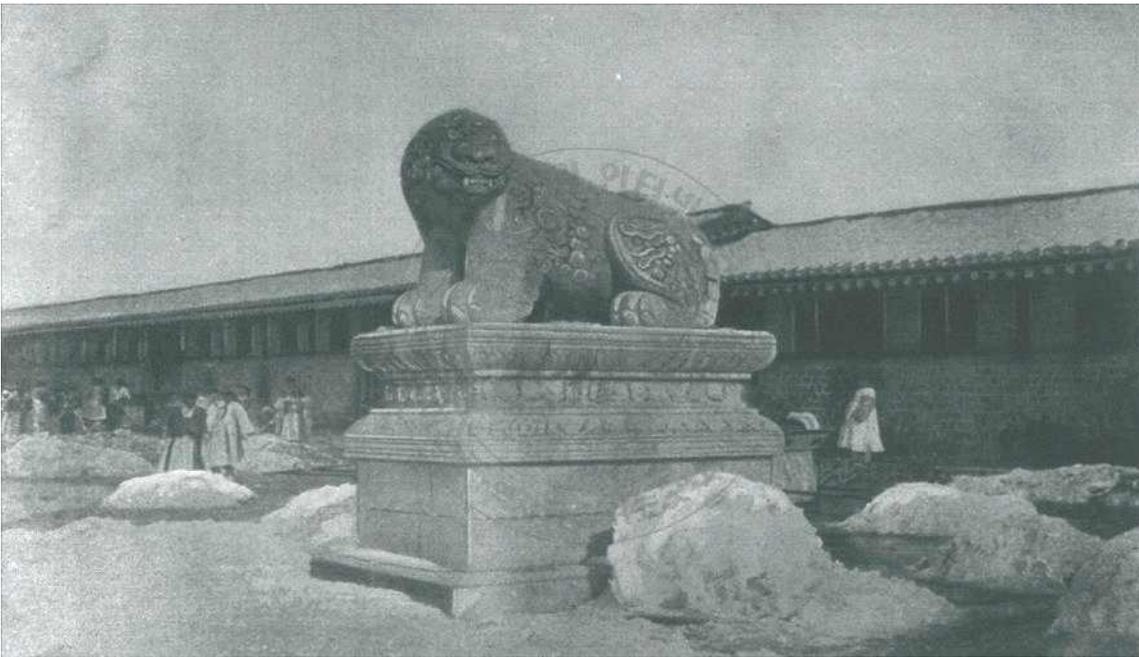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장충단으로 옮겨진 의정부 정자(추정), 1926년 이후



오가와 이신 촬영 사진 부분, 1886,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



이폴리트 프랑델 촬영 사진 부분, 1892~1893
(이폴리트 프랑델, 「먼 나라 꼬레 : 이폴리트 프랑델의 기억 속으로」, 경기도박물관, 2003)



국가기록원 소장번호 CET0026206, 1883 추정



이사벨라 비숍 촬영 사진 부분, 1897년경



구 의정부 청사 남쪽의 외행랑 모서리 부분, 1927~1935,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발굴조사



조사 전 전경



2016년 1차 시굴조사 후 전경



2017년 2차 시굴조사 후 전경



N1E1Gr 시굴트렌치 세부



N2E1Gr 시굴트렌치 세부



1호 건물지(추정 정본당) 전경



2호 건물지(추정 협선당) 전경



S2W2 그리드 기반 석렬 근경



3호 석렬 전경



2018년 발굴조사 후 전경



1호 건물지(정본당-政本堂) 전경



2호 건물지(협선당-協宣堂) 전경



3호 건물지(석획당-石畫堂)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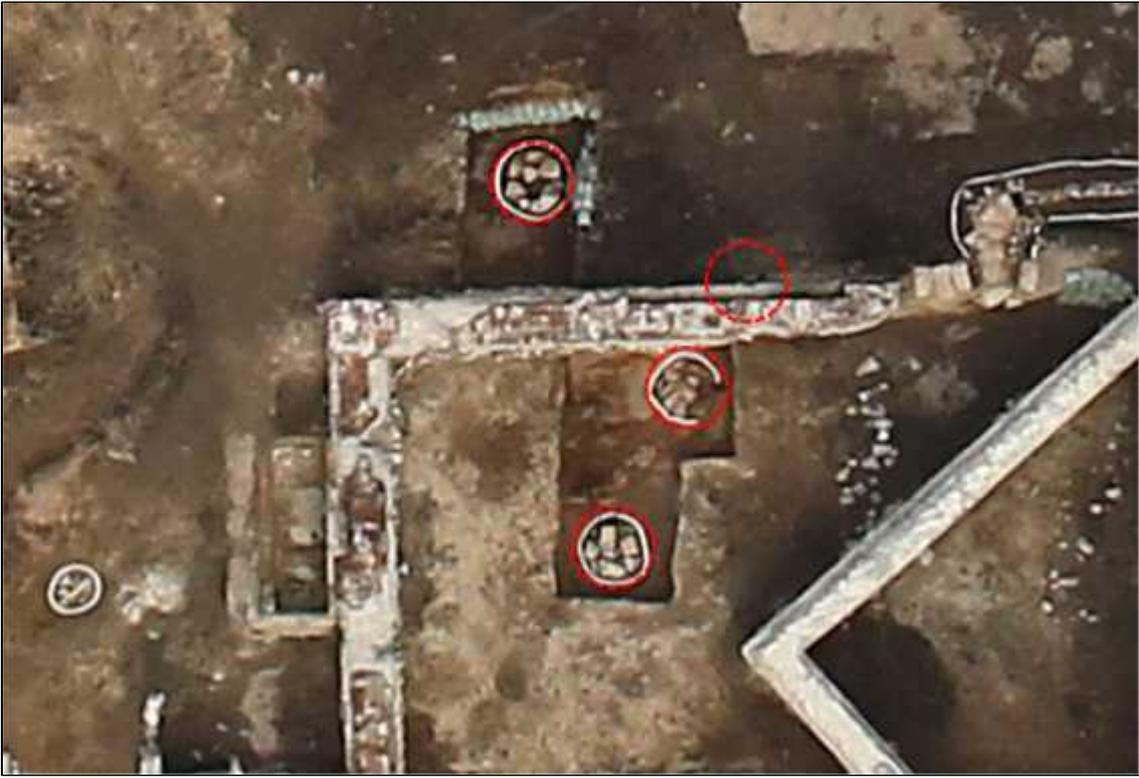
4호 건물지(내행랑) 전경



5호 건물지(정자) 전경



연지 전경



6호 건물지 전경



7호 건물지 전경



우물 조사 후 전경



2019년 조사 전 현황



2019년 조사 후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현 공원구역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도로 등은 경복궁과의 일체성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에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 100m 이내로 설정되었다.
- 사적지정 대상인 의정부지의 경우,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일정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지정구역의 외곽 100m 안쪽을 기존의 사적 제117호 경복궁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설정하는 안이다.
-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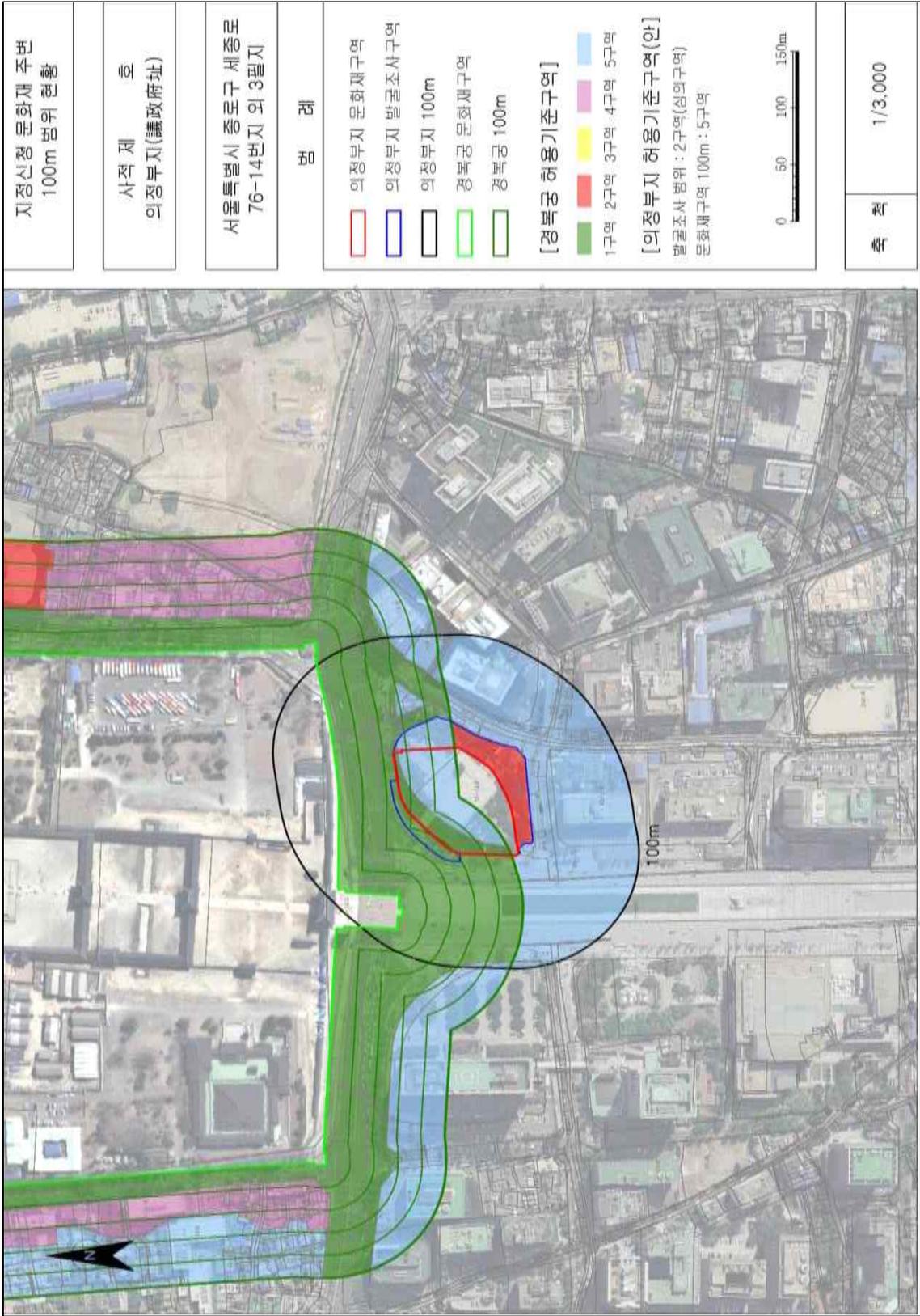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의정부지의 경우,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 유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유지가 잔존하는 곳까지 범위에 포함시켜 문화재구역을 설정하였다. 다만 의정부지 북쪽은 사적 117호인 경복궁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경복궁 보호구역을 근거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의정부지 현상변경기준(안)은 의정부지 남쪽 일원 가운데 향후 유적 보존을 위해 기존 발굴조사지역까지 2구역(심의구역)으로 설정하여 유적을 보호한다. 그러나 의정부지 주변지역의 경우 도로 및 소규모의 미개발지를 제외하고 기 개발된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별도의 구역설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의구역 외곽 100m까지 5구역으로 일괄 설정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구분	<의정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발굴조사구역	○ 심의구역		
100m	○ 건축물 최고 높이 53.6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56.6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서울 의정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지적도



서울 의정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지적도+위성영상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의정부지 정비계획(안)

구분		내용		연차
발굴조사 계획안		발굴조사 및 현장공개		단기 (1~2년차)
유구정비 계획안	1안 유구 자체 정비	①1-1안	복토 후 상부 형상화	중기 (3~5년차)
		②1-2안	복토 후 상부 건물요소 부분 복원 (기단, 월대, 초석 등)	
		③1-3안	노출 후 보호시설 설치	
	2안 유구 위 건물 복원	④2-1안	의정부 주요건물 복원 : 실내 제한 활용	
		⑤2-2안	의정부 주요건물 복원 : 실내 적극 활용	
		⑥2-3안	의정부 건물 전체 복원 (육조거리 원형 회복과 연계)	장기

1) 1-1안 : 유구보존조치 집중+유구형상화

- 1-1안은 유구 상부를 복토한 후 복토한 대지 위에 유구의 평면상 경계나 기둥 자리 등을 표시함으로써 유구의 위치, 크기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안이다. 형상화의 방식은 공간 활용의 목적에 따라 원 부재의 형태를 적절히 따르는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재료와 형태를 이용한 적극적인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2) 1-2안 : 건물 요소 부분복원+유구형상화

- 고층과 발굴 유구 해석을 바탕으로 기단, 월대, 초석 등 건물의 일부를 복원하는 안이다. 기단부의 복원은 관람객에게 건물의 전체 규모와 배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초석이나 기둥 일부의 복원은 가구 구조의 짐작을 돕는다. 내행랑과 외곽담장으로 구획된 의정부 영역은 바닥 패턴을 이용한 형상화 등을 통해 내외 경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도록 한다.

3) 1-3안 : 유구 노출 전시+보호시설물 설치

- 발굴된 유구를 노출시켜 전시하고, 보호시설물로 유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적을 볼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정본당, 협선당, 석회당 등 중심건물과 연지, 사인사, 내행랑, 내삼문 등의 발굴 유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존처리나 보호시설물 건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 방문자가 유구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발굴된 상태를 유지한 채 겹겹이 쌓인 시간의 쉼을 관람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 발굴 유구의 잔존 상태에 따라 외부로 노출시킬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어떤 방식의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한다. 발굴된 유구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의정부지 유구 전체에 대한 보호각을 씌우는 방식 2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

4) 2-1안 : 주요 건물 복원+실내공간 제한 활용

- 정본당과 좌우 협선당, 석회당을 비롯한 중심건물과 내행랑, 후원 정자, 사인사 등 현재 의정부지의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한 건물들까지 복원한다. 정본당·협선당·석회당 내부의 수장을 고식으로 복원하여 방문객의 상시 진입을 막고 밖에서 감상하도록 한다. 실내는 비워두거나 인물 모형, 가구와 소품 전시 등으로 하여 바깥에서 들여다보게만 하게끔 조성한다. 의상 체험이나 행례 재현 등 일시적인 행사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내에 들어가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고증이 가능하다면 조선시대 의정부의 행례를 재현한 행사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2안과 다르게 건물 내부에서도 행사 재현이 가능하다.

5) 2-2안 : 주요 건물 복원+실내공간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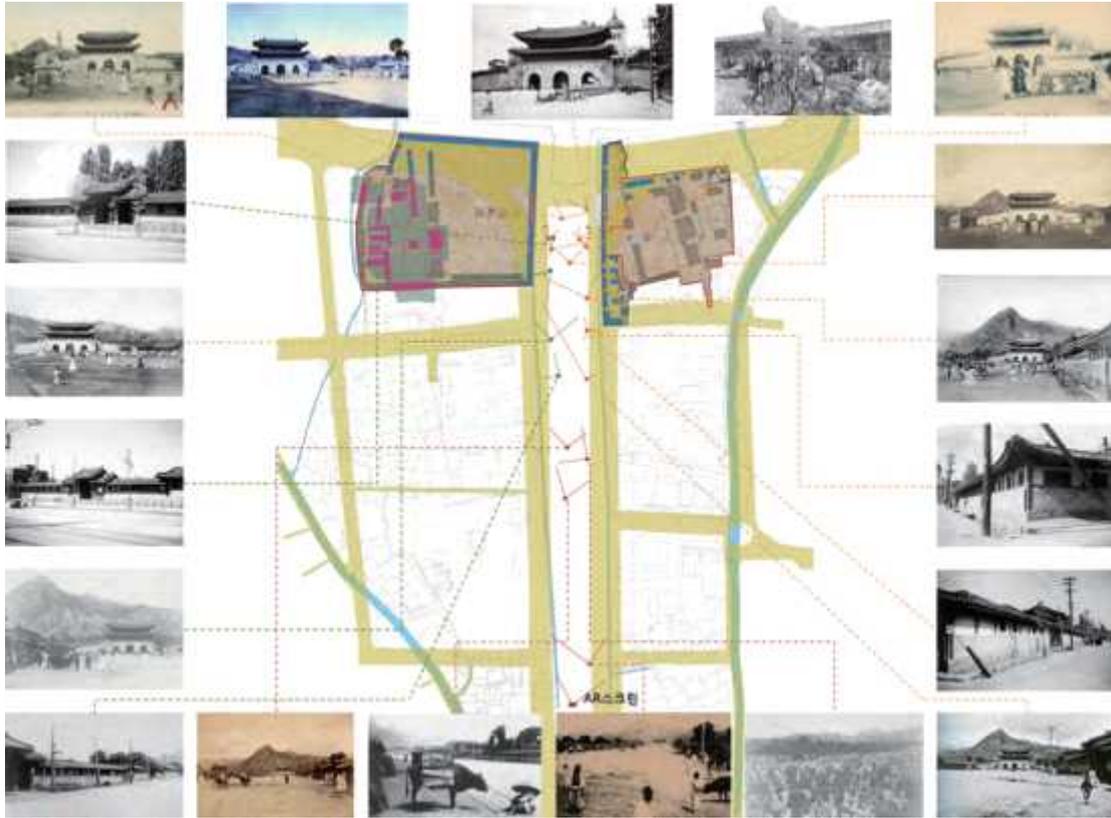
- 정본당과 좌우 협선당, 석회당을 비롯한 중심건물과 내행랑, 후원 정자, 사인사 등 현재 의정부지의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한 건물들까지 복원한다.
- 2-2안은 복원된 건물의 내부 수장을 현대적 쓰임에 맞게 변경하여 부분적으로 전시실 등으로 활용하는 정비안이다. 이럴 경우 방문객들은 복원된 건물의 운영 시간 동안에는 상시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 가능하다. 건물의 가구 구조와 외부에서 보이는 수장은 가능한 한 고증과 유구 해석을 통해 도출된 복원안을 그대로 따르고, 내부는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부가적인 수장이나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6) 2-3안 : 최대 범위의 복원

- 육조거리의 원형 회복 사업이 추진되어 주변 도로가 지하화 혹은 우회되고 도보화가 이루어진다면 담장과 부속사, 외행랑 등 의정부지 영역 내 모든 건축물을 복원할 수 있다. 관리, 안내,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광화문광장 가까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의 장소성을 알릴 수 있는 접면을 넓혀 소통을 증대시킨다.
- 의정부에 속한 모든 건축물을 완전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주요 건축물과 시설을 최대 범위, 최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여 육조거리 전반의 역사와 상징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복원된 의정부 청사는 실내뿐만 아니라 고증을 거친 의례와 관청의 실상을 재현하는 공간으로서도 그 이용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정부지 활용계획(안) : 의정부와 육조거리 증강현실 활용방안

고사진을 이용한 증강현실은 의정부지를 비롯하여 의정부 서쪽 삼군부 등 육조거리 전반에서 응용 가능하다. 육조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잔존하며, 대부분 촬영위치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광화문광장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 제작은 고사진과 해당 장면, 해당 관청에 관한 음성안내를 포함한다. 육조거리의 증강현실 콘텐츠 역시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하고 차차 정식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9. 종합의견

- 의정부지는 1398년(태조7)에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에 지어져 조선 50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경복궁과 함께 장소적 가치를 가진다.
- 또한 의정부지는 조선왕조 국정의 최고위 관청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의정부의 건축 양식은 중앙에 지붕이 한 단 높은 중심 건물이 서고 좌우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 3당 병립 형태로 지어졌다.
- 최근 실시된 의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중심 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회당과 협선당의 건물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정본당 뒤로는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 유구도 확인되었다.
- 고종 때 다시 지어진 3당 병립 형식의 의정부 중심 전각 모습은 1901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도까지의 발굴조사는 사진자료와 일치하는 건물 배치를 보여주고 있어,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의정부지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현 지정 신청 구역은 발굴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만을 지정구역으로 신청하고 있어 의정부지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 공원부지 전체를 지정구역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거창 거열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거창 거열성(居昌 居列城)」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창 거열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15. 6월 지정 신청, '15.8.31. 현지조사, '15.9.14. 보완요청(거열성의 명확한 시대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필요), '20.5.28.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거창 거열성(居昌 居列城)
 - 소재지 : 경남 거창읍 상림리 산54-2 외
- (3) 지정신청 명칭 : 거창 거열성(居昌 居列城)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68,746㎡
- (5) 관리단체(안) : 거창군
- (6) 신청사유
 - 거열성은 축조시기와 축조기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이 확인됨. 1차성은 삼국항쟁기 신라와 백제의 영토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실체가 확인되고, 백제 멸망 이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역사의 현장임. 2차성은 1차성의 체성부를 활용하여 증축하였으며, 1차성과 2차성 각 계곡부에서 집수지가 확인되어 성곽연구사 및 수리사를 규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임

라. 검토의견

- 거열성은 신라 9주 가운데 하나인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¹⁾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으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중 최대규모의 산성임
- 4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해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가 확인되어 신라 석성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
- 신라 9주의 하나인 거열주의 치소성, 삼국통일 및 나당전쟁 대비를 위한 역사의 현장, 삼국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사회문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유적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1997.08 : 거열성 지표조사(체성 축조기법, 전체길이 측량 및 건물지 확인)
- 1997.12 : 거열성 남벽 1차 복원공사
- 2000.09 : 거열성 남벽 2차 복원공사
- 2003.11 : 거열성 서벽 복원공사
- 2004.11.~2005.02. : 거열성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체성 현황, 축조시기, 축조방법, 북문지, 성내 건물지, 체성 전체길이 GPS 정밀측량)
- 2008.11.~2009.02. : 거열성 서쪽 계곡부 체성과 집수시설 발굴조사(체성 현황 및 퇴수구, 집수시설 2기, 내부석축)
- 2015.05.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거열성의 역사적 가치 조명)
- 2014.11.~ 2015.05.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 2015.11.~ 2016.0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시발굴조사(1차, 2차 이중성, 6세기 중엽 1차성 축조 후 7세기 후반 2차성 수축, 2차성 동쪽 집수지 확인)
- 2015.05.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국가사적 신청(거창군⇒경남도)
- 2015.06. : 제2회 경상남도 사적매장분과위원회 원안 통과
- 2015.06. : 문화재청 사적지정 신청(경남도⇒문화재청)
- 2015.08. : 문화재 위원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현지심사

1) 치소성(治所城) : 치소가 위치한 성

- 2015.09.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자료보완 요구(거열성 시대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필요)
- 2015.10.~2016.01. :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시굴조사(시기 및 축조 기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성된 이중성, 동쪽 곡부 2차성 집수지 확인)
- 2016.1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자문회의
- 2017.03~1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출토유물 분석 학술연구용역
- 2019.04~09. : 거열성 집수지 학술발굴조사(동쪽 곡부 2차성 집수지 1기, 배수시설, 수거시설, 축대)
- 2019. 1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 2020. 05. : 문화재 위원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현지심사

(2) 현지조사의견('20.05.28./문화재위원 ○○○, ○○박물관 ○○○, 전문위원 ○○○)

1) 문화재위원 ○○○

- 거창 거열성은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고대산성으로, 그간 5차례의 시발굴조사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그 역사적 성격이 대체로 밝혀진 성곽임.
- 1호집수지의 출토유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축은 신라에 의해 6세기 경에 축조되어 일시적으로 백제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신라에 의해 경영된 산성으로, 특히 이 산성은 <삼국사기> 문무왕 13년(673) 기록에 나타나는 '거열주 만홍사산성'으로 비정되는 바, 이 시기는 신라가 당나라에 대항하여 기존 성곽을 대폭 증축하거나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는 시기로, 거열성이 드물게 <삼국사기> 기록과 부합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나당전쟁시기 거열성 2차 성벽을 축조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축성법 연구에서 시기적 기준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2차 성벽 안에 축조한 집수지는 급경사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력 댐과 유사한 집수지 보호 석축시설을 시공하였는 바, 이는 다른 성곽유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공법의 집수지임.
- 따라서 상기의 몇가지 학술적 측면에서의 가치로 볼 때,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박물관 ○○○

- 거열성은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신라는 통일기 말까지 주군현의 치소가 산성에 있었으며, 주-군-현의 치소성은 축성시점부터 중요도와 규모를 달리하였음
- 거열성은 거열주의 治所城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이며, 9주의 치소성 중 삼량주(신기리산성), 한산주(이성산성), 웅천주(공산성)가 사적으로 지정된 상태임
- 거열성의 외성(2차성)은 문무왕 13년(673) 축성된 만홍사산성임
 - 문무왕 13년 대당전쟁에 대비하여 신라는 전국에 10개의 대형 산성을 쌓았으며 그 중 하나가 거열성의 외성(2차성)으로 추정되는 만홍사산성임
-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명칭이 실제 유적으로 비정되는 성곽임
 -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축성기록은 70건 정도이며, 거열성은 축성기록과 함께 흙순과 천존관련 일화가 남아 있으며 역사속의 명칭이 실제 유적으로 비정되는 소수의 유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축성시점의 차이로 인한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음
 - 거열성 내성(1차성)은 6세기 후반 편암계 세장방형 석재로 협축식으로 구축
 - 거열성 외성(2차성)은 673년 화강암 가공성돌과 지대석을 사용하여 편축식으로 쌓아 신라 성곽 축성법 변화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유적임
- 사적지정 가치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거열성은 1990년대 후반 외성(2차성)이 고증없이 복원되면서 원형의 상당부분이 변형되었으나 유적의 학술적인 중요성과 관리와 보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사적지정가치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거창 거열산성’으로 검토
 - 향후 발굴조사 등 원형 보호를 위한 추가조사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가결 14명

거창 거열성(居昌 居烈城) 사적 지정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 5. 28.(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박물관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경상남도 기념물 제 22호(1974년 지정)인 거창 거열성(居昌 居烈城)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신청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거창 거열성(居昌 居烈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사적의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을 고려해 볼 때, 현상의 거열성 명칭이 명확치 않으므로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烈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거열성¹⁾은 거창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건흥산(乾興山 ; 572m)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건흥산은 거창군의 진산(鎭山)에 해당하는데, 건흥사(乾興寺)라는 절이 있었던 것에서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전한다. 건흥산은 삼봉산(三峰山 ; 1254m)의 남쪽 지류로, 삼봉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거창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다. 건흥산은 행정구역상으로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번지, 거창읍 가지리 산156-2번지, 마리면 영승리 산87-2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위도는 35°42' 07.21" 북이며, 경도는 127°52' 40.59" 서부근이다. 건흥산은 거창읍(거창분지)과 마리면(마리소분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거창읍과 마리면을 모두 조망권에 두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거열성의 남쪽으로는 위천천이 마리소분지 방향에서 거창분지 방향으로 흐르면서 감입곡류(嵌入曲流)하여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협곡의 공격사면에는 단애가 형성되어 통과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리소분지와 거창분지를 연결하는 교통로 중 유일

1) 현재 건흥산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는 산성의 공식명칭, 즉 경상남도기념물 지정명칭은 거열성(居烈城)이며, 이외 거열산성·건흥산성·만흥사산성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현재 건흥산에 조성되어 있는 거열성은 백제멸망 후 663년까지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된 삼국사기 문헌기록 상의 ‘거열성’으로 비정되어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 거열성(居烈城)으로 지정된바 있다. 한편 문헌기록상의 ‘거열성’을 거창읍 소재 ‘분산성’으로 파악하고,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인 거열성을 삼국사기에서 673년 쌓았다(築)는 거열주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居昌 居烈山城』, 학술조사보고서 제33책, p.111 / 박성현, 2009, 「신라 尙·良·康州郡縣城의 양상과 형성 과정」 『한국고대사 연구』 p.183) ”가 있다.

그러나 2015년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시굴조사 결과, 거열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축조된 이중성임이 밝혀졌으며, 외성을 먼저 축조 한 후 내성을 축조하는 일반적인 축성 사례와 달리 거열성은 6세기 중엽에 내성을 먼저 축조한 후, 7세기 후반에 이르러 내성의 자재를 재활용하여 대규모로 외성을 증개축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성과 외성은 축조기법과 규모, 출토유물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오늘날 ‘거열성’의 내성은 663년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된 문헌기록상의 거열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외성은 내성의 일부를 뜯어내어 대규모로 증개축 되었고 축조기법에서 7세기 후반 신라 석축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673년 거열주에 쌓았다는 만흥사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건흥산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는 산성을 역사용어이자 경상남도기념물 지정명칭인 ‘거열성(居烈城)’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게 고개를 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협곡은 마리분지 방향에서 거창분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여, 오늘날에도 협곡을 따라 국도 3호선이 위치하고 있다. 위천천을 사이에 두고 거열성의 남쪽으로는 망덕산(望德山 ; 681m)이 위치한다. 망덕산의 정상부에는 망덕산성(望德山城)이 축조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산줄기에도 운정산성(雲亭山城)이 축조되어 있어 북쪽의 거열성과 함께 교통로에 해당하는 위천천을 감싸는 형태를 띤다. 거열성의 북동쪽으로는 금귀산성(金貴山城), 동쪽으로는 분산성(盆山城)과 월곡산성(月谷山城)이 조망권에 위치하고 있다.

- 거창지역에서 확인되는 산성은 대부분 산의 정상부를 감싸는 테피식 형태의 산성으로 분산성과 황사산성을 제외하고는 대개 험준한 산의 정상부를 배경으로 고지에 축성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성곽은 거창지역에서 무주 및 김천방면, 함양방면으로 넘어가는 교통로와 고령·합천지역에서 가조면을 거쳐 거창방면으로 이동하는 교통로에 다수 소재한다.

이처럼 거창지역에 분포하는 산성의 위치는 주변의 분지들과 분수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창분지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즉 거창분지의 북쪽은 웅양면을 거쳐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지례면을 지나 김천으로 연결되고, 거창군 고제면을 거쳐 소백산맥 분수계 중 안부에 해당하는 신평령을 지나 전북 설천면과 무풍면을 거쳐 무주읍을 통해 논산, 대전, 옥천, 영동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거창분지의 동쪽으로는 살피재를 통해 가조분지로 연결된다.

거창분지의 서쪽으로는 위천소분지, 마리소분지, 안의소분지와 같은 소형분지들이 분포하며, 이를 통과하면 함양분지에 이른다. 안의분지 북서쪽으로는 육십령을 지나 전북 진안을 거쳐 전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함양분지를 지나서는 팔령치를 지나 전북 남원 및 섬진강 상류로 갈 수 있다. 남쪽으로는 황강과 연하여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합천군 봉산면 반양에 이르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합천군 묘산과 야로면·고령군 쌍림면을 지나 고령군 고령읍에 이른다. 봉산면 반양에서 남쪽으로 황강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 합천군 삼가면에 이르고, 여기서 산청군 생비량을 통해 진주시와 연결된다.¹⁾

이처럼 거창지역은 신라와 백제간의 주요 교통로에 해당한다. 거창지역에 21개소에 이르는 산성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있는 분포양상 또한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열성은 거창지역 최대 규모의 산성으로 이러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1) 기록에서 확인되는 삼국통일 공간의 실체

- 거창지역은 삼국항쟁기와 백제부흥운동기에 신라와 백제가 각축을 벌이던 곳으로 거열성은 거창의 진산인 건흥산(乾興山)에 조성된 입지,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1) 황상일, 2004, 「고대 거창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 『거창의 역사와 문화』, 거창군·경북 영남문화연구원.

중 최대의 규모를 볼 때 거창군을 대표하는 산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열성은 『삼국사기』 기록에서 백제멸망 후 3년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다 663년 신라 장군 흠순(欽純)과 천존(天存)에 의해 성이 함락되어 700명이 전사한 ‘거열성’으로 비정되어,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 22호 거열성으로 지정되었다. 거열성은 5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해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으로 구성된 석축산성으로 독특한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 중 1차성은 입지 및 규모·체성부의 협축기법·세장방형의 면석형태 및 축조기법·장방형의 집수지 형태 및 축조기법·출토유물¹⁾ 등을 통해 6세기 중엽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서진하는 과정에서 거창지역에서 최초로 축조되었고, 백제멸망 이후에는 거창지역 내에서 백제부흥운동군이 활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산성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 거열성은 『삼국사기』 제6권 신라본기 문무왕 3년 조에 의하면,

「二月 欽純天存 領兵 攻取百濟居列城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음력 2월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을 공취하여 7백여명의 목을 베고 또한 거물성,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고, 덕안성을 공격하여 1천 7십 명의 목을 베었다.”

라고 기록되어 역사적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특히 663년 거열성 함락 이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여러 성이 차례로 신라군에 진압되어 실제적인 백제멸망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거열성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은 매우 크다.²⁾

2) 통일신라 9주의 하나인 거열주(居列州)의 치소성

- 주(州)는 통일신라 군현제(郡縣制)에서 위계상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치소(治所)로 거열성은 문무왕 5년(665)에 세워진 거열주의 치소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무왕 5년 신라는 하주(下州)의 영역을 동서로 나누어 동쪽을 삼량주라 하고 서쪽을 거열주(居列州)라 삼았으며, 이후 신문왕 5년(757)에 거열주를 나누어 완산주와 청주를 뚝으로써 비로소 9주가 완성되었다.
- 거열주의 주성(州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열주성은 기존의 성곽을 치소성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열주의 치소성은 거열주가 설치되기 3년 전에 등장하는 ‘거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663년 신라 장군 흠순과 천존은 백제부흥군이 농성하고 있는 거열성을 함락시키고 700명의 목을 베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가 백제로부터 공취한 거열성을 거열주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³⁾

1) 『삼국사기』 문헌기록을 통해 백제가 신라의 서쪽변경에 해당하는 거창 및 함천지역을 642년에 공격하여 660(663)년 까지 점유했음이 명백함에도 현재까지 이곳 일원의 관방유적, 생활유적, 생산유적 등 다량으로 축적된 발굴조사 자료에서 백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

2) 심정보, 2016,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전문가포럼 회의록」.

이러한 치소성은 삼국시대에는 대부분이 산성에 입지하고 있으며, 치소는 지방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해(公廩) 또는 관아(官衙)라 한다. 치소성은 치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거나, 치소를 설치한 거점성에 해당한다. 9주의 치소성들은 신라의 성곽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성곽에 해당하므로 거열성은 뛰어난 상징성을 지닌다.

3) 산성의 축성시기와 명칭, 위치를 알 수 있는 희소가치

- 거열성은 축성시기와 축성기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창지역 최대 규모 삼국시대 산성에 해당한다. 이 중 2차성은 입지 및 규모, 출토유물, 문헌기록 등을 통해 거열주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 현재 남한지역에 있는 성의 숫자는 2,182개에 달한다. 그 중 축성당시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극소수다. 게다가 축성 연도가 기록되어 있고 위치비정에 이견이 없는 성곽은 더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축성 내용이 기록된 성곽의 숫자는 대략 70개 정도다. 축성기록은 축성시점과 축성목적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축성기록에 부합하는 성곽을 특정하게 되면, 해당 시기 축성법을 파악할 수 있다. 거열성이 문무왕 13년(673)에 축성된 만흥사산성이라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적지정 가치를 충족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가치가 크고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희소성 때문이다.

- 『삼국사기』 권 제7 신라본기 문무왕 13년조에는,
「築國原城古藪長城北兄山城召文城耳山城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達舍郡主岑城居烈州萬興寺山城敵良州骨爭峴城」

“673년 9월에 국원성 옛날의 완장성이다. 북형산성, 소문성, 이산성, 수약주의 주양성 (또는 질암성이라고도 하였다.) 달함군의 주잠성, 거열주(居烈州)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삼량주의 골쟁현성을 쌓았다.”

라고 문무왕 13년에 거열주에 만흥사산성을 축성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산성의 축성시기 및 명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때 거열주의 만흥사산성 축성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은 당나라와의 통일전쟁 대비와 거열주 치소성의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축성사업을 펼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거열성이 1차성에서 2차성으로 대대적인 증축이 이루어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대동지지』 거창군 성지(城地) 조에는,
「城地 乾興山古城 新羅文武王十三年 築居列州萬興寺山城 周三里. 加祚古縣城 稱金貴山城新羅婆娑尼師今王八年七月築加召城周一千五百八十尺泉二. 古城北五里平岡山 周三里. 月谷山城遺址」
“건흥산고성 신라문무왕 13년(673) 거열주 만흥사산성으로 쌓았고 둘레는 3리이다. 下略”

3) 심광주, 2019, 「거창 거열성의 사적지정 가치와 중요성」, 2019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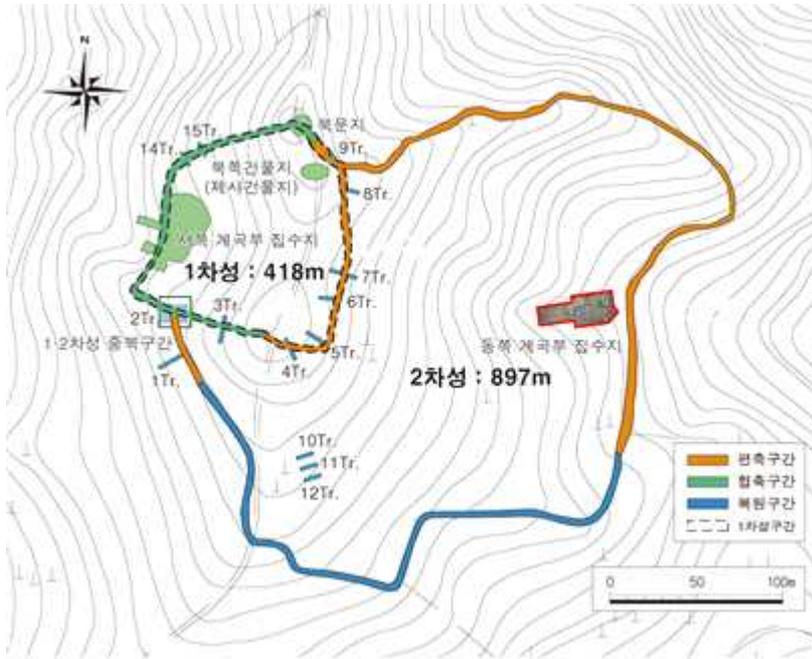
라고 고성의 축조시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견훤산고성이 신라 문무왕 13년에 거열주에 만홍사산성으로 축조되었고, 특히 산성의 둘레가 3리, 즉 1,178m정도 임을 밝히고 있어 현재 거열성의 전체둘레인 약 1,145m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견훤산고성이 만홍사고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거열성으로 알려진 성 위치에 만홍사고성이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 통일신라의 축성기록은 문무왕대와 신문왕대, 성덕왕, 경덕왕, 흥덕왕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중 문무왕대의 축성기록은 대당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중요성을 지닌다. 대당전쟁에 대비하여 쌓은 산성들은 국원성(충주), 주양성(춘천), 주잠성(강원도 고성), 만홍사산성(거창), 골쟁현성(양산) 등이다. 이러한 성곽의 위치는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강유역에서 도성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몇 겹으로 차단하는 위치에 있다. 도성의 직접적인 방어나 도성민의 입보를 위해서는 서형산성과 북형산성을 증축했으며, 이 때 구축되거나 정비된 산성들은 기존의 거점성에 비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비교적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구축되었다. 즉 이시기 축성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대규모 성곽을 쌓아 유사시 주민들이 농성할 수 있는 입보용 성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¹⁾
- 무엇보다도 673년이라는 정확한 축성시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축성은 토목건축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토목건축기술은 지리, 지형, 지질, 물리, 수학, 측량, 기하학, 건축, 토목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축성은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었다. 성곽의 크기는 축성 대상지역의 인구나 전쟁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축성 목적에 따라 성곽의 입지와 분포양상도 달랐다. 기후와 자연환경의 차이도 축성의 유형을 다르게 했다. 축성에 필요한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왔다.

- 이런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축성법은 축성주체와 축성시기에 따라 모두 달랐다. 따라서 축성시기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축성주체와 축성시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의 척도가 될 수 있다.

1) 서영일은 문무왕 12년(672) 8월 石門전투 패배 이후 김유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요해처에서 맞싸우는 입보 농성전으로 전술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서영일, 2009,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제3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25) 그 해에 이미 晝長城이 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나당전쟁이 시작되면서 당군을 방어하기 위한 축성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열성 1차성과 2차성 위치도

4) 신라산성 축성기법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유적

- 거열성은 축성시기와 축성방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축조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거열성은 1차성과 2차성의 축성시점이 다르지만 모두 석축(石築)으로 구축되었다. 1차성은 6세기 중엽, 2차성은 7세기 후엽에 축성되어 100년 정도의 시차를 보인다. 거열성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은 신라 석성의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거열성은 신라 석축산성의 축성법과 관련한 표준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1차성에 2차성을 덧붙여 쌓은 성곽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영월 계축산성, 고양 행주산성, 김포 수안산성, 화성 당성 등이다. 더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성들은 대부분 1차성은 석성이고 2차성은 토성으로 구축되었다. 거열성처럼 시차를 두고 1차성과 2차성이 모두 석성으로 구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라의 석성은 견고하면서도 방어 효율성이 높았다. 신라의 초기석성은 세장방향 편암계 성돌, 높고 견고하게 협축식으로 쌓은 체성벽, 보축성벽, 현문식 성문, 성벽통과식 수구, 반원형치와 성 내의 석축집수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고려할 때 거열성의 1차성은 6세기 중후반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62년 대가야를 공략한 신라는 뒤이어 함양-거창-고령 루트를 확보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성곽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열성에서 확인되는 축성법도 6세기 중엽 신라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거열성의 1차성에서 확인되는 축성법의 특징은 협축식의 성벽과 편암계의 세장방향 성돌, 현문식 성문, 단면 삼각형 보축성벽, 성벽통과식 방향 수구 등을 특징으로 한다. 거열성의 1차성은 삼년산성으로 대표되는 5세기 후반의 성곽에서 100여년이 지난 뒤에 축성되었다. 그 사이에 신라 축성법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삼년산성과 비교할 때 외벽의 높이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보축성벽도 높이가 낮아지고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는 양상으로 바뀐다. 반원형 치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협축식의 체성벽과 현문식 성문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 통일 전쟁은 신라의 축성법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대당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고구려와 백제, 가야의 축성기술이 신라의 축성기술과 융합되었다. 토목건축 기술의 발달도 축성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통일신라 축성법의 핵심은 축성에 사용되는 석재의 변화다. 그 동안은 가공하기 쉬운 변성암이나 퇴적암이 성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공 도구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화성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화성암 석재가 화강암이다. 화강암은 매우 단단한 경암이다. 압축강도와 전단강도가 높고 정교한 가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강암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였으므로 최적의 축성 재료라 할 수 있다. 성덕왕 21년(722) 관문성 축성기록은 통일신라에 화강암 가공 성돌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거열성 1차성의 현문식 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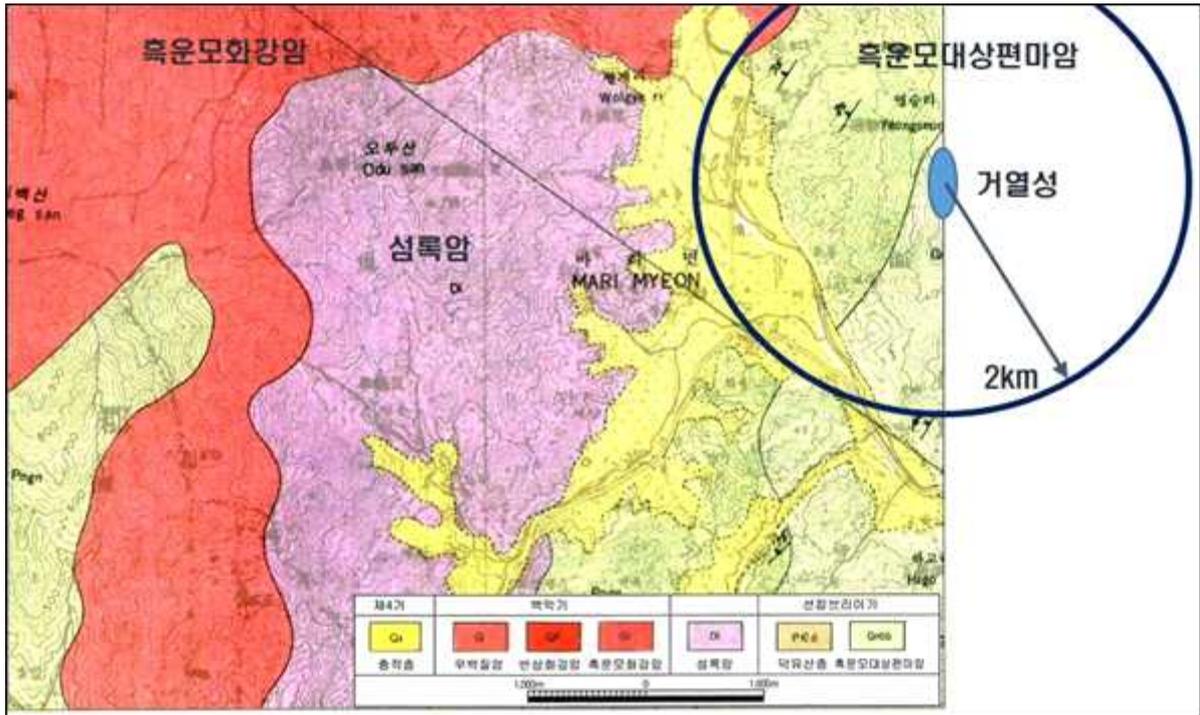
거열성 1차성의 보축성벽



거열성 1차성의 성벽 통과식 수구와 집수지

거열성 인근의 기반암은 흑운모편마암이다.1) 1차성 축성 성돌의 대부분은 이 흑

운모 편마암으로 축성되었다. 따라서 1차성 성들은 거열성 주변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성 축성에 사용된 화강암은 인접지역에서 구할 수 없다. 거열성에서 최소한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2차성에 사용된 화강암 성들은 원거리에서 성돌을 운반해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열성 인근의 지질도



축성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열성 1차성벽(좌), 2차성벽(우)

1) 거창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거창 거열성-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시굴조사』, p.15.



지대석, 퇴물림쌓기, 가공성돌, 편축쌓기가 확인되는 2차성(좌)과 집수지 외벽(우)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축성법 비교>

구 분	1차성	2차성
규 모	418m	1,115m(897m)
축성시기	6세기 중후반	673년(만홍사 산성)
성 돌	흑운모편마암, 세장방형	화강암, 장방형
축 성 법	협축, 바른층 쌓기, 현문식성문	편축, 지대석, 퇴물림쌓기
기 능	거창지역 거점성	거열주의 치소성→거열군의 치소성

- 또 다른 중요한 축성법의 변화는 대형의 지대석 사용이다. 지대석은 성벽의 기초를 강화하고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킨다.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들여쌓기 방식으로 쌓아 삼국시대의 성곽에 비해 성벽의 경사가 완만해졌다. 보축성벽도 점차 사라졌다.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협축식성벽 대신 편축식성벽이 일반화되었다. 내부를 성토하고 외벽만 석축으로 성벽을 쌓는 방식은 고구려 축성법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출입이 불편했던 현문식 성문 대신 개거식 성문이 구축되었다. 기존의 현문은 성문높이 까지 등성시설을 만들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거열성 2차성은 편축식 성벽, 대형의 지대석, 화강암 가공성돌, 퇴물림쌓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체성벽의 높이도 1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 편축식으로 구축되어 내벽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내벽 상단을 따라가며 내환도가 조성되어 있다. 집수지 외벽에서는 보축성벽도 여전히 확인된다.

5) 계곡부 집수지 축조공정 및 변천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유적

- 거열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시기를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의 계곡부 집수시설이 모두 확인된 매우 희소한 사례에 해당하여, 성곽연구사적으로도 의미가 높다. 일반적으로 계곡부 집수지는 퇴적이 용이한 곡부 경사면에 입지하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수압 및 토압에 의해 파괴되기 쉬워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다. 거열성은 1차성에서 2기, 2차성에서 1기의 집수지가 확인되어 집수지의 축조공정 및 축조공법의 변천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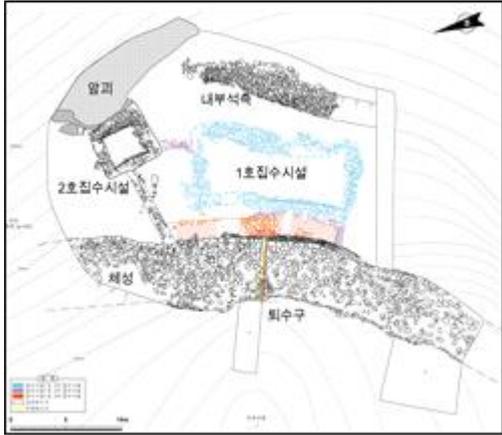


거열성 1차성-계곡부 집수시설

거열성 2차성-계곡부 집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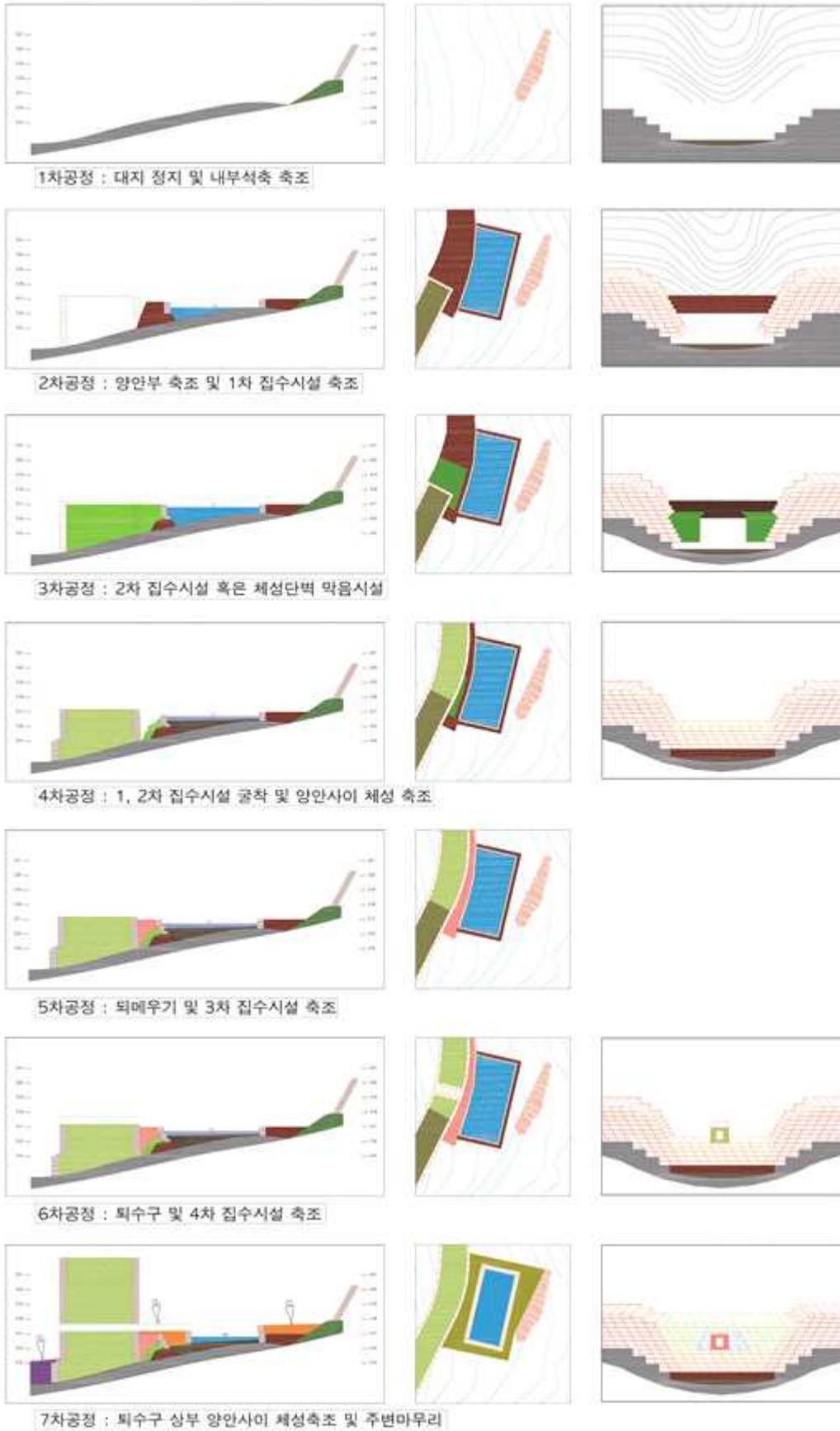
- 대규모 산성에서는 생활을 위해서 대량의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성 내 대량의 용수를 쉽게 확보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계곡부이다. 산성에서 집수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곡부를 포함하게 될 때에는 사면 내지 능선에 쌓는 체성과 달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거열성 계곡부 체성과 집수시설을 통해, 계곡부 체성의 축조방법·축조공정상의 특징·횡압력의 감소 방안·퇴수구의 단면적·위치·용도 등 고대 토목 기술의 원형을 규명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조사성과에 따르면 1차성 서쪽 계곡부 체성 및 집수지의 축조순서는 다음과 같이 7차 공정으로 대별되어, 이를 통해 고대 산성의 집수시설 축조방법을 복원할 수 있다. 소요자재의 채취장소와 운반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성곽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축조공정은 다음과 같다(우리문화연구원 2011 인용).
 - ① 1차공정 : 대지와 내부석축 축조. 대지정지는 기반토 혹은 암반이 나오도록 절토한 다음 유기물이 많은 실트질사로 성토하여 체성의 면석을 쌓음. 성기(城基) 조성단계에 해당. 내부석축은 집수시설이 축조될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
 - ② 2·3차공정 : 2차 공정은 양안부의 체성축조와 1차 집수시설의 축조. 대지 정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체성의 면석을 축조. 면석은 계곡부 양안부터 시작하여 축조하고 이와 동시에 계곡부를 가로질러 막은 1차 집수시설을 설치.
3차 공정은 체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부분에 기저부와 체성을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막음 시설 또는 2차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설치.
 - ③ 4차공정 : 1차 집수시설과 2차 집수시설을 절토하여 양안사이 퇴수구 하부 체성을 축조하는 공정. 체성이 완성되고 성내부의 물자, 장비 등의 반입과 반출이 완료되면 계곡부 양안사이에 체성을 축조. 이때 먼저 축조되어 있는 1·2차 집수시설의 체체를 굴착하여 쌓는데, 그 높이는 퇴수구 하부 높이까지만 쌓음. 이때 단면상에서 체성하부가 튀어 나와 궁형

(弓形)으로 쌓음. 그 다음 퇴수구 하부에만 흙과 돌을 교대로 쌓고 상부는 박석으로 마감하는 공정이 추가. 체성외벽은 성근부와 면석 하단까지 점성이 많은 흙으로 피복하여 체성의 하부가 유수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음.



거열성 1차성-계곡부 집수시설, 체성 유구배치도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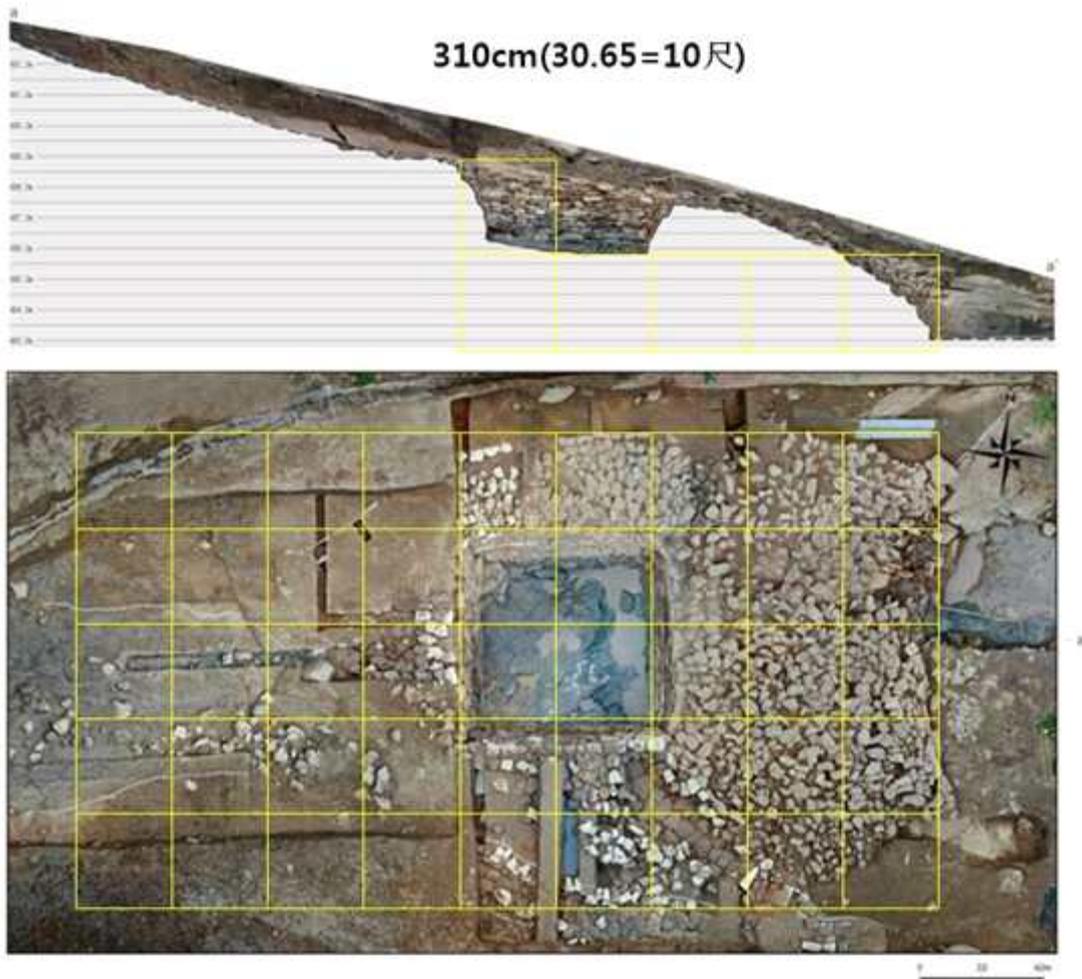
- ④ 5차공정 : 퇴수구 하부 체성축조가 완료되면 굴착공간을 되메우기 하면서 3차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정. 여러 번의 물막이시설의 축조를 통해, 직접 물을 가두어 저수량, 저수지의 규모, 여수구의 위치를 예측 - 수평 측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고대토목기술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음.
- ⑤ 6차공정 : 퇴수구 설치, 도수로, 최종 집수지 설치. 퇴수구의 높이와 면적이 정해지면 퇴수구를 축조. 이때 퇴수구의 높이는 3차 집수시설을 통해 예측된 저수시설의 저수량을 토대로 그 한계를 초과한 물이 쉽게 흐를 수 있도록 계획. 또한 4차 집수시설을 축조하여 성내의 물과 토사가 계획대로 잘 모이도록 완성. 물막이시설은 단순한 물막이시설이 아니라 최종 저수시설 이전에 설치하여 저수량, 저수지의 규모, 계획 홍수위 등을 예측하여 여수량과 여수구의 높이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설정.
- ⑥ 7차공정 : 마무리 공정으로 퇴수구 상부 체성의 완성 및 주변의 마감. 퇴수구와 4차 집수시설의 배수에 문제가 없다면 체성 상부의 체성을 축조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축조순서는 상면 체성은 지상에서 축조하여 수직으로 쌓음.



거열성 1차성-계곡부 체성 및 1호 집수시설 축조 모식도

- 거열성 2차성의 집수지는 1차성 집수지가 조성된 서쪽 계곡부의 맞은편인 동쪽 계곡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1기의 집수지와 대규모의 축대시설, 배수시설, 출입 및 수거시설 등 부속시설물이 확인되었다. 2차성 집수지는 1차성 집수지와 평면 형태, 규모, 구조, 축조기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라성곽의 집수시설 변천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여수로(餘數路)는 집수지 내 수위가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물을 외곽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사면 아래의 축대로 물이 넘쳐흘러 구조물의 유실 및 붕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오늘날 저수지의 여수로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러한 여수로는 현재까지 성곽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아 수리사(水利史) 연구에 있어서 중요 자료에 해당하며, 또한 집수지 조성에 10척으로 환산할 수 있는 310cm 단위의 영조척(營造尺)이 확인되고 있어 고대토목공법과 체계적인 집수지의 축조계획 및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유적이다.
-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열성 2차성 집수지의 축조는 크게 5차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경남연구원 2019 인용).
 - ① 1차공정 : 기반암의 정지. 집수지가 조성된 계곡부는 지질적으로 섬록암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조성을 위한 기반암 상부의 퇴적토 제거, 암반 정지 및 굴착을 통한 호안석축의 내부공간 확보 순으로 축조가 이루어짐.
 - ② 2차공정 : 동쪽 경사면에 대규모 축대조성, 2차성 집수지는 가파른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오늘날 저수지 및 댐과 같은 축조공정을 보임. 호안석축 동쪽은 경사면 아래에 위치하여, 경사면 상부와 함께 토압 및 수압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 해당함. 따라서 동쪽에는 높이 약 5m, 길이 약 8m, 너비 약 15m의 대규모 축대를 조성하여 놓음. 대규모의 축대는 경사면에 가해지는 토압 및 수압에 의한 횡압력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나, 높이 약 5m 규모의 석재 무게로 인해 강한 수직하중을 동시에 받음. 따라서 축대조성에는 횡압력 및 수직하중을 분산 및 보강하기 위한 지대석의 설치, 외벽보축, 퇴물림쌓기 등의 토목공법이 확인 됨.
 - ③ 3차공정 : 본격적인 집수지 호안석축의 조성. 호안석축은 평면형태 방형으로 상단부 너비 약 720cm, 하단부 너비 약 530cm, 최대 높이 약 270cm. 상단부에 비해 하단부의 폭이 작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형태. 정지된 자연암괴를 제외하면 뚜렷한 굴광선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동쪽은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지된 기반암 상부에 축대와 함께 벽석을 지상식으로 쌓아올림.
 - ④ 4차공정 : 여수로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배수시설의 축조는 호안석축의 벽석, 축대, 진입시설의 축조와 밀접한 관련되며, 집수지의 전체조성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호안석축은 벽석을 층단식으로 조금씩 들여 쌓아 단면형태 사선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벽석을 2회에 걸쳐 약 10~15cm 정도로 들여쌓아 약하게 단을 조성하며 축조. 들여쌓기로 인해 단이 형성된 지점은 입수구의 바닥면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약 487.5m 지점과 입수구 상단부 덮개돌이 놓이는 해발고도 약 488.2m 지점임. 이러한 들여쌓기는 벽석에 가해지는 횡압력의 분산과 벽석자체의 수직하중을 분산시켜 배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거열성 2차성-집수지의 평면 및 입단면도 - 영조척 규격(□ : 10尺 단위)

- ⑤ 5차공정 : 수거시설 및 진입시설의 조성, 수거 및 진입시설은 집수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계곡부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오수 및 토사가 호안석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입시설의 기능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 파악됨. 집수지 상부의 또 다른 추정 집수지의 배수로일 가능성 있음.
- 이같이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지는 1차성과 2차성 체성부의 축성기법 변화에서 간취되는 축성기법의 변화만큼 커다란 변천과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계곡부 집수시설 자료가 온전하게 확인된 점에서 신라성곽의 집수지 축조 변천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핵심유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 시설 변천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지 비교>

구분	1차성(1호 집수시설)	2차성
규모	13.6×4.95×1.5m	상단(7.2×7.2m)×하단(5.3m)×2.7m
형태	평면형태 장방형 / 단면형태 직선형	평면형태 방형 / 단면형태 제형
축조시기	6세기 중반	7c후엽~8c전엽
성들	흑운모편마암, 세장방형	화강암, 장방형
축조기법	협축, 바른층 쌓기, 체성부와 집수시설 동시 축조	편축, 지대석, 퇴물림쌓기, 대규모 축대시설
수구	성벽관통식	여수로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거창지역에는 현재 21개소에 이르는 성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과거 삼국시대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을 잘 반증하고 있다. 거창은 신라와 백제가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 교통로에 해당하며, 이중 거열성은 입지 및 규모를 볼 때 거창군을 대표하는 산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헌기록상에서 백제부흥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이후 증축된 2차성이 만홍사산성이란 명칭 및 축성시기 등 그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거열성은 보존 가치 및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에 해당한다. 특히 건흥산 정상부에 조성된 거열성은 나당전쟁과 및 거열주의 치소성과의 관련성을 통해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라 할 수 있다.

1) 신라 9주의 하나인 거열주(居列州)의 치소성

- 9주의 치소성들은 신라의 성곽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성곽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사적 관련 사항의 나 항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이다. 거열성은 거열주의 치소성으로 이 항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다.
- 모든 성곽은 축성당시부터 위계가 있었다. 거점성들은 치소성을 겸했으며, 군현제가 정비된 이후 주-군-현의 위계를 따라 규모와 중요도를 달리했다. 거열성은 거열주의 치소성이었다. 이는 위계상 신라 성곽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열성은 사적지정기준 나 항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삼국통일 및 나당전쟁 대비를 위한 역사의 현장

- 기록에 의하면 거열성은 663년 신라의 흠순과 천존이 백제로부터 공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시적으로 백제의 영역에 속했던 거열성을 신라가 되찾게 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665년 거열주를 설치하고 673년 만홍사산성을 축성한 기록도 남

아있다. 이는 사적지정기준 다항목의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역사기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소수의 성곽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가치 및 당위성을 지닌다.

이와 함께 거열성은 당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백제부흥운동군에 의해 끊었던 함양-거창-고령 루트를 신라가 보완·방어하기 위한 거점지로서 중요성을 지니며,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 및 신라의 방어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3) 삼국~통일신라시대 사회문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유적

- 거열성은 축성시기를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성과 2차성의 축성법은 현저하게 다르다. 축성법에는 당대의 토목건축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적인 배경과 출토유물을 근거로 할 때 1차성과 2차성의 축성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거열성은 신라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표준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성곽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은 계곡부 집수시설이 1차성과 2차성에서 모두 확인되어, 성곽 연구사 및 수리사 연구를 위한 핵심유적에 해당한다. 거열성의 1차성과 2차성에서 확인된 집수시설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축조수법으로 1차성에서 성기와 성근의 조성, 체성축조, 집수시설 축조, 외벽 하부 및 기저부 피복 마감, 2차성에서의 여수로의 설치, 대규모 축대시설, 영조척의 사용 등 토목 및 건축기술이 확인되어 고대 토목 및 건축기술의 원형 규명 및 복원, 변천과정 규명을 위한 최적의 유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차성 집수시설에서는 6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하는 토기유물이 출토되었으며, 2차성 집수시설의 여수로에서 7세기 후엽~8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되어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지는 각 시기별 신라 석축산성의 축성기술과 계곡부 축조기법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 유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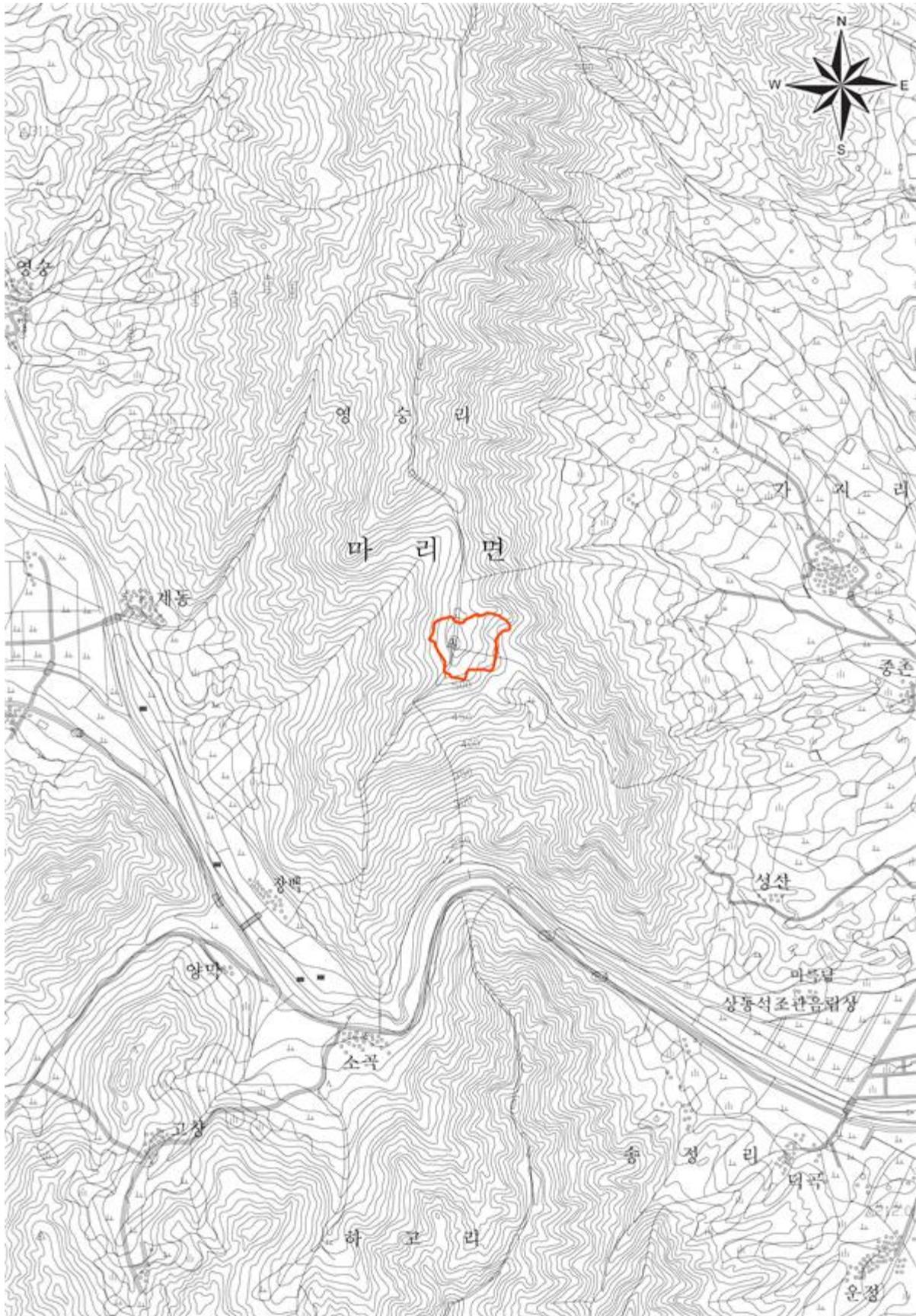
- 거열성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사적지정기준의 가항목인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을 충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거열성을 신라의 흠순과 천존이 공취했다는 구체적인 인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사적지정 기준 다항목의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성곽 중에서 이처럼 사적 지정기준으로 제시된 4가지 항목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곽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열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축성당시의 명칭도 그대로 살아있고, 축성기록도 남아있는 극소수의 성곽이므로 희소성에 의한 가치도 뛰어나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 신청면적 : 11필지 68,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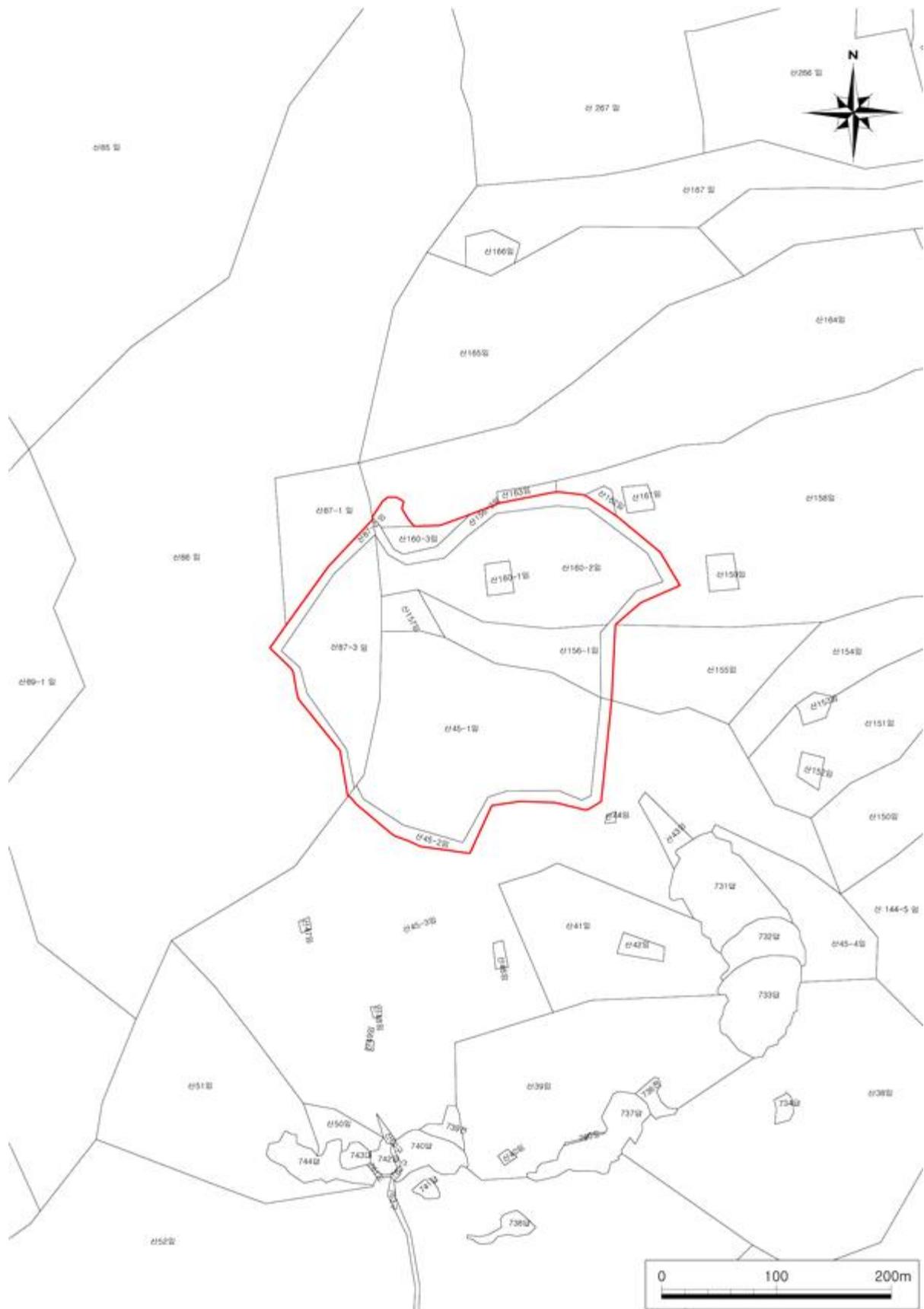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1필지		122,281㎡	68,746㎡		
1	거창읍 상림리	산45-1	임	24,397㎡	24,397㎡		
2		산45-2	임	4,364㎡	4,364㎡		
3	거창읍 가지리	산156-1	임	6,645㎡	6,645㎡		
4		156-2	임	1,884㎡	1,884㎡		
5		157	임	1,785㎡	1,785㎡		
6		160-1	임	694㎡	694㎡		
7		160-2	임	15,967㎡	15,967㎡		
8		160-3	임	1,190㎡	1,190㎡		
9		164	임	54,149㎡	614㎡		
10	마리면	산87-2	임	1,884㎡	1,884㎡		
11	명승리	산87-3	임	9,322㎡	9,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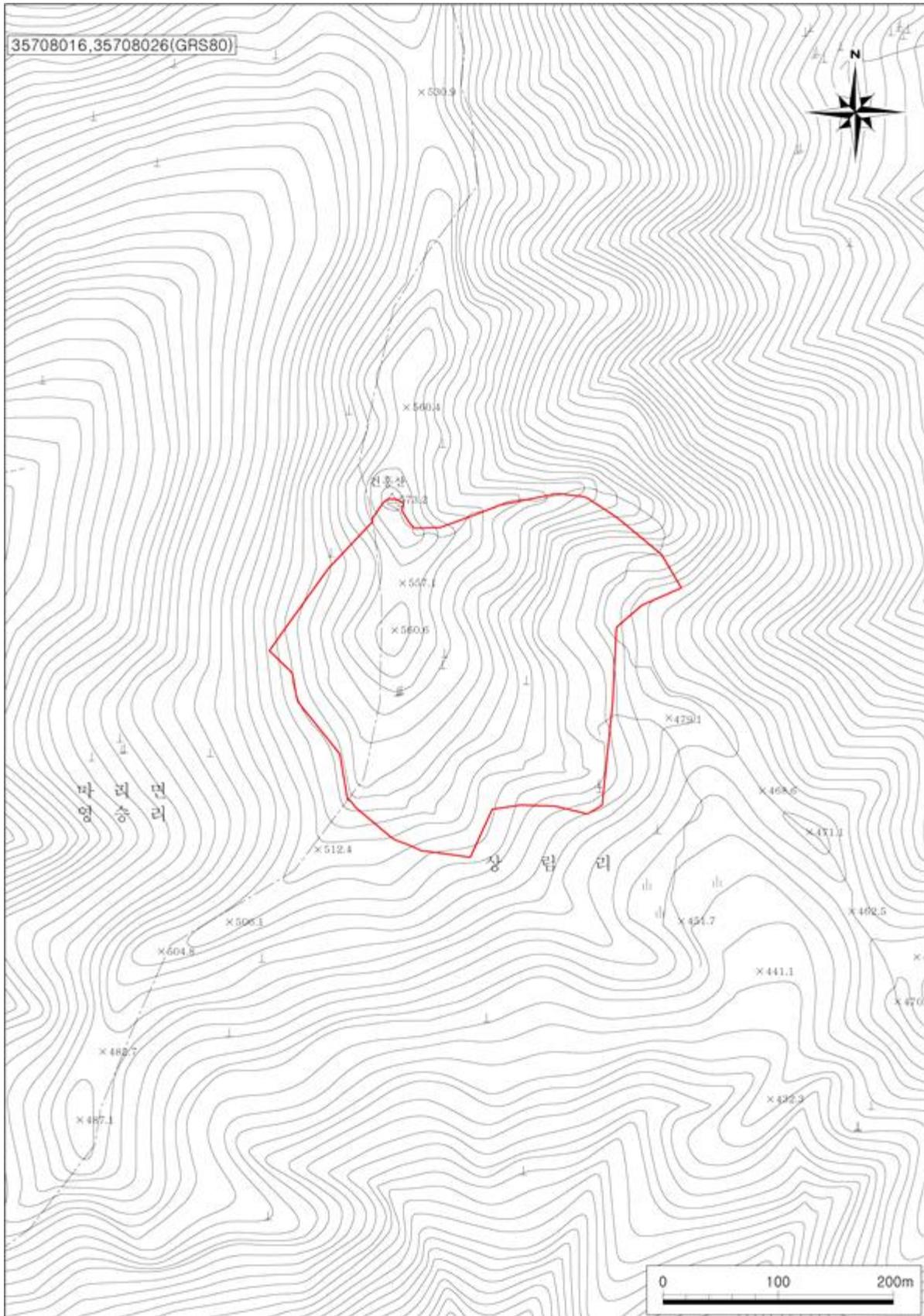
거열성의 위치 및 국가사적지정 범위(1/25,000)



거열성의 위치 - 위성사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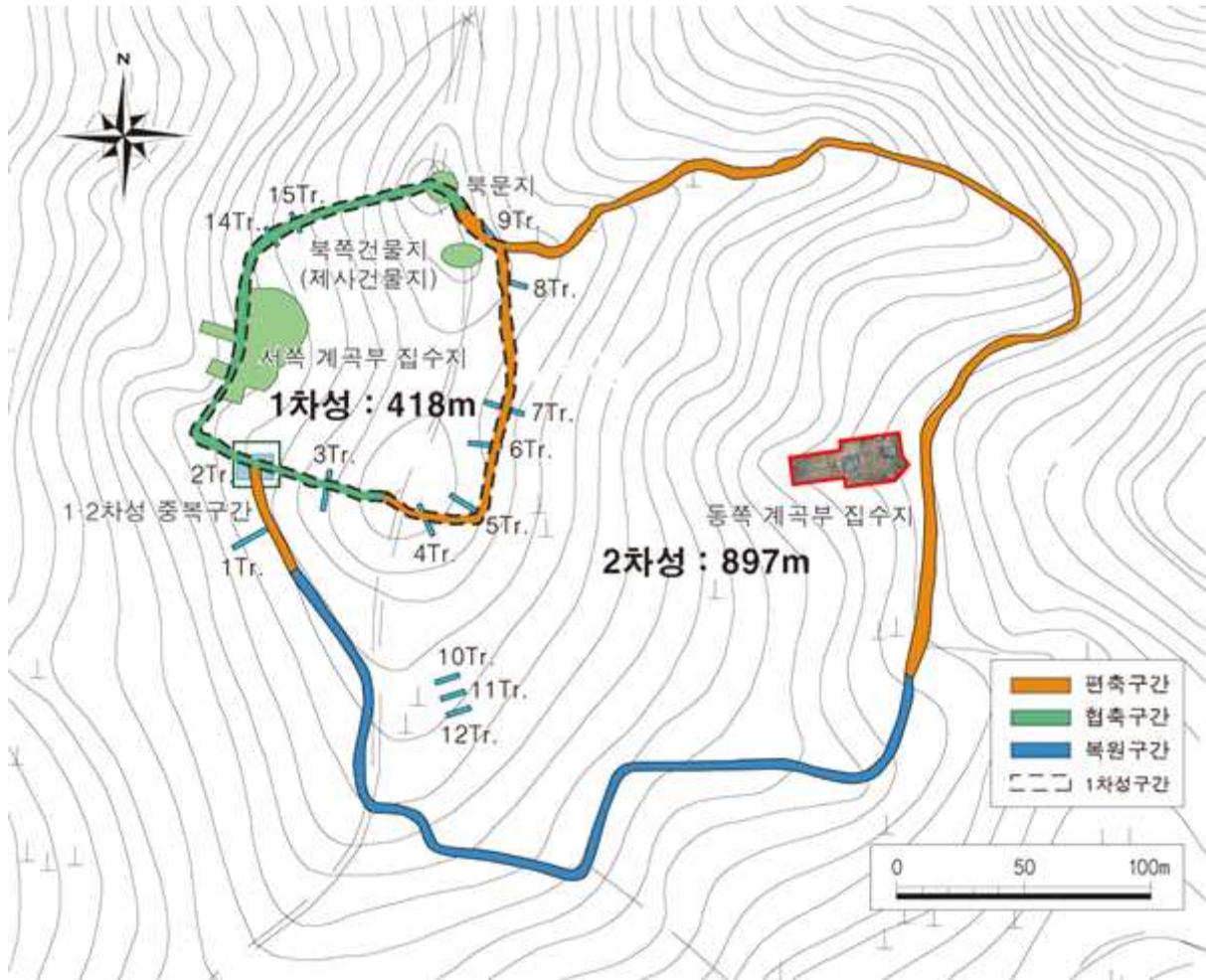
거열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지적도(1/5,000)



거열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지형도(1/5,000)



거열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위성사진(1/5,000)



거열성 1차성과 2차성 위치도



거열성 전경(남동-북서)



서쪽 계곡부 1 · 2호 집수시설 및 체성 전경



서쪽 협축구간 체성(1 · 3: 계곡부 좌안 체성 전경 및 세부,
2 · 4: 계곡부 우안 체성 전경 및 세부)



서쪽계곡부 체성(1: 내벽 전경, 2: 외벽 전경, 3 · 4: 전체 전경, 5: 입수구 전경, 6: 퇴수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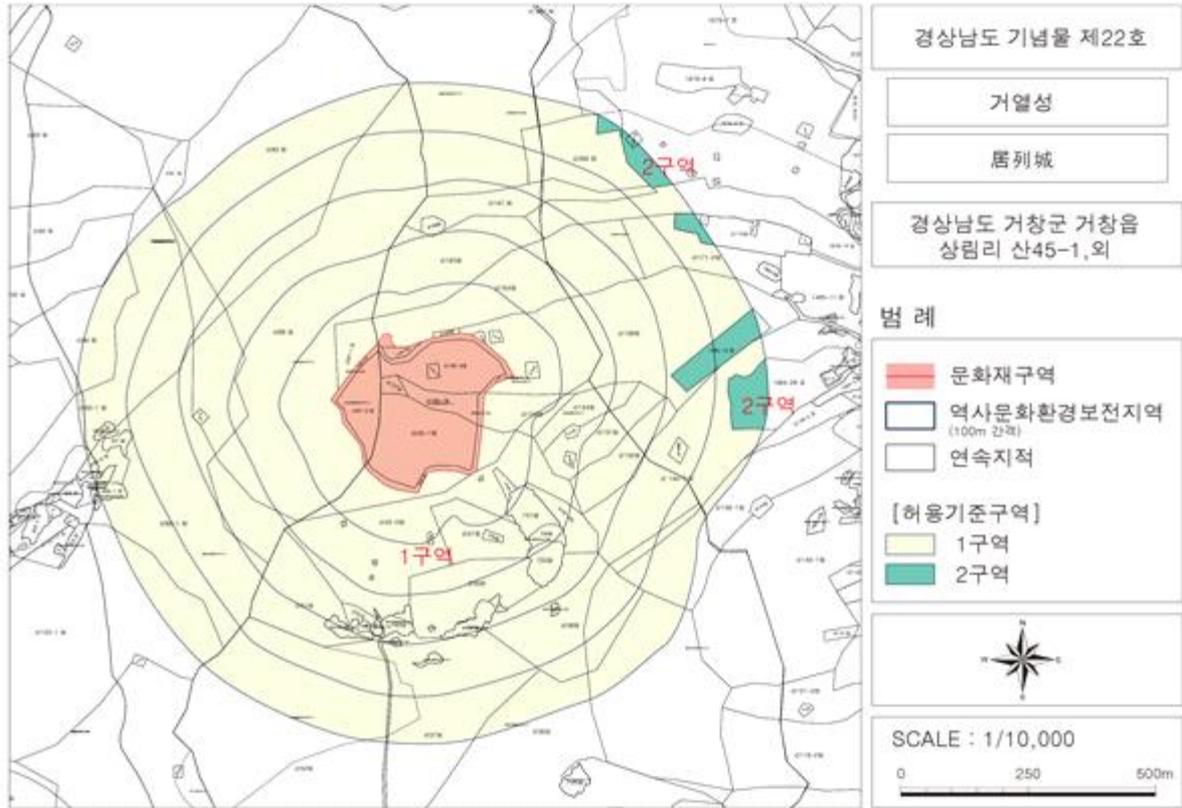
남쪽 편축구간 체성 복원전 전경1(1997년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남쪽 편축구간 체성 1999년 정비복원 후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토지소유, 도시계획,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음.



구분	범례	허용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보존정비 및 활용계획

1) 기문화재 보존정비 및 향후 보존정비

(1) 거열산성군립공원 지정,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

- 거열성은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 22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1983년 11월 23일 건흥산 일원이 거열산성군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열성이 조성된 건흥산 일원은 거창읍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차장 및 등산로·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거창군민 및 등산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거열성으로 등정하는 등산로에는 거열성의 일원의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약수터와 이와 연계된 체력 단련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거열성은 체계적으로 조성된 등산로·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통해 조석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거창군의 대표적인 자연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백제부흥운동 및 대당(對唐)전쟁을 대비한 역사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거열성 등산로 정비 현황 및 편의시설 전경

(2) 정밀지표조사 실시

- 거열성은 『삼국사기』 등의 문헌기록에서 그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경상남도기념물 제 22호 ‘거열성’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축조기법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거열성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앞서 주)엠티건축사무소에 정밀지표조사를 의뢰하여 1997년 8월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거열성 정비 및 복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거열성의 현황에 대한 최초의 자료인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3) 남쪽 및 서쪽 체성 구간 복원정비 사업

- 남쪽 편측구간의 체성은 거열성 체성 중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으로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원 정비가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2월 30일 남벽에 대한 1차 정비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5일까지 남벽 2차 복원공사가 진행되어 총 384m에 해당하는 체성이 정비 복원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거열성 서벽 55m에 대한 복원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4)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와 자문위원회 개최

- 거열성의 남벽 및 서벽에 대한 복원 정비 사업 후, 보다 정확한 거열성의 복원을 위해 구체적인 축성방법·축성시기·축성주체 등 거열성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시굴조사가 2004년 11월 23일~2005년 2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정밀시굴조사의 자문위원회는 2005년 2월 실시되었으며, 정밀시굴조사 결과와 조사에 따른 향후 거열성의 복원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었다. 자문위원으로는 ○○○(○○대학교교수), ○○○(○○대학교교수), ○○○(○○박물관), ○○○(○○대학교교수), ○○○(○○대학교교수), ○○○ ○○○박물관장이 참여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한 자문위원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향후 거열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복원에 앞서 시굴과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재 남은 체성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체성의 복원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복원 시엔 산성 전문가를 감리에 포함시켜 보다 정확한 복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거열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 거열성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기 위해 거창읍 상림리에서 대평리에 이르는 4.5km 구간(본선 4차로)에 대한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가야 문화권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 정비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동서연계 가야문화 관광도로’에 해당한다. 사업의 실시에 앞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며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져 거창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등산객이 찾는 거열성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거열성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 자문회의 개최 전경

2) 향후 보존정비 계획(안)

(1)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복원작업

- 현재 거열성은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의한 보존관리 행위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방문객들에게 거열성의 기본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무너진 체성부분에 대한 복원작업을 일부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복원작업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지 않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성급히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다. 한번 복원작업이 이루어지면 향후 산성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산성의 복원작업은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
- 거열성의 보존·관리와 역사교육적·관광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체성부분이나 성내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구에 대한 복원작업이 일부 필요로하나, 이 작업에는 철저한 조사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거열성의 전 구역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산성의 정확한 범위·세부구조·체성의 중복현황·잔존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특히, 산성 체성에 대한 3D 스캔 기록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기록의 상세 디지털화와 향후 복원계획 수립의 용이성을 같이 도모함이 필요하다.
- 이러한 구체적인 현황과약을 토대로 거열산성에 대한 보존·관리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 훼손이 심하거나 교육적 활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한 부분에 대한 복원작업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관광산업 차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성급하고 과도한 복원작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2) 거열성의 정비

- 현재 거열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현재 산성은 거열산성군립공원 내에 있어 무분별한 주변 개발 행위나 대규모 유적 파괴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적으나, 산성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행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산성내 잔존유구나 체성주변에 대한 주기적인 수목제거와 관리행위를 통해 수목이 초래할 수 있는 산성 체성부분이나 성내 유구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산성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획과 보호범위를 설정하여 산성의 추가적인 훼손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거열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군립공원지역으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자주 내왕하면서 이들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성 범위 내에 건흥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체성주변으로도 많은 등산로가 등산객에 의해 무분별하게 나 있는 상태이다. 일부 등산로는 무너진 체성 부분에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 지속적인 체성 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성 주위로 무분별하게 나 있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체성 유구와 성내 잔존 유구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을 막아야 한다. 체성 복원구간이나 체성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탐방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외의 등산로는 폐쇄하여 체성이나 잔존 유구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거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거열성 내에는 거열성의 연혁 및 위치를 알리는 문화재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다. 문화재 안내판은 유적 전체를 소개하는 종합안내판과 권역을 소개하는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 안내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의 안내판은 거열성의 연혁을 나타내는 종합안내판과 길찾기 안내판이 주를 이루고, 자연경관 및 문화재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안내판의 형태 및 크기가 일관성을 지니지 않는 점이 있다. 앞으로는 유적의 현황,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구현황(체성·집수시설·문지·건물지) 및 그 의의·역사적 사건 및 문헌기록·관련설화(선화공주)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거열성 내 적재적소에 이를 배치하여 거열성에 대한 등산객 및 방문객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관람객의 연령·지식수준을 감안하여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판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한산성 및 정양산성 안내판 설치 사례

- 즉 안내문안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여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며, 관람자의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의 가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안과는 별도로 거열성 전체 구간 및 건물의 배치·성벽의 입체지도 등을 삽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내판의 소재는 성곽유적인 거열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¹⁾

(3) 토지매입

- 국가사적 지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대상 유적지의 토지매입이다. 거열성이 조성된 건흥산 일원은 거열산성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열산성군립공원은 산 및 임야로 구성되어 주변에 주택 및 기타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낮다. 이중 거열성 문화재구역의 토지 현황은 총 11필지로 경상남도기념물 지정범위는 68,746㎡이다. 특히 거열성이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면서, 거열성의 체성 전체부분에 해당하는 8,132㎡은 국가가 매입 완료한 상태이다.
- 이와 같이 현재 산성의 체성구역은 거창군이 매입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성안구역의 경우 사유지로 남아 있어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 수립과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산성의 역사교육적 차원이나 관광차원의 활용에도 일부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성구역 내 미 편입사유지에 대한 지자체나 국가차원의 점차적 매입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활용계획 수립과 실행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1) 문화재청, 2008,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연계를 통해 산성 관련 비교연구의 대상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다.

- 또한, 백제부흥운동과 대당항쟁의 현장으로의 거열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의식과 자주의식 고양을 위한 정신 교육차원의 활용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교육프로그램의 한 교육장소로 거열산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동기 유발이 가능한 병영 체험 및 전쟁 체험장의 개설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산성과 병영은 군사시설로서 현대 군인이 옛 선인의 병법 등과 같은 지혜를 배우고 체험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2) 관광 및 콘텐츠 산업적 활용

- 거열성은 군립공원 안에 있어 현재도 등산객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지만 향후 거열성에 대한 관광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먼저, 거열성의 관광차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문객 편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산성유적의 경관보호와 원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산성 정비작업과 병행하여 간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거열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담당하여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은 상시 또는 예약제로 가능하며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유적 해설자료의 마련·배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자원화 작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함께, 거열산성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유적의 보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거열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의 체계적인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거열산성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며, 특히 거창군이 산성으로 유명한 것을 활용하여 거열산성과 주변 산성을 연계 탐방하는 산성 투어 프로그램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함도 가능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근의 많은 산성중에서 연계 가능한 대상지 선정과 연결로 조성방안 등 주변 산성과의 연계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인근 산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편, 거열성이 위치하는 마리면 영승마을에는 신라 선화공주에 얽힌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 전승돼 오는 선화공주 설화는 기존에 잘 알려진 『삼국유사』의 내용인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후일 백제 무왕이 되는 서동과 ‘서동요’를 통해 만나 함께 백제로 넘어가 왕비가 됐다고 하는 것과 달리, 단신으로 백제와 신라 국경선인 취우령을 넘으려다가 경비 군사의 검문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첩자로 오인돼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다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승 설화 또한 백제와 신라에 있어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영승마을에서는 이 마을에 구전돼 오는 선화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그 넋을 달래

기 위해 매년 아홉산 선화공주 취우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취우령제는 비운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의 원혼을 달래려는 취지로 열리기 시작했으며, 특히 가뭄이 심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취우령제를 기우제로 지내는데 제사가 끝나면 선화공주의 넋이 그 눈물을 비로 뿌려 내렸다고 한다. 취우령제는 기우제 형식의 전통 제사를 비롯해 선화공주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공연, 그리고 마리풍물패의 풍물놀이 등이 진행되며 마을사람들과 방문객들이 한데 어울려 정담과 음식을 나누는 잔치도 흥겹게 펼쳐진다.

- 이 취우령제와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의 설화나,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등을 콘텐츠화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이 많다. 한 예로, 경북의 안동에서는 하회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하회탈의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한 허도령과 김씨 처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부용지애’ 뮤지컬을 제작하였으며, 퇴계이황과 단양 태생의 관기 두향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스토리텔링 역사극 ‘퇴계연가’를 창작하여 퇴계종택에서 매년 현장 공연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전해져 오는 설화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스토리텔링화하고 지역 특화콘텐츠로 개발한 좋은 사례이다.



선화공주 취우령제 전경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전경¹⁾

- 거창군에서도 이 선화공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실경뮤지컬로 제작하여 영송마을이나 거열산성군립공원에서 공연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로 상품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우령제를 지역 특화 콘텐츠로 상품화하여 점차적으로 축제의 규모와 내용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거창지역 전체의 이벤트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특히, 문헌기록을 통해 거열성이 3년간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된 역사의 현장이자, 백제부흥운동군 700명이 신라군에 대항하다 순국한 장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3년의 기록, 즉 663년 거창 거열성과 더불어 전북 남원으로 비정되는 거물성, 전북 장수군으로 비정되는 덕안성, 전남 구례군으로 비정되는 사평성의 백제부흥운동군이 모두 신라군에 의해 진압된 사실이 확인된다. 문헌기록을 통해 거열성이 함락된 시기가 음력 2월임을 명확하게 확인

1) 출처 : 함양군 홈페이지 <함양이야기>

할 수 있어, 이시기를 즈음하여 거열성 백제부흥운동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를 기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모제를 통해 순국선열의 넋과 거열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거열성과 함께 백제부흥운동군이 전개된 남원시·장수군·구례군의 관계자가 추모제에 함께 참여한다면 영호남 화합의 장으로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인근 지역인 함양군의 경우 사근산성 순국선열추모위원회를 조직하고, 사근산성에서 왜구에게 전사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를 매해 개최함으로써 선열들의 원혼을 달래고 사근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함께, 함양군을 선비의 고장임과 더불어 애국충절의 고장으로 인식을 재고시키고 있는 점을 참조 해 볼 수 있다.

9. 종합의견

- 거창 거열성은 신라 9주의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고대산성으로,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거창 거열성은 그간 1997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4차례의 시발굴조사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그 역사적 성격이 대체로 밝혀졌다고 보여진다.
- 1호 집수지의 출토유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축은 신라에 의해 6세기경에 축조되어 일시적으로 백제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신라에 의해 경영된 산성으로, 특히 이 산성은 <삼국사기> 문무왕 13년(673) 기록에 나타나는 ‘거열주 만홍사산성’으로 비정되는 바, 이 시기는 신라가 당나라에 대항하여 기존 성곽을 대폭 증축하거나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는 시기로, 거열성이 드물게 <삼국사기> 기록과 부합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나당전쟁시기 거열성 2차 성벽을 축조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축성법 연구에서 시기적 기준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2차 성벽 안에 축조한 집수지는 급경사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력담과 유사한 집수지 보호 석축시설을 시공하였는 바, 이는 다른 성곽유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공법의 집수지이다.
- 거열성은 1990년대 후반 외성의 남벽이 고증 없이 복원되면서 원형의 일부분이 변형되었으나 유적의 학술 성과와 신라의 축성 기술의 변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경주 금척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금척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사적 제43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번지
- (3) 신청내용
 - 지정신청 범위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226 외
 - 현재 : 문화재구역 146,243㎡
 - 변경 : 보호구역 41,602㎡ 추가

구분	면적(㎡)	필지수	비고
기존	146,243	186	문화재구역
추가	41,602	77	보호구역
합계	187,845	263	

- (4) 관리단체(안) : 경주시

(5) 신청사유

- 금척리 고분군 주변으로 현 지정구역보다 더 넓게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고, 주변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로 인해 유구 훼손의 우려가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남동측 부지와 남서측 부지 일부는 제외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13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金尺里 古墳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5.11(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金尺里 古墳群)의 연접구역을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金尺里 古墳群)의 연접구역으로 지정구역과 연접하고 완충구역의 성격을 띠어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金尺里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금척리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북 경주시 건천읍 261번지 일원에 해당된다. 경주시내의 대릉원 일원 고분군과 함께 평지에 조성된 적석목곽분으로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역사문화유산으로 큰 가치를 지닌 곳이다. 고분군 주변으로 남서쪽에 모량리 도시유적, 모량리 고분군, 서쪽에 방내리 고분군이 위치하며, 외곽으로는 부산성, 작성 등 관방유적이 포진하고 있다. 금척리의 지명은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 그에게 금자를 주었는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 손에 금자가 쥐어져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꿈에서 가르쳐준 신인의 말대로 죽은 사람을 금자로 재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나으므로 소중하게 여겨 나라의 보물로 여겼다. 당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금자를 보여달라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38기의 무덤을 만들어 금자를 감추었다. 그 후 금자가 묻혀 금척고분이라 불렀으며, 지명도 금척리가 되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신라는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 갑자(BC.57)에 시조 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서라벌(徐羅伐)이라 하였다, 여기서 라(羅)를 달리 나(那)또는 야(耶)를 쓰기도 하며, 사라 또는 사료/신라라고 부르다가 제22대 지증왕 4년(503)에 德業日新 網羅四方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고려 태조 18년(935)에 경순왕 김부(金傅)가 와서 항복하니, 나라를 없애고 경주(慶州)라 하였다. 23년(940년) 경주를 승격하여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고, 성종 6년(987년)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가 14년(996년)에 유수사(留守使)로 부르며, 영동도(嶺東道)에 예속시켰다. 현종 3년(1012년) 경주방어사(慶州防禦使), 5년(1014)에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21년(1030년) 안동유수(安東留守) 등 수차례 개칭되어 오다 고종 6년(1219년)에 다시 유수(留守)로 하였다. 충렬왕 34년(1308년) 개

칭하여 계림부(雞林府)라 부르고, 조선조 태종때 다시 경주라는 옛 이름을 사용하였다¹⁾.

고종 32년(1895년)에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할 때 경주군으로 개칭하고, 광무원년(1897)에 13도제 시행으로 경주군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이후 1914년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12개면 경주군으로 되었다. 1955년 경주시제(慶州市制) 실시로 월성군 서면으로 운영되다가 1973년 서면의 일부인 건천(乾川), 천포(泉浦), 송선(松仙), 신평(薪坪), 용명(龍明), 대곡(大谷), 화천(花川), 모량(毛良), 방내(芳內), 금척(金尺), 조전(棗田)의 11개 리를 분리하여 건천읍으로 운영하였다.

1989년 군 명칭의 환원으로 월성군 건천읍을 경주군 건천읍으로, 1995년 경주시군 통합으로 경주시 건천읍으로 개칭되었다. 금척리는 본래 경주군 서면의 지역으로, 금척원이 있었으므로 금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금척리로 하였으며, 1973년 건천읍으로 편입되었다²⁾.

금척리의 지명유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척(金尺)』은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그에게 금자(金尺)를 주었는데, 꿈을 깨어 보니 손에 금자가 쥐어져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꿈에서 가르쳐준 신인의 말대로 죽은 사람을 금자로 재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사람을 재니 병이 나으므로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라의 보물로 자자손손 물려오던 중, 당나라 황제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이 신기한 금자를 보여 달라 요청하므로, 왕은 이를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38기의 무덤을 만들어 금자를 감추었다고 한다.

당나라 사신은 무덤이 너무 많으므로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며, 그 후 이 무덤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금자가 묻혔다고 하여 이들 고분을 금척고분이라 불렀으며, 금척고분의 이름을 따서 ‘금척리’라 하였다고 한다.³⁾ 현재 건천읍은 11 법정리동, 25행정리동, 145반, 67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90.46km²이다.(2017.3.31.기준)

- 1981년 발굴결과에 따르면 총 15기의 분묘에서 금동제 관식, 은제과대 등 총 41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 위계가 높은 적석목곽묘로 확인되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확대구역 조망

고분군의 북서쪽은 금척 마을로 민가와 경작지가 분포하며, 남동쪽에는 어린이집과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민가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폐가 상태이고, 현재 대부분 빈 공터로 남아 있다. 빈 공터에는 토사가 적치되어 있고, 폐가에는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쌓여 있어 사적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조립식 판넬 축사

1) 민주면 『東京雜記』.

2) 경주시·경주문화원, 김기문 편저, 2006, 『慶州風物地理志』.

3) 경주시·경주문화원, 김기문 편저, 2006, 『慶州風物地理志』.

가 위치해 고분군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분군의 동쪽 경계는 북동쪽에 잔디보호용 헨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잡목으로 가려져 있다. 고분군 서편은 경작지와 접하고 있어 외부로 둘러 볼 수 있는 관람로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



금척리 고분군 남동쪽 추가 편입 대상지 현황(항공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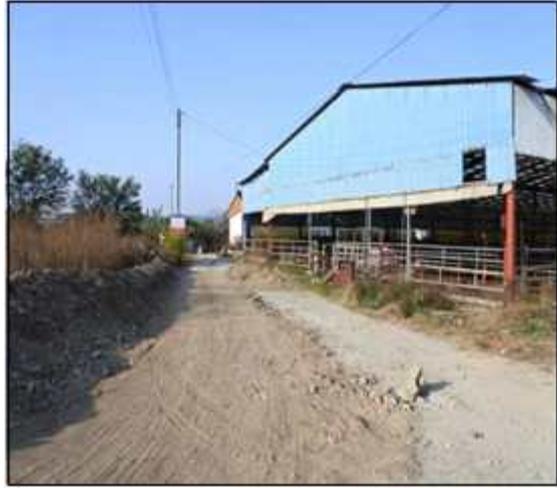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1)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2)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3)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4)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5)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6)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7)



동남쪽 주변 현황 세부(8)

서편 고분군의 남서쪽은 약 6가구 정도의 민가가 위치하며, 지대가 고분군에 비하여 약 120cm 정도 낮게 자리한다. 대나무 군락지가 있으며, 민가들 사이로 논과 밭이 경작되고 있어 고분군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가는 1동의 조립식 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단층의 건물로 슬레이트와 기와지붕의 주택이다. 서쪽 고분군의 경계는 남서쪽의 대나무 군락지부터 북쪽의 금척리 고분군 입구까지 흰스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는 소하천이 위치한다.



금척리 고분군 남서쪽 추가 편입 대상지(항공사진)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1)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2)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3)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4)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5)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6)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7)



남서쪽 주변 현황 세부(8)

○ 확대지정 검토

1) 문화재구역 확대지정 범위

금척리 고분군의 보호, 관람도로·주차장 등의 설치를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구역의 확대를 지정한다. 계획에 따라 그 범위는 고분군의 남동-남서편 지역으로 금척리 주거지역과, 소하천 일부가 포함된다.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범위 면적

구분	면적(m ²)	비고
현 문화재구역 범위	146,243	188,669(지적면적)
향후 추가매입계획 토지	41,602	90,507(지적면적)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면적 : 보호구역 77필지 41,602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계	77필지		82,416	41,602		
1	금척리	226	전	3,487	3,487		
2	금척리	228	전	1,772	1,772		
3	금척리	1068	도	8,018	1,660		
4	금척리	1064-25	천	3,487	1,470		
5	금척리	1067-1	도	34,987	2,600		
6	금척리	1068-10	대	332	332		
7	금척리	1068-11	전	353	353		
8	금척리	1068-12	전	158	158		
9	금척리	1068-13	도	117	117		
10	금척리	1068-4	답	1,171	1,171		
11	금척리	1068-5	전	633	633		
12	금척리	1068-6	대	119	119		
13	금척리	1068-7	대	381	381		
14	금척리	1068-8	대	420	420		
15	금척리	1068-9	대	58	58		
16	금척리	111-1	전	836	836		
17	금척리	111-4	묘	169	169		
18	금척리	111-6	답	1,548	1,548		
19	금척리	112-2	답	327	327		
20	금척리	113-3	답	3,121	3,121		
21	금척리	224-1	대	804	804		
22	금척리	224-2	도	46	46		
23	금척리	224-3	전	2,049	2,049		
24	금척리	229-1	전	1,795	1,795		
25	금척리	229-3	도	143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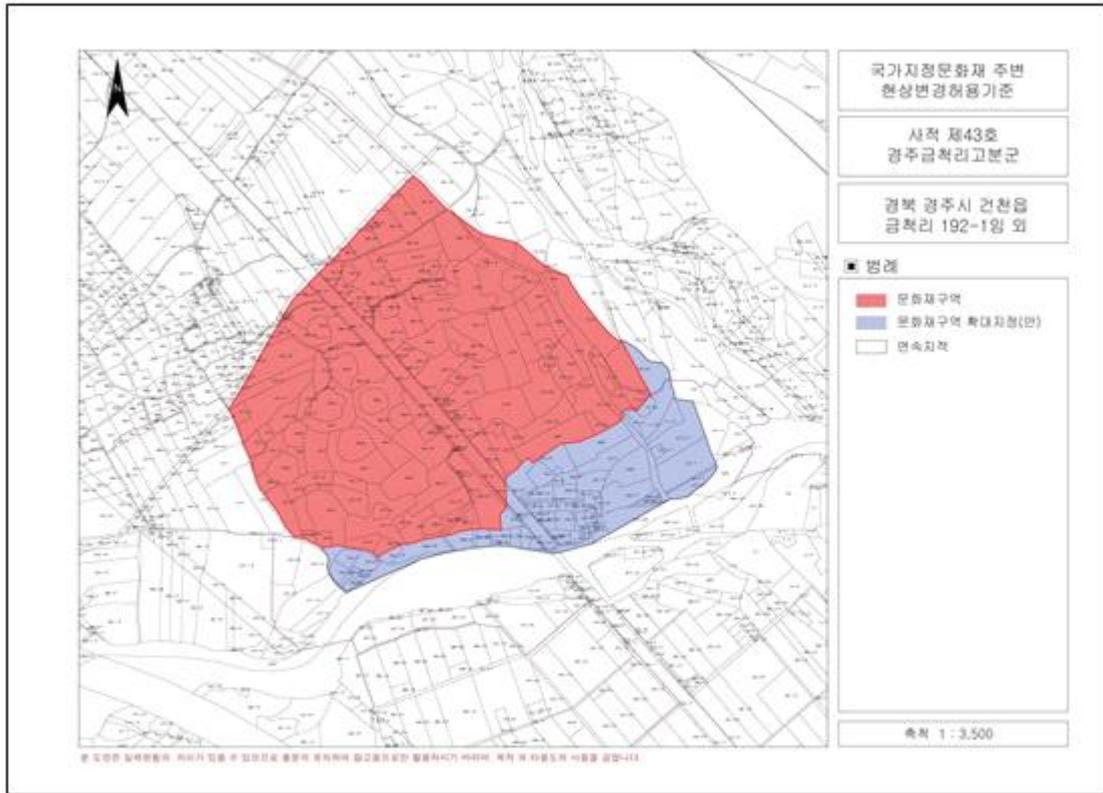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26	금척리	229-4	전	120	120		
27	금척리	229-5	전	114	114		
28	금척리	230-1	전	826	826		
29	금척리	230-2	대	534	534		
30	금척리	230-3	전	461	461		
31	금척리	230-4	전	174	174		
32	금척리	230-5	전	302	302		
33	금척리	231-1	대	334	334		
34	금척리	231-10	대	237	237		
35	금척리	231-2	전	73	73		
36	금척리	231-3	구	50	50		
37	금척리	231-4	도	205	205		
38	금척리	231-11	도	57	57		
39	금척리	229-2	대	136	136		
40	금척리	113-4	구	198	46		
41	금척리	233-2	도	43	43		
42	금척리	233-3	도	63	63		
43	금척리	232-10	도	142	142		
44	금척리	232-9	도	57	57		
45	금척리	232-4	도	63	63		
46	금척리	231-5	묘	138	138		
47	금척리	231-6	대	187	187		
48	금척리	231-9	대	240	240		
49	금척리	232-1	대	60	60		
50	금척리	232-2	도	13	13		
51	금척리	232-3	전	188	188		
52	금척리	232-5	전	79	79		
53	금척리	232-6	전	375	375		
54	금척리	232-7	전	526	526		
55	금척리	232-8	전	194	194		
56	금척리	233-1	대	349	349		
57	금척리	233-4	대	219	219		
58	금척리	233-5	전	80	80		
59	금척리	233-6	대	36	36		
60	금척리	233-7	대	136	136		
61	금척리	233-8	전	40	40		
62	금척리	234-1	도	26	26		
63	금척리	234-2	도	83	83		
64	금척리	234-3	전	466	466		
65	금척리	242-2	답	347	347		
66	금척리	244-1	대	492	49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67	금척리	244-2	답	588	588		
68	금척리	244-3	대	420	420		
69	금척리	244-6	답	126	126		
70	금척리	244-7	답	194	194		
71	금척리	244-8	답	142	142		
72	금척리	244-9	답	110	110		
73	금척리	107-2	목	2,408	2,408		
74	금척리	107-3	대	200	200		
75	금척리	107	목	2,587	2,587		
76	금척리	107-4	전	62	162		
77	금척리	107-6	전	785	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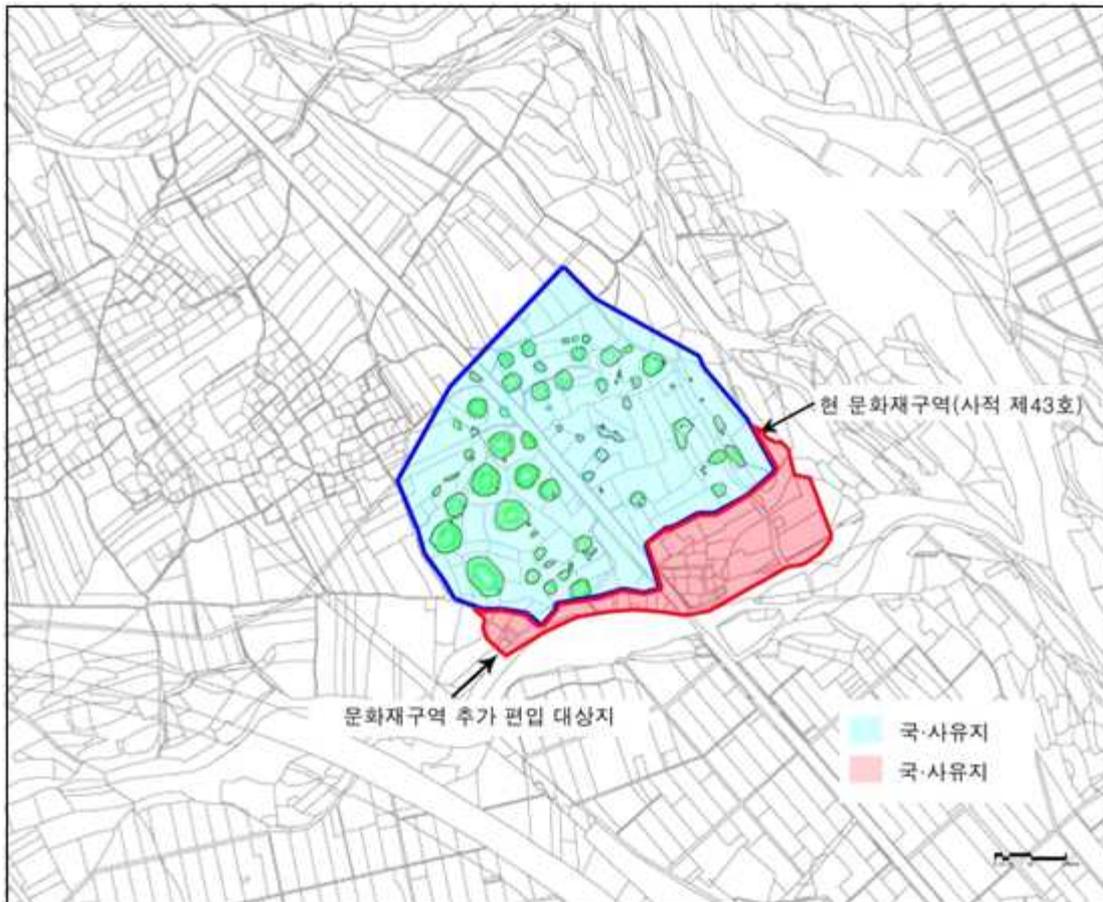
경주 금척리 고분군 항공사진(남서-북동)



사적 제43호 금척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고시도면(조정 및 추가 안)



금척리 고분군 지적현황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남동측으로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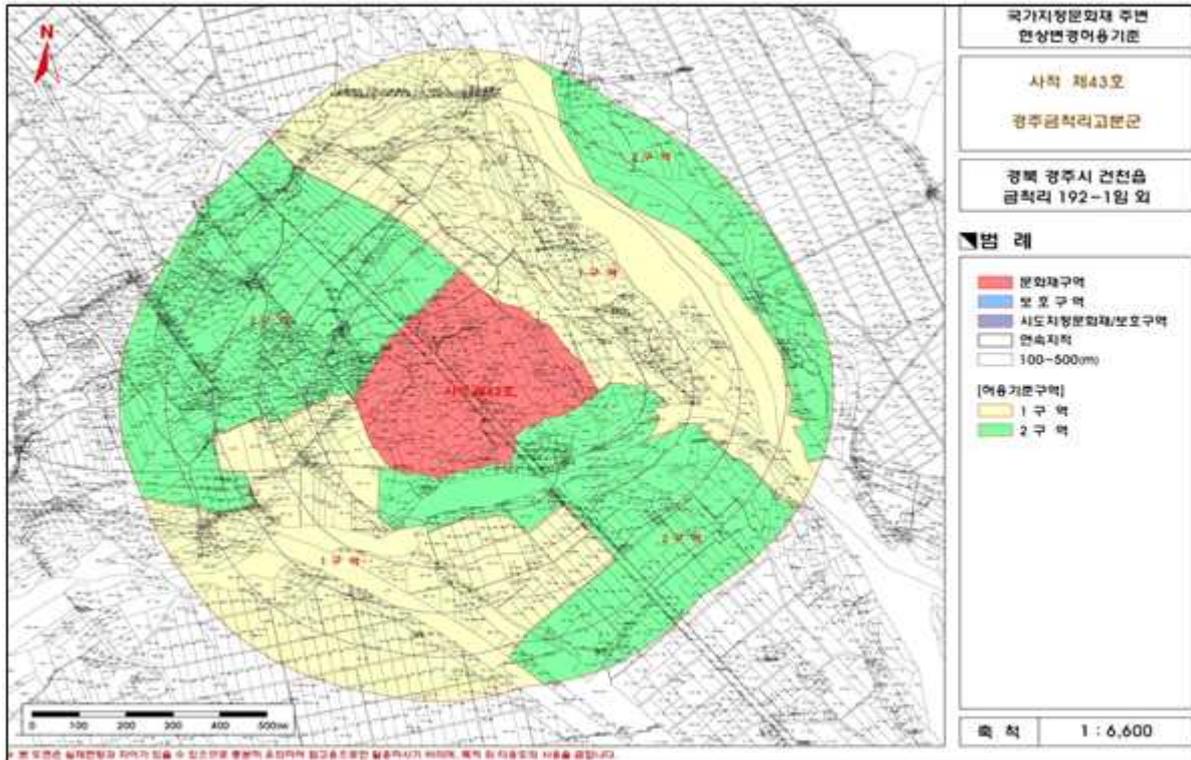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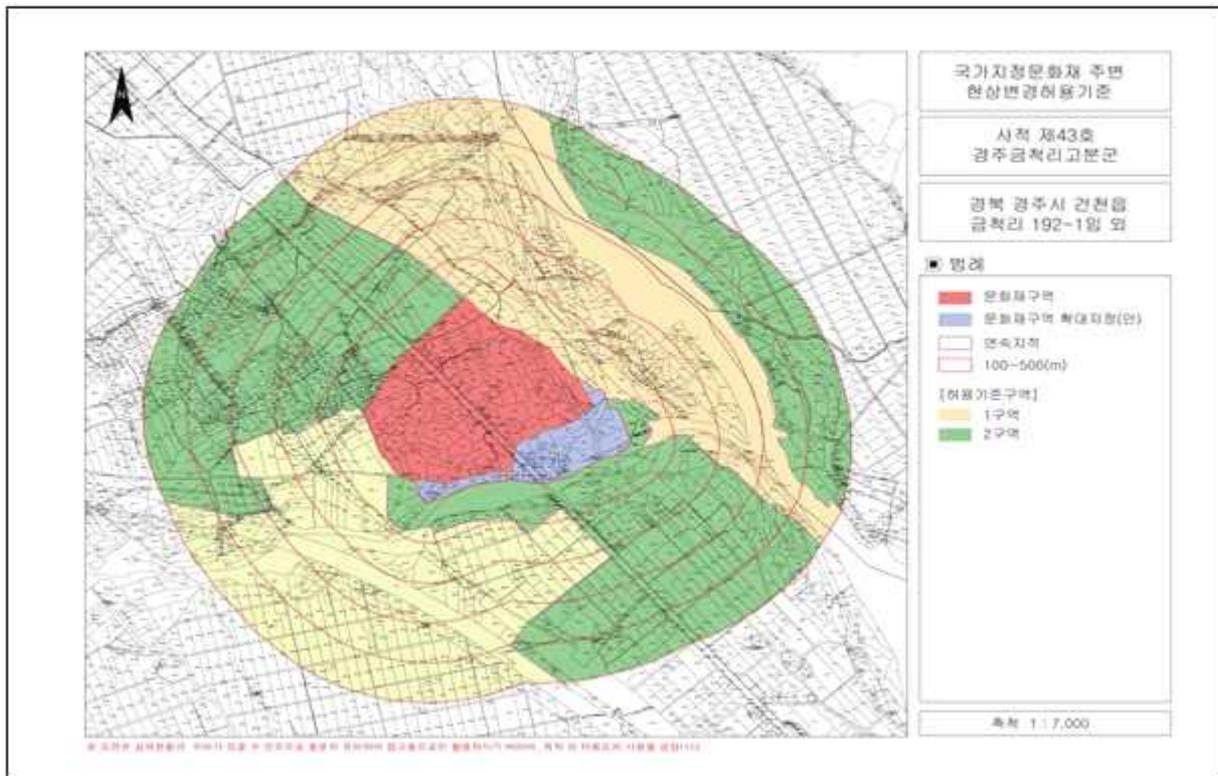


그림 보호구역 추가 지정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경주 금척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 사업 개요

- 사업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 사업성격 : 금척리 고분군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방안, 교통, 경관, 조경 등의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6.12.20.~2018.2.28

□ 사업의 배경 및 취지

- 경주 시내의 대릉원, 노동·노서동고분군 등과 함께 평지에 조성된 적석목곽분으로,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대단위 고분군으로 역사문화유산으로 큰 가치를 지님.
- 사적 제43호로 지정(1963.01.21.)되어 있으나, 사적으로서 체계적인 정비, 유지관리 방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음.
- 훼손된 고분의 복원과 조사된 고분의 전시 등을 통하여 금척리 고분군의 특색을 보여줌.
- 종합정비를 통해, 지역민과 탐방객에게 금척리 고분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알림.
- 주변의 역사유적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여 역사교육 뿐 아니라 관광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
- 금척리 고분군의 종합정비를 통하여 더불어 주변지역의 경제성장을 높임.

□ 사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 위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11-2번지 일원(사적 제43호:1963.1. 21.).
- ▷ 면적: 146,243m²

2) 시간적 범위

- ▷ 과업기간: 2016. 12. ~ 2018. 2.

3) 내용적 범위

- ▷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 현황측량, 관리상태 조사
- ▷ 고분군의 정비, 보존, 활용 방안 제시

▷ 경관과 접근성 고려한 도로계획

□ 금척리 고분군 현황 및 분석

1) 일반 현황

소유구분	필지	면적(m ²)	기타
개인	33	5,276	2필지 구역 밖 포함
국유지	22	55,217	1필지 구역 밖 포함
군유지	127	124,245	-
시·도유지	1	3,121	구역 밖 포함
법인	3	1,074	구역 밖 포함
합계	186	188,933	-

2) 고분군 현황

▷ 봉토분 기수 : 52기

▷ 고분성격 : 돌무지덧널무덤(고신라 최상위 지배층의 독특한 무덤형식)

▷ 시기 : 5~6세기 초

▷ 봉분형태 : 원형과 타원형(48호 표형분 1기 포함), 부정형

▷ 봉분현황 : 동편 1~29호분 중소형분 위치, 서편 30~52호분 대형분 위치

▷ 봉분규모

구분	대형분	중형분	소형분
규모	30m 이상	20~30m	20m 이하
호수	36, 38, 39, 43, 44, 48	1, 4, 9, 10, 11, 13, 14, 15, 26, 27, 31, 37, 41, 43, 47, 52	2, 3, 5, 6, 7, 8, 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8, 29, 30, 32, 33, 34, 35, 40, 45, 46, 49, 50, 51
합계	6기	16기	30기

▷ 추정고분 : 4기

▷ 고분군 잔존상태

구분	양호	비교적 양호	불량	매우불량
대형분	36, 38, 39, 42, 48	44	-	-
중형분	31, 41, 43	1, 4, 9, 10, 11, 13, 14, 15, 26, 37, 47, 52	-	27
소형분	-	2, 3, 5, 6, 7, 8, 12, 16, 17, 23, 24, 25, 28, 30, 32, 33, 46, 49, 50, 51	18, 19, 20, 21, 22, 29, 34, 45	35, 40
합계	8기	33기	8기	3기

▷ 고분군 조사현황

연도	조사기관	내용	출토유물
1951~1952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국도 확장공사로 파괴된 고분조사 실시 1, 2, 3호분(현30, 32, 37호분)중 1, 2호분 실시	금제 세환이식 등
1976	경주고적발굴 조사단	토사채취 중 토기편 노출로 인해 조사 추정 적석목곽묘 4기, 우물 1기 조사	유대장경호, 적색토기호, 고배 등 24점 (대부분 파손품임)
1981	경주사적관리 사무소국립경 주박물관	상수도 공사중 노출된 고분으로 조사 적석목곽묘 8기, 수혈식 석곽묘 3기, 옹관묘 2기, 토광묘 2기	은제금구, 요패, 금제세환이식 경식 등 총 410점

3) 도로·교통 현황

▷ 고분군 주변 도로망 현황

구분		유형	기타
고속국도	경부선	왕복 4차로	확장공사 진행 중(언양~영천)
국도	4호선	왕복 4차로	-
	20호선	왕복 4차로	-
내서로		왕복 2차로	고분군 중앙 통과
철도	경부선	복선(고속철도)	-
	중앙선	단선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의 이설과 복선 전철화/ 경주 일부 구간 폐지
	동해남부선	단선	

4) 시설물 현황

- ▷ 경계울타리 : 메쉬 헨스와 잔디보호 헨스가 혼용 설치되어 있음
- ▷ 각종 표지판 및 표지석 : 철제와 석물로 소재 혼용
- ▷ 기타 시설물 : 詩碑, 전신주, 폐건물 등 제거 및 정비 대상

5) 식생 현황

- ▷ 동측 고분군 주요 식생-감나무, 곰솔(해송), 낙엽송(외래종), 왕버들, 밤나무
- ▷ 서측 고분군 주요 식생-감나무, 팽나무, 테다소나무(외래종), 대나무 등
- ▷ 기타 식생-아까시나무(외래종), 뽕나무, 왕벚나무, 대나무 등

□ 관련법규 검토

1) 발굴조사에 관한 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매장문화재란 토지 등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정의한다.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연구목적, 유적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한다.
제12조	발굴허가는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이 적힌 허가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2) 현상변경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 : 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 : 허가 절차 -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관할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3) 현상변경에 있어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 국토용도구분 - 문화재의 보존 위해 필요한 지역 • 제7조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문화재 보존 위한 조사와 대책마련 • 제63조 : 개발행위 허가 제한 - 개발로 문화재의 오염, 손상 우려 지역 • 제76조 : 용도지역 및지구건축물 제한 - 4호의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 : 용도지구 -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유 지역 등 • 제26조 : 현상 변경에 관한 협의 -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 • 제71조 : 허가에 관한 사항 -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증축 등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주제공원은 역사, 문화공원으로 구분, 역사공원은 유적유물을 활용해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기본계획 및 종합정비 관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 청장은 종합적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제7조 : 문화재보존시행계획 수립 - 청장,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문화재별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 • 제7조: 문화재보존시행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문화재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다. • 제7조 :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및 주기 - 5~10년 단위 정비계획

5) 보존 관리 활용

문화재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보존 관리 활용의 종합적 시책을 수립을 추진한다. - 지자체는 국가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수립 추진한다.

6) 경관법 및 관련 법규

경관법	경관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 경관관리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 문화 드러내는 경관 유지 • 제16조 : 경관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 제19조 : 경관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건축법 • 환경 영향 평가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옥외 광고물 관리법 • 자연환경 보전법 • 산림 기본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 문화재보호법: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한 규정 및 문화재보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 고도보존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중 지정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장의 고도지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 수립후 문화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8조의 2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은 고도보존 육성시행계획을 수립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10조 : 지구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따라 각 지정지구를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제11조의 2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의 적용관계 • 제18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8) 사례 조사

구분	위치	특징	시사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사적 제79호)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대가야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 • 대가야 박물관은 대가야 왕릉 전시관과 대가야 역사관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척리 고분군과 도로환경 유사 • 도로를 폐쇄하지않고 터널을 조성하여 고분군내 보행로 확보 • 넓은 주차시설
합천 옥전 고분군 (사적 제326호)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3-1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세기 전반의 가야고분군 1,000여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합천박물관과 노출전시관 등의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과 관광 확충 노력 • 방문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홍보와 주변 개발계획 필요
창녕 교동 고분군 (사적)	경남 창녕군 교리 129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세기로 파악되며, 고분 150여기 정도 확인 • 창녕박물관 전시관에 고분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군과 박물관사이 도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 • 금척리 고분군 접근 우회도

제514호)		조과정을 볼 수 있는 모형관 설치 • 박물관과 고분 사이 국도 20호선 관통	로 및 지하도 계획마련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제515호)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번지 일원	• 아라가야 왕들의 무덤으로 37기의 대형 고분이 높은 곳에 위치 • 함안박물관 야외에 아라홍련 연못과 고인돌 공원 조성	•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량 증가시 주변 이면도로 활용 • 금척리 방문객 수요를 예측하여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필요

□ 사업 구상 및 계획

1) 고분 보호 및 정비

- ▷ 1단계 -확인조사(잔존상태 확인 및 추가로 고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
-봉분복원→추가 번호 부여
- ▷ 2단계 -기저부 조사 및 고분의 크기 확인(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고분)
- ▷ 3단계 -원형보존(양호한 상태의 고분 잔디 식재)
- ▷ 4단계 -분포조사(순차적 분포 조사→추가번호 부여)
-표지석 설치 및 기저부 범위 표시

2) 발굴조사의 필요성 및 대상고분 선정

- ▷ 경주 시내의 적석목곽분과 외곽의 무덤 변화상 확인가능.
- ▷ 인근 모량리 도시유적과 연관성을 확인 및 모량부 단위 복원의 중요 자료.
- ▷ 발굴 대상고분 대형-중형-소형으로 분류 후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선정.

3) 차량동선 계획

- ▷ 단기적으로는 기존 도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중앙선 폐선로로 이설 계획

4) 주차장 계획

- ▷ 버스, 승용차,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경주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 면적 100㎡당 1대임)

5) 토지이용 계획

- ▷ 고분군 남동측과 남서측, 북동측 공간 휴게 전시관람 등 서비스 공간 조성
- ▷ 광장, 휴식공간을 겸한 포토존 등이 고분군 관람 동선과 순환되도록 설치
- ▷ 내서로 폐지후 신규도로 조성 및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연결
- ▷ 고분군 서쪽 경계부 농로 폐쇄, 신규도로 연결부에 농로 신설

6) 동선계획

- ▷ 차량 진입동선(8m)은 아스팔트 포장, 농로(7m)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유지
- ▷ 마사토 다짐류-우수 투수 가능, 문화재공간에 이용, 관람보행동선(4m) 적용
- ▷ 야자 매트류-우수 투수 가능, 시공 및 관리 용이, 관람보행동선(4m) 적용
- ▷ 블럭류-우수 투수 선택적 가능, 주로 서비스 공간내 동선과 광장(5m) 적용

7) 식재 기본구상

- ▷ 도입 식물종은 향토종으로 선정, 고분군 경관 구성과 조화

- ▷ 교목류는 계절 변화감과 관상가치가 큰 낙엽활엽수종 도입
- ▷ 관목류와 초화류는 1m 내외의 개화수종 도입
- ▷ 낙엽활엽교목을 식재하여 고분군 경계로 이용, 경관 저해요소 차폐
- ▷ 서비스 공간은 교목, 관목, 초화종을 혼용하여 식재
- ▷ 초지 광장은 다양한 관목류와 초화류 혼용하여 식재
- ▷ 내부동선 낙엽활엽교목 위주의 단식이나 관목 군식 계획

성 상	주요 도입 수종
교목류	소나무, 곰솔, 왕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모감주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등
관목류	진달래, 철쭉류, 개나리, 병꽃나무, 미선나무 등
초화류	유채꽃, 해바라기, 각종 향토 야생초화류 등

8) 식재 계획

- ▷ 주차장은 낙엽활엽교목(느티나무 등)을 식재
- ▷ 진입광장은 높이 5m이상 낙엽활엽교목 열식으로 진입시선과 방향성 확보
- ▷ 미로원은 1.5m~2m 정도의 지엽이 밀생한 상록관목류(깽깽나무 등)를 식재
- ▷ 고분군 경계부 농로는 낙엽활엽교목류를 열식하도록 계획
- ▷ 고분군 북측과 동측 경계부는 유채원과 해바라기원 조성 계획
- ▷ 야생조화원은 사계절 개화시기를 고려한 향토종 위주 식재
- ▷ 내부 관람동선 주변에는 0.5m 이하 개화 관목류와 야생초화 등을 식재
- ▷ 외래종과 생육불량 수목 제거하고, 대형교목과 남측의 대나무 군락지는 재정비

9) 시설물 기본구상 및 계획

- ▷ 이용객 편의시설 전무, 전통적 경관에 저해되지 않은 디자인, 재질 선정
- ▷ 이용객 휴식, 관람에 있어 편의를 위한 안내, 편익, 조명시설 등 도입
- ▷ 출토유물이나 고분 관련 자료 등을 전시, 교육할 내부 전시실 도입

도입 시설	시설물
휴게시설	벤치, 아고라 등
편익시설	화장실, 휴지통, 음수전 등
조명시설	가로등, 경관조명, 유도등 등
기타시설	경관담장, 전통담장 휴게공간 등
안 내 판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 라인, 봉분 표시석 등

□ 추진 계획

사업명	사업비 (억원)	단기계획(1단계) 2018~2022	중기계획(2단계) 2022~2026	장기계획(3단계) 2027년 이후	비고
발굴조사	80.0억	발굴조사:50.0억(3기) 보고서 발간:30.0억			
유적정비	60.0억	분포, 확인조사:20.0억	봉분 복원:40.0억 (1.0억×40여기) 고분호수 재정비		
유적가시화	48.0억			전시관:43.0억 야외전시관:5.0억	
교통체계개선	25.0억		차도 폐지 및 우회도로 건설 (중앙선 폐선이후):25.0억		중앙선 폐철도부지 활용계획과 연계
조경 및 시설	47.6억	수목정비:0.45억/공간조성:26.05억/동선 정비 및 조성:12.1억 /각종시설 조성:6.7억/기타식재:2.3억			
토지 매입	10.0억	사적 확대 범위 매입 : 별도 반영 시설부지 매입:10.0억(주차장, 전시부지 등)			사적 확대 범위 매입 용역중
총계	270.6억원				

□ 관리 운영 계획

사업	단기 운영/관리 계획	중장기 운영/ 관리계획
발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조사 계획수립 발굴조사 내용 공개 방안 모색 유물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완료후 봉분 복원 발굴조사 성과-전시 프로그램 활용
고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정비 대상 고분 확정 단순 정비 계획 고분 대상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차적 고분복원 및 정비 고분 관리 대장 작성, 지속적 자료 업데이트 고분번호 재정비
유적 가시화 (전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진 설계를 기본, 보안 및 방재 시스템 수립 주기적 내부 프로그램 개선 계획 수립 관리주체선정:국가기관 또는 민간 위탁 등 선정(조직 및 인원 구성) 	
경관/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종, 생육불량 수목제거 사적확대 지역-조경 및 경관 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경관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주변지역의 경관 개선 계획 수립(철도부지 포함)
교통 및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주차시설 설치, 관리(사적확대 범위 중) 토지 이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도로 완공 후 내서로 폐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확대 지역-편의시설(주차,휴게 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편의시설 안정성 점검, 재정비 유적과 시대상 반영된 디자인 재정비

9. 종합의견

- 경주 금척리 고분군은 대릉원 일원 고분군과 함께 평지에 조성된 적석목곽분(4~6세기)으로서 현 추가지정 신청된 구역은 금척리 고분군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

로 구분되어 서측 고분군, 동측 고분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측 고분군은 상당히 넓은 면적에 폐가, 축사, 잡목 등으로 불량한 경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81년 하수도 공사에서 금제이식 등이 확인되었지만 유구는 훼손되었다.

- 서측 고분군은 민가와 경작지가 고분군과 연접하여 훼손의 우려가 크다.
- 현지조사에 검토한 바, 현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된 구역은 81년 하수관거에 의해 훼손된 유구 이외에는 시·발굴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유물산포지로도 되어 있지 않아 유적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단, 서측 고분군 중 민가와 고분군이 연접한곳 일부는 훼손우려가 커 완충구역의 개념에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시급히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사천왕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번지

(3) 신청내용

- 지정신청 범위 : 경북 경주시 배반동 922-2 외

구분	면적(m ²)	필지수	비고	
기존	34,128	48		
추가	조정	4,302	12	낭산 → 사천왕사지
	신규	3,694	16	폐철도 부지 등
감소	1,318	2	사천왕사지 → 낭산	
합계	40,806	74		

(4) 관리단체(안) : 경주시

(5) 신청사유

- 사천왕사지를 관통하는 동해남부선의 일부구간은 2020년 경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철도 부지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여 철도로 단절된 유적을 통합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5.11(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의 사역범위 조정에 따른 사천왕사지 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낭산 일원구역에 포함하고, 낭산 일원구역 일부를 사천왕사지에 포함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의 사역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 사천왕사지 및 낭산 일원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월성, 황룡사지, 망덕사지, 신문왕릉 등 국찰 및 왕릉 관련 유적이 밀집된 왕경의 동쪽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임.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경주 사천왕사지는 호국사찰로 문무왕 11년(671)에 당나라의 침입에 맞서 명랑이 채색비단과 오방신상을 만들어 문두루비법을 설법한 장소에 창건된 사찰로, 왕의 비호를 받아 지어진 국가 수호를 위한 사찰임. 또한 1금당 2탑의 전형적인 구조의 가람배치로 이후 건립되어진 쌍탑식 가람배치의 효시가 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임.
- 2006~12년까지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하여 현재 동해남부선이 지나고 있는 지역에 사천왕사지의 강당지 및 서편 건물지, 동회랑지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금당지와 강당지 간의 거리로 보아 강당지의 북쪽으로 사역의 범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2020년 이후 경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동해남부선이 철거예정에 있으므로, 추후 본 지역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사천왕사지의 정확한 가람배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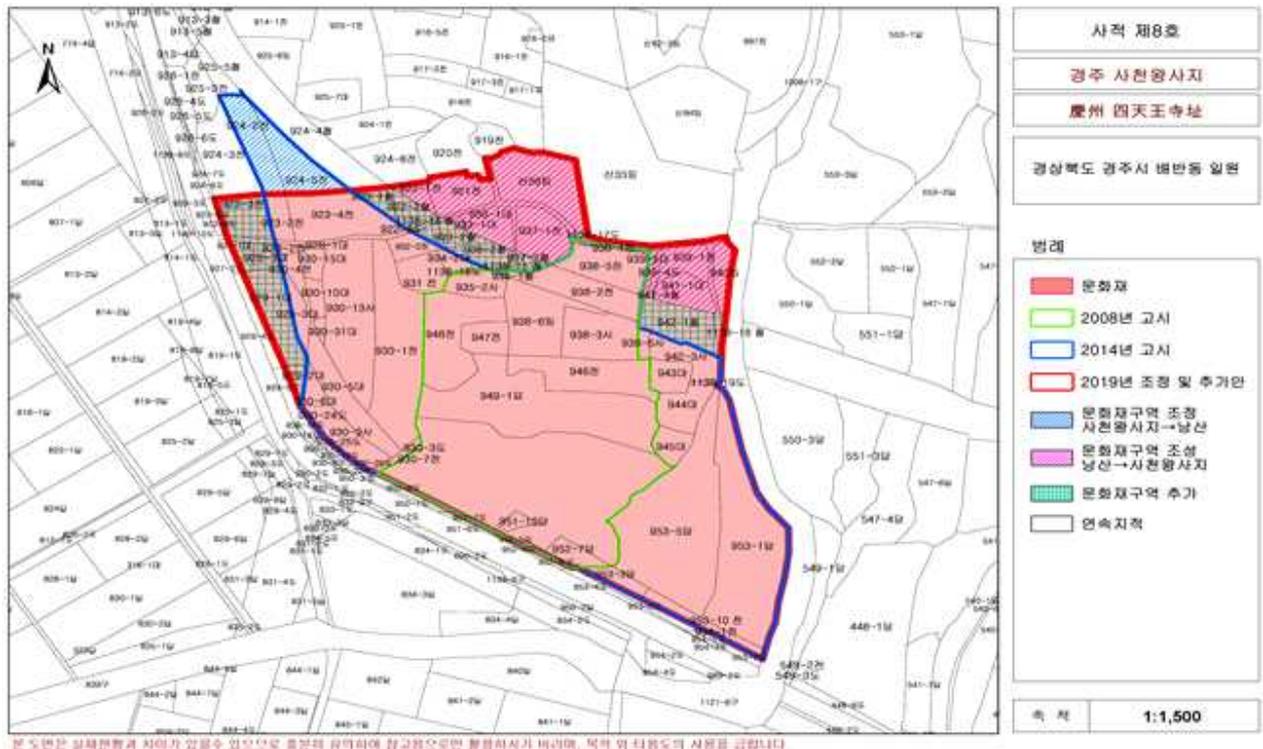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의 문화재구역은 2008년에 14필지(지적/지정: 15,724㎡)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는 34필지(지적: 35,182㎡/지정: 18,404㎡)가 추가되어 현재 총 48필지(지적: 50,906㎡/지정: 34,128㎡)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문화재구역의 지적 상 혼잡 및 사적의 범위 등의 이유로 문화재구역의 재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변동사항

구분 연도	문화재구역 면적	문화재구역 면적 변동사항	비고
2008년	- 14필지(지적: 15,724m ² /지정: 15,724m ²)		
2014년 ~ 현재	- 48필지(지적: 50,906m ² /지정: 34,128m ²)	- 34필지(지적: 35,182m ² /지정: 18,404m ²)	추가
금번 조정 및 추가 내용	- 76필지(지적: 58,902m ² /지정: 42,124m ²)	- 12필지(지적/지정: 4,302m ²) 낭산 → 사천왕사지	조정및 추가 (증가)
	- 74필지(지적: 57,584m ² /지정: 40,806m ²)	- 2필지(지적/지정: 1,318m ²) 사천왕사지 → 낭산	조정(감소)
	총 : 74필지(지적: 57,584m ² /지정: 40,806m ²)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영향 범위의 변동은 없음.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변동사항 모식도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보호구역)

- 추가지정면적 : 12필지/4,302m² + 철도 부지 추가 지정면적 16필지/3,694m²
- 해제 면적 : 2필지/1,318m²

가. 문화재구역

1) 신청개요

연번	문화재명(종별)	신청지	면적		소유자
			추가	조정	
1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제8호)	경주시 배반동 922-2 외	3,694㎡ (16필지)	낭산 → 사천왕사지	국유 및 사유
				4,302㎡(12필지)	
2	경주 낭산 일원 (사적 제163호)	경주시 배반동 912-4 외	5,022㎡ (11필지)	사천왕사지 → 낭산	국유 및 사유
				1,318㎡(2필지)	

2) 사적 추가지정 및 조정 세부내역

○ 경주 사천왕사지 : 증 7,996㎡, 감 1,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비고
						소유자	주소	
추가면적(16필지)				3,694	3,694			
1	배반동	922-2	철	231	231			추가
2	배반동	923-1	철	195	195			추가
3	배반동	923-3	전	509	509			추가
4	배반동	927-1	대	142	142			추가
5	배반동	928-3	대	162	162			추가
6	배반동	929-1	대	767	767			추가
7	배반동	929-2	대	119	119			추가
8	배반동	930-4	전	10	10			추가
9	배반동	933-2	철	142	142			추가
10	배반동	935-1	철	13	13			추가
11	배반동	936-2	철	426	426			추가
12	배반동	937-2	철	116	116			추가
13	배반동	942-1	철	711	711			추가
14	배반동	1138-14	철	36	36			추가
15	배반동	1138-15	철	31	31			추가
16	배반동	1138-18	철	84	84			추가
조정면적(12필지)				4,302	4,302	낭산 → 사천왕사지		
1	배반동	921	전	536	536			조정
2	배반동	922-1	전	172	172			조정
3	배반동	933-1	대	40	40			조정
4	배반동	936-1	대	390	390			조정
5	배반동	937-1	전	618	618			조정
6	배반동	939-1	전	370	370			조정
7	배반동	939-4	도	63	63			조정
8	배반동	940	임	268	268			조정
9	배반동	941-1	대	420	420			조정
10	배반동	941-4	철	7	7			조정
11	배반동	산36	임	893	893			조정
12	배반동	1138-1	도	525	525			조정

사천왕사지 기발굴지와 미발굴지 영역



경주 사천왕사지 가람배치 및 미발굴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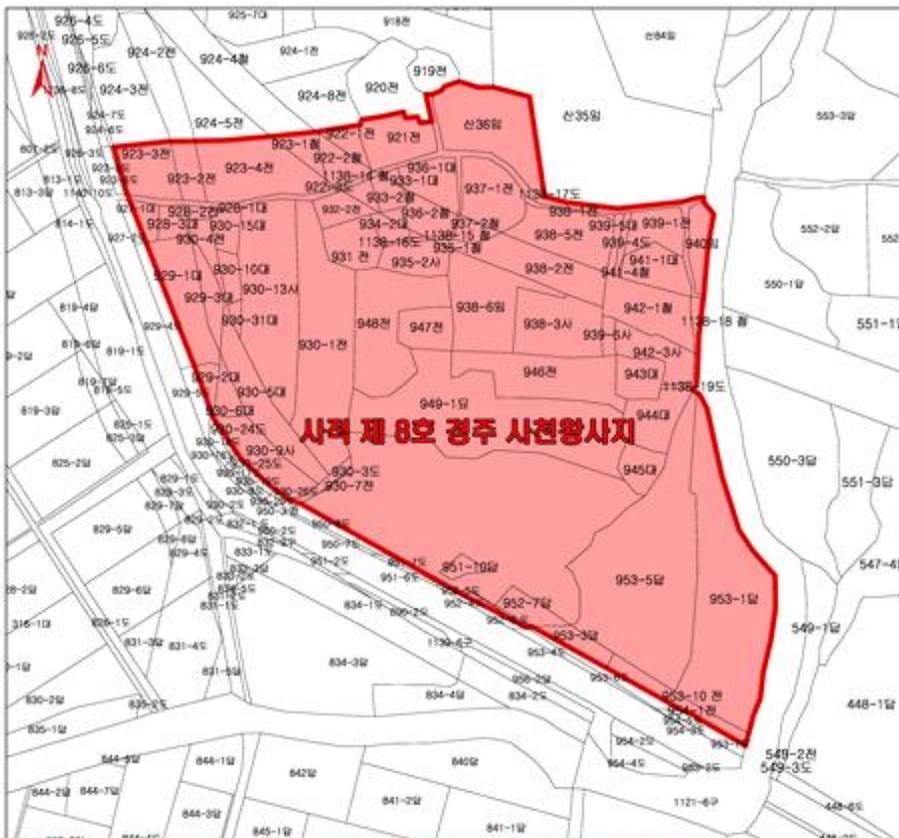
경주 사천왕사지 및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추가_위성사진(확대)



사적 제8호 및 163호	
경주 사천왕사지 및 경주 낭산 일원	
慶州 四天王寺址 및 慶州 狼山 一圓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구왕동, 보문동 일원	
범 례	
■	문화재구역
■	문화재구역 추가 영역 (경주 사천왕사지)
■	문화재구역 추가 영역 (경주 낭산 일원)
□	연속지적
축 척	1 : 3,2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면도 유효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적 제 8호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고시 도면(조정 및 추가_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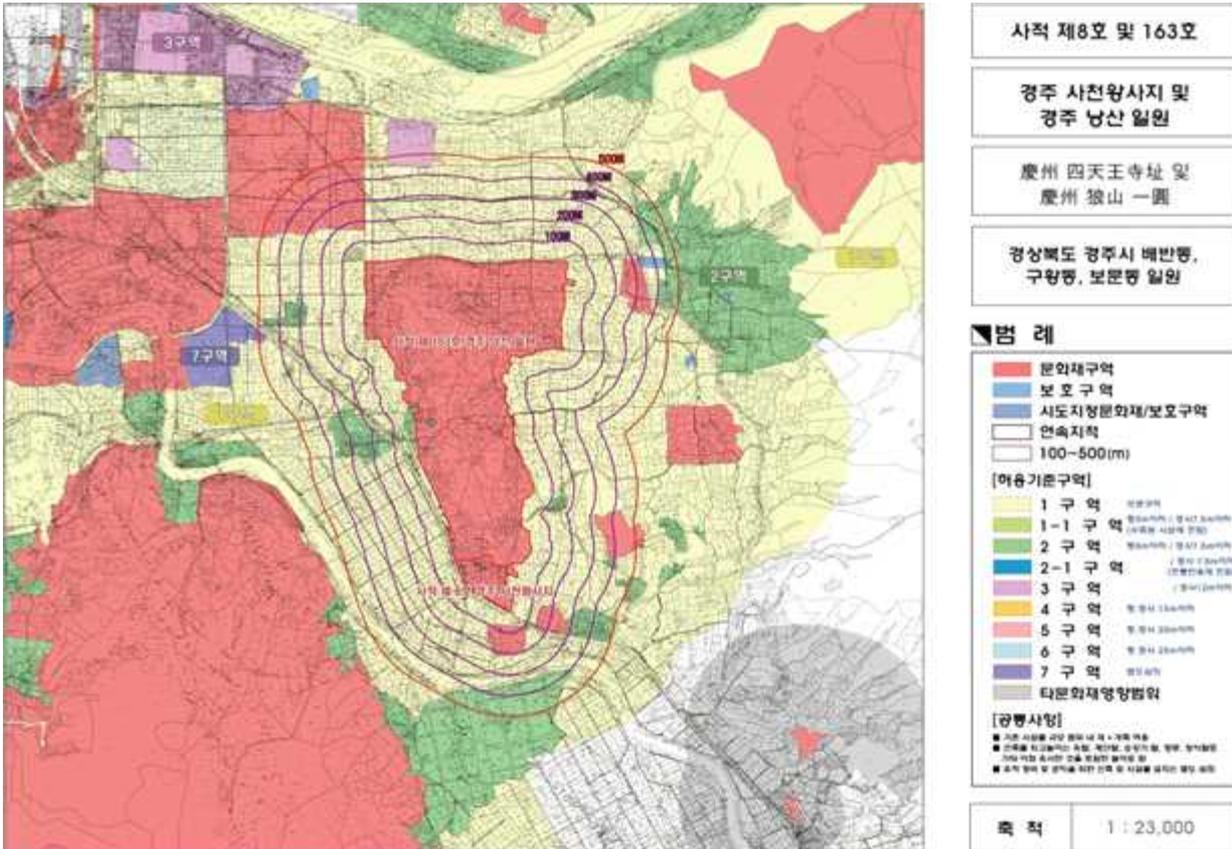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慶州 四天王寺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일원	
범 례	
■	문화재구역
□	연속지적
축 척	1 : 2,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면도 유효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도심화 된 곳으로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1-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격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본 문화재 활용계획(안)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계획 중인 사적지 발굴 후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천왕사지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작성됨.

1-1. 향후 추진방향

1) 조사연구

발굴조사는 기 발굴된 대상지 이외의 사천왕사지 가람으로 한정하며, 미발굴대상지는 토지를 매입한 후 진행한다.

출토된 석재유구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신재 선택은 기존부재와 구별되도록 하되,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색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석물은 초석과 지대석 등을 정밀실측조사하고, 연구·분석을 통한 건물의 규모와 위치 등을 추정한다. 초석의 경우 해당건물지의 평면연구와 병행하여 건물지 별 정비(안)을 확정 짓도록 하고, 다양한 학술적 검토를 함께 추진하여 그 결과를 정비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용가능한 구재를 구별하여 활용하는 한편, 신재제작의 가공방법, 규모, 기술적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활용연구 사업은 경주 사천왕사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고양시키고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광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과 보존과 유지보수에 주안점을 둔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전문성·효율성·실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주시가 추진한 「경주 관광코스개발」 중 ‘신라의 절을 찾아서’ 코스, 경주 현강왕릉, 서출지 등을 포함한 「동남산 가는 길」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고려하여 경주 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활용계획(제안)까지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비

발굴조사 이후의 성과를 통하여 경주 사천왕사지 가람배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주차공간, 녹지공간, 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매입이 필요하므로,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매입을 추진한다.

정비공사는 사지와 외부 공간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통일신라시대 건축물을 복원 정비하는 공간인 사지부터 석물 정밀실측조사연구 결과를 첨가 보완하여 초석 및 기단, 계단 등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 정비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이후에 사지 외부 전시공간, 녹지공간, 진입공간, 주차공간, 편의 시설 등의 토목, 건축, 조경공사를 추진한다.

■ 단계별 정비계획

다양한 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한다.

단계 구분 기준

단계 구분 방법
재원의 규모 와 조달방식
사업소요시간
필수사업과 부차적인 사업

단계별 정비계획

단계	항목	사업내용	비고
1단계	토지매입	계획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1차 발굴조사(계획대상지 내)	
2단계	토지매입	계획대상지 외 미발굴지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2차 발굴조사(계획대상지 외 미발굴지)	
	복원 연구 및 설계	1, 2차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원 연구 및 설계	
3단계	정비공사	정비영역 내 건축물 및 유구정비	
		조정 및 편의시설 정비	

3) 복원

복원보다 정비에 더 치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목탑지, 금당지 등의 건물지에 무리한 복원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인 복원사업의 목표는 경주 사천왕사지가 소실되기 이전의 통일신라시대 사찰로 재현하여 방문객에게 보다 쉽고 친근한 형태로 이해하도록 되어야 하며, 먼저 복원적 학술연구를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디지털모형·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재현된 축소모형을 전시·공개함으로써 관람자가 공감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전체 복원을 전제로 한다.

추진일정을 계획함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허가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전체 일정 속에 포함시킨다.

1-2. 예산계획

1) 총사업비

경주 사천왕사지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정비공사에 대해 공종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2015년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물가변동률 및 기타 제요소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시설이 규모와 구조 등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실제 사업에 소요된 시설비가 변동될 수 있다.

토지매입 예산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하지만 대부분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토지매입 및 보상처리비용은 지역주민과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를 받아 실시한다.

총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토지매입	조사연구	정비공사 (설계·감리비 포함)	총계	비고
사업비	809,975	1,788,110	6,853,820	9,451,905	

경주 사천왕사지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공정	세부공정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예산	비고
토지 매입	토지매입	계획대상지 내	9,993㎡	식	1	75	749,475	
		계획대상지 외	6,050㎡	식	1	10	60,500	
	소계						809,975	
조사 연구	발굴조사	1차 발굴 (계획대상지 내)	2,704㎡	식	1		466,521	
		2차 발굴 (계획대상지 외)	6,005㎡	식	1		721,589	
	복원연구			식	1	300,000	300,000	
	디지털복원			식	1	100,000	100,000	
	모형복원			식	1		200,000	
	소계						1,788,110	
토목 공사	토공사	성토, 절토, 잔토 (복토정비 포함)	15,000㎡	식	1		948,630	
	석교 수복		2m×3m	식	2		925,000	
	지하수개발		3공	식	3	25,000	75,000	
	수로 수복 및 신설		1,500m	식	1		330,000	
	소계						2,278,630	
조경 공사	포장	화강석판석포장	2,350㎡	식	1	160	376,000	
		잔디식재포장	7,300㎡	식	1	70	511,000	
		삼화토포장	2,000㎡	식	1	160	320,000	
		박석포장	1,200㎡	식	1	390	468,000	
		점토블럭포장	2,350㎡	식	1	80	188,000	
		목재데크설치	820㎡	식	1	200	164,000	
	식재			식	1		174,000	
	조경시설물			식	1		22,000	
	소계						2,223,000	
건축 공사	기단공사 복원	해체·정비	400㎡	식	1	280	28,750	
		신설	400㎡	식	1	2,500	825,000	
	석축공사	(해체정비 및 신설)	300㎡	식	1	800	24,000	
		자연석 신설		식	1		248,000	
	전시시설		500㎡			900	450,000	
	관리시설		540㎡	식	1	750	405,000	
	소계						1,980,750	
설계비						297,541	공사비 ×4.59%	
감리비						73,899	공사비 ×1.14%	
사업비						9,451,905		

1-3. 관리 및 운영계획

1) 기본방향

경주 사천왕사지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되는 문화유산으로 관리
관람객 및 지역 주민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주변 유적지를 연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마련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 설계 및 역할 분담

2) 공간적 관리운영 방안

경주 사천왕사지의 관리운영은 유적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정비에 따른 활용이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존중심의 공간과 활용중심의 공간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보존중심공간은 안내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관람순로의 안내, 관람범위조정, 관람객의 행위 제한 등 주로 보존관리와 관람안내 위주로 운영한다. 활용중심공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영역으로 사용하고 관람객과 주민들에게 보다 즐겁고 자유스러운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공간구분은 이를 경직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탄력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존중심공간에서도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유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다소 완화된 관리방식과 개방적 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전시시설은 사천왕사지 유적관람에 있어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유적의 표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출토된 유구와 유물 등을 전시하고, 패널과 축소모형 등을 통하여 사천왕사지의 입지와 역사성, 연구성과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하도록 한다.

관람객을 위한 탐방로는 관람방향과 순로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산책로와 전망대 등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경주 사천왕사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대다수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 후 관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 차량소통과 이용편의를 위한 이정표, 이동경로 등이 지시되어야 하며 차선이 교차되는 지점의 안정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정비사업은 경주 사천왕사지가 친근하고 쾌적한 유적환경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3) 공간적 관리운영 방안

경주 사천왕사지 정비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경주 사천왕사지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관광요소들이 서로 네트워크화되어야 한다.

역사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관광은 단위 문화재에 초점을

맞춘 관람에서 벗어나 특정한 주제를 지닌 답사형 문화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별 또는 유형별로 특정한 주제를 지닌 역사탐방코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 유형별 역사탐방코스로 활용(‘신라의 절을 찾아서’)

경주시가 2007년 추진한 「경주 관광코스개발」 중 ‘신라의 절을 찾아서’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사천왕사지와 연계하여 경주 망덕사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라의 절을 찾아서’ 탐방코스 제안

프로그램	탐방 코스
신라의 절을 찾아서	경주 분황사 → 경주 황룡사지 → 경주 망덕사지 → 경주 사천왕사지 → 경주 불국사 - 소요시간 : 약 5시간 30분



‘신라의 절을 찾아서’ 탐방코스

■ 지역별 역사탐방코스로 활용 (「동남산 가는 길」 계획 중 ‘C구간’)

「동남산 가는 길」 계획 중 ‘C구간’에 본 정비계획의 경주 망덕사지와 경주 사천왕사지가 포함되어 있다.

본 정비사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경주 망덕사지,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신문왕릉을 하나의 문화재지구로 구성하여 「동남산 가는 길」 계획 중 ‘C구간’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남산 가는 길」 C구간(1안)



「동남산 가는 길」 C구간(2안)

9. 종합의견

- 경주 사천왕사지는 2006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와 동해남부선의 2020년 폐선 결정에 따라 강당지가 연결되는 북측과 남측의 도로 안쪽을 추가지정하고 서측의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중 사역 밖을 남산의 문화재 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됨.

5. 경주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낭산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 / 1968.12.1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번지
- (3) 신청내용
 - 지정신청 범위 : 경북 경주시 배반동 912-4 외

구분	면적(m ²)	필지수	비고
기존	909,854	575	
추가	조정	1,318	사천왕사지 → 낭산
	신규	5,022	폐철도 부지 등
감소	4,302	12	낭산 → 사천왕사지
합계	900,892	576	

- (4) 관리단체(안) : 경주시
- (5) 신청사유
 - 사천왕사지와 낭산을 관통하는 동해남부선의 일부구간은 2020년 경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철도 부지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여 철도로 단절된 유적을 통합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경주 낭산 일원(慶州 狼山 一圓) 추가지정 및 해제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5.11.(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경주 낭산 일원(慶州 狼山 一圓)과 경주 사천왕사지의 연접구역 조정에 따라 경주 낭산 일원의 지정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경주 사천왕사지로 편입하고 경주 사천왕사지의 지정구역 일부를 낭산 일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경주 낭산을 둘러싼 도로를 추가로 낭산 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주 낭산 일원(慶州 狼山 一圓)의 일체화된 구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으로 **경주 낭산 일원(慶州 狼山 一圓)**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주는 동쪽의 토함산, 서쪽의 선도산, 남쪽의 남산과 북쪽의 소금강산이 있고, 중앙부에는 낭산이 위치하여 분지로 형성된 모습이다. 이중 사천왕사가 위치한 낭산은 해발 113.1m의 남·북으로 길고 낮은 작은 구릉들이 연속된 모습의 산으로, 북쪽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고 중앙 그리고 남쪽 순으로 낮아지는 모습이다. 남쪽 구릉 위에는 선덕여왕릉이 위치하며 그 아래쪽에는 사천왕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 이러한 낭산은 예부터 신령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신라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전불칠처가람¹⁾에 대한 인식이 성립하면서 사천왕사가 옛 숲 ‘신유림神遊林’이 위치한 곳에 창건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실성이사금 12년(413) 가을 8월에 “낭산에 구름이 피어올라 누각처럼 보였고, 향기가 퍼져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왕이, 이는 틀림없이 신선이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응당 복스러운 땅이라고 하여, 그 후로 이곳에서 별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²⁾라고 하여, 낭산의 신령함을 기록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경주 낭산 일원은 신라 초기 오악 중 중악으로 누에고치처럼 남북으로 길게 누워

1) 신라의 국토를 불국토로 생각하게 되면서 삼국시대에 건립된 초기 사찰들을 ‘전불칠처가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 승려 아도의 어머니가 아도에게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서울에는 일곱 곳의 절터가 있다. 첫째는 금교金橋 동쪽의 천경림天鏡林-지금의 흥륜사興輪寺이다. 금교는 서천西川의 다리를 말하는데, 세간에서는 송교松橋로 잘못 부르고 있다. [이] 절은 아도가 처음 터를 잡았으나 중간에 폐지되었다. 법흥왕法興王 정미丁未에 이르러 처음 창건되었고, 을묘乙卯(553년)에 크게 공사를 벌여 진흥왕眞興王때 마쳤다.)이요, 둘째는 삼천기(三川岐-지금의 영흥사永興寺이다. 흥륜사와 같은 시기에 창건되었다.)이요, 셋째는 용궁龍宮 남쪽(지금의 황룡사皇龍寺이요, 넷째는 용궁 북쪽 지금의 분황사芬皇寺이요, 다섯째는 사천미沙川尾-지금의 영묘사靈妙寺이다. 선덕왕 을미乙未(635년)에 처음 개창되었다.)이요, 여섯째는 신유림神遊林-지금의 천왕사天王寺이다. 문무왕文武王 기묘己卯(679년)에 개창되었다.)이요, 일곱째는 서청전(婿淸田-지금의 담엄사曇嚴寺)으로서 모두 전불前佛시대의 절터이며...

『三國遺事』 卷 第三 興法 第三 阿道基羅

2) 『三國史記』 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實聖尼師今 十二年 秋八月.

낮은 구릉을 이루는 산이다. 옛 기록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제사나 행사를 행하던 장소였으며, 신기한 자연현상 등이 목격되었고, 불교사상 중 도리천이라 불리었다고 수록되어 있다. 낭산에는 선덕여왕의 유언에 따라 능이 축조되어져 있으며, 문무왕의 화장터로 여겨지는 능지탑지, 바위에 부처를 새긴 낭산 삼존마애불, 황복사지 삼층석탑 등 신라시대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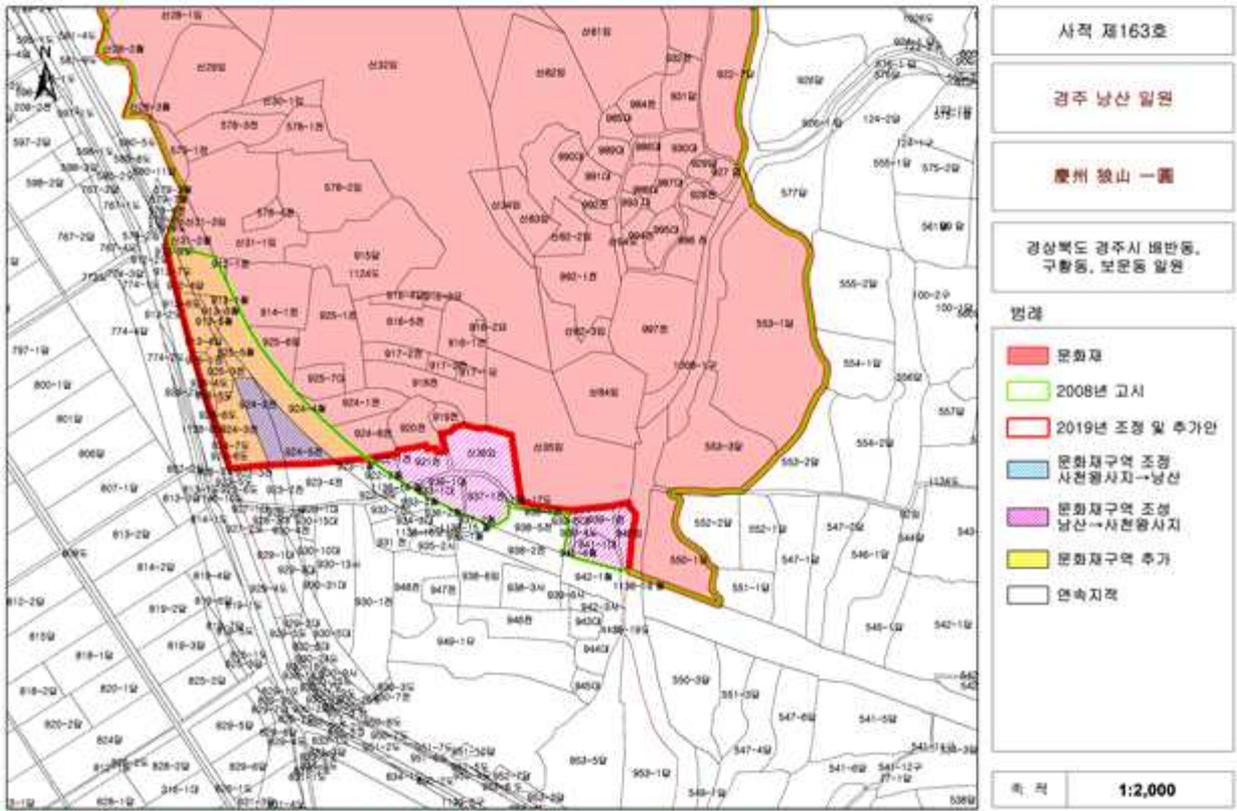
-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의 문화재구역은 2008년에 575필지(지적: 928,418㎡/지정: 909,854㎡)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사천왕사지의 사역과 지적 상 혼잡 및 사적의 범위 등의 문제로 재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변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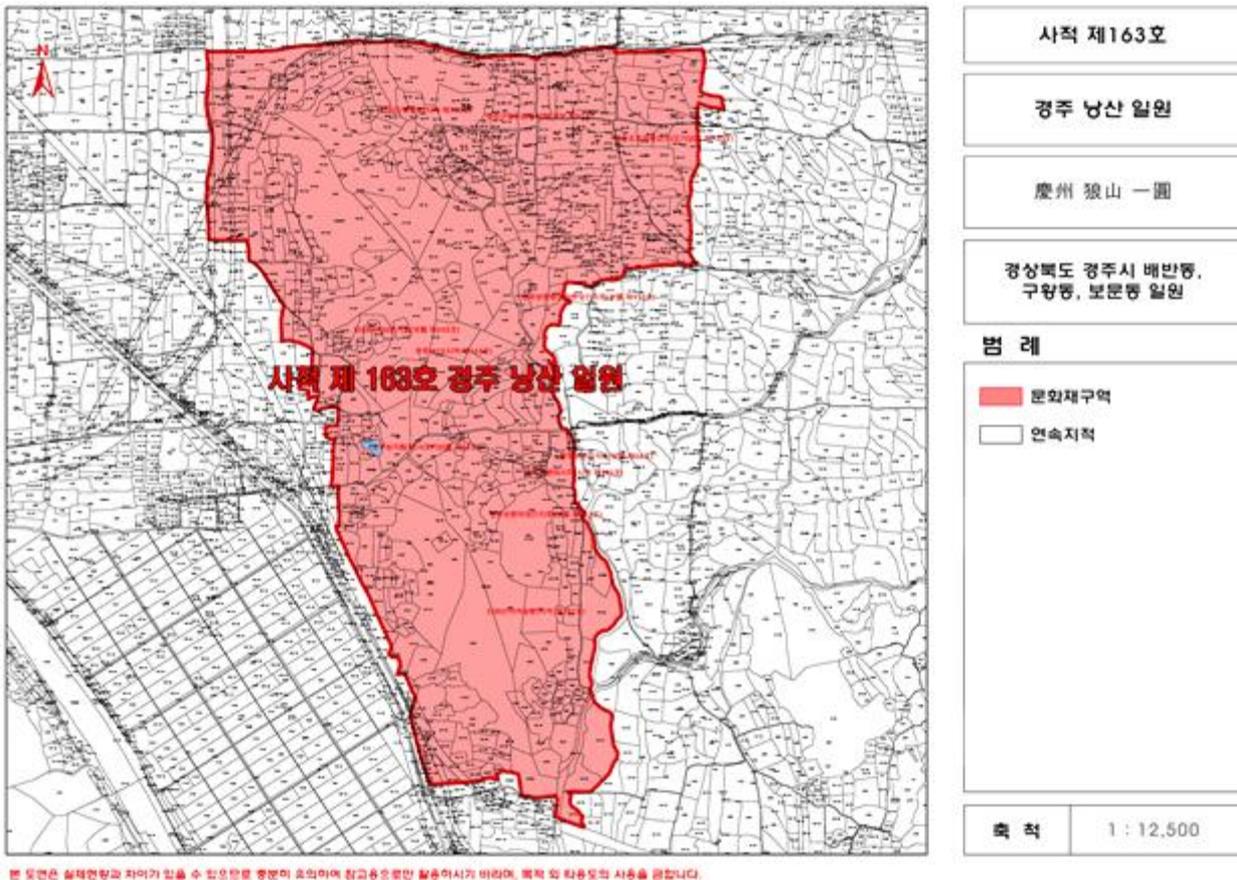
연도	구분	문화재구역 면적	문화재구역 면적 변동사항	비고
2008년 ~ 현재		- 575필지(지적: 928,418㎡/지정: 909,854㎡)		
조정 및 추가 내용		- 588필지(지적: 934,758㎡/지정: 916,194㎡)	- 2필지(지적/지정: 1,318㎡) 사천왕사지→낭산	조정 및 추가 (증가)
		- 576필지(지적: 930,456㎡/지정: 911,892㎡)	- 11필지(지적/지정: 5,022㎡) 낭산→사천왕사지	조정 (감소)
		총: 576필지(지적: 930,456㎡/지정: 911,89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영향 범위의 변동은 없음.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변동사항 모식도



경주 낭산의 지정구역 조정 후 지적도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보호구역)

- 추가지정 면적: 2 필지/1,318㎡ + 연접 철도부지 추가 지정면적: 11필지 5,022㎡
- 해제 면적: 12 필지/4,302㎡

가. 문화재구역

1) 신청개요

연번	문화재명(종별)	신청지	면적		소유자
			추가	조정	
1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제8호)	경주시 배반동 922-2 외	3,694㎡ (16필지)	낭산 → 사천왕사지	국유 및 사유
				4,302㎡(12필지)	
2	경주 낭산 일원 (사적 제163호)	경주시 배반동 912-4 외	5,022㎡ (11필지)	사천왕사지 → 낭산	국유 및 사유
				1,318㎡(2필지)	

2) 사적 추가지정 및 조정 세부내역

- 경주 낭산 일원 : 증 6,340㎡, 감 4,30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비고
						소유자	주소	
추가면적(11필지)				5,022	5,022			
1	배반동	912-4	답	182	182			추가
2	배반동	912-9	도	16	16			추가
3	배반동	913-1	철	73	73			추가
4	배반동	913-3	철	112	112			추가
5	배반동	913-4	답	456	456			추가
6	배반동	913-5	철	79	79			추가
7	배반동	924-3	전	929	929			추가
8	배반동	924-4	철	2,369	2,369			추가
9	배반동	925-3	전	360	360			추가
10	배반동	925-5	철	205	205			추가
11	배반동	926-1	전	241	241			추가
조정면적(2필지)				1,318	1,318	사천왕사지 → 낭산		
564	배반동	924-2	전	664	664			조정
565	배반동	924-5	전	654	654			조정
조정면적(12필지)				4,302	4,302	낭산 → 사천왕사지		
1	배반동	921	전	536	536			조정
2	배반동	922-1	전	172	172			조정
3	배반동	933-1	대	40	40			조정
4	배반동	936-1	대	390	390			조정
5	배반동	937-1	전	618	618			조정
6	배반동	939-1	전	370	370			조정
7	배반동	939-4	도	63	63			조정
8	배반동	940	임	268	268			조정
9	배반동	941-1	대	420	420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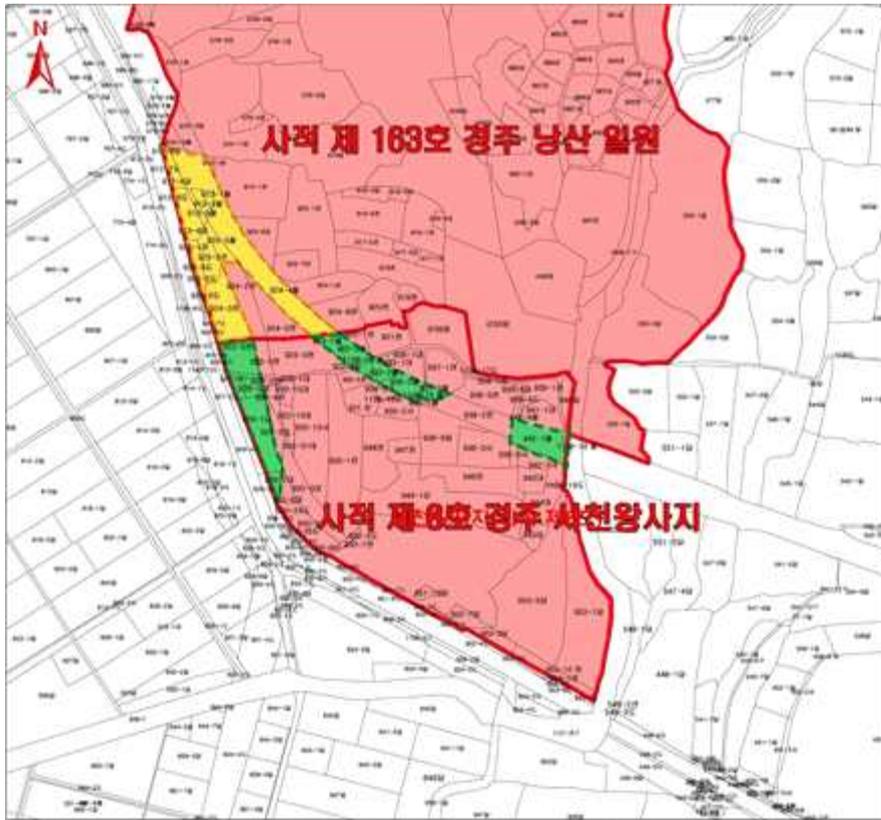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구분		비고
						소유자	주소	
10	배반동	941-4	철	7	7			조정
11	배반동	산36	임	893	893			조정
12	배반동	1138-1	도	525	525			조정

경주 사천왕사지 및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_위성사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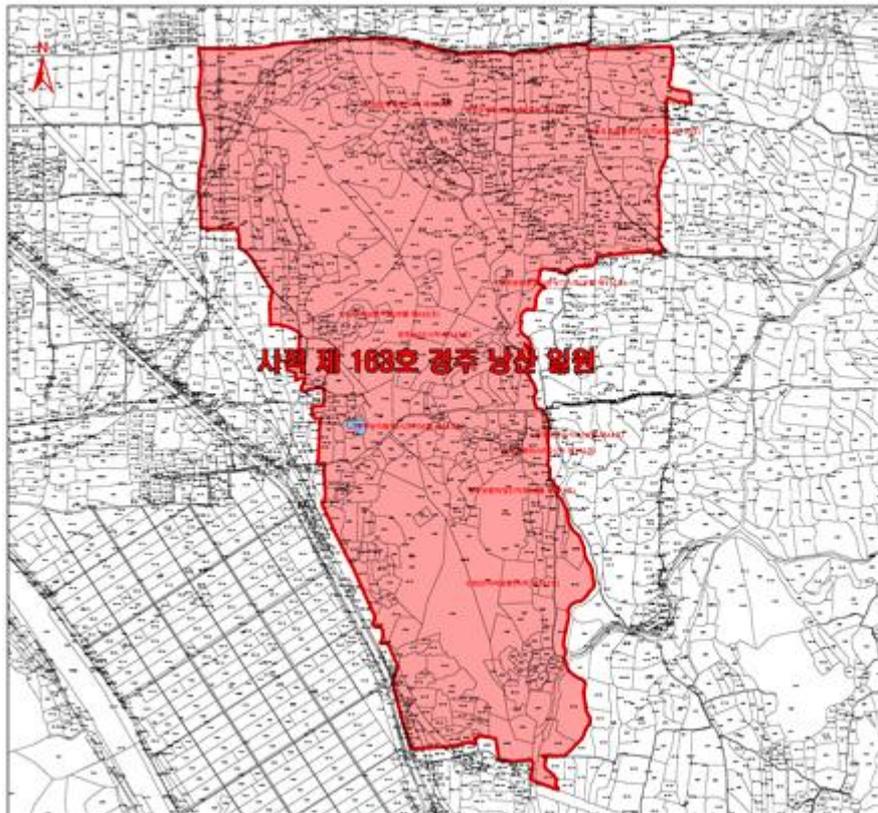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맹목이 사용하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경주 사천왕사지 및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추가_지적도(확대)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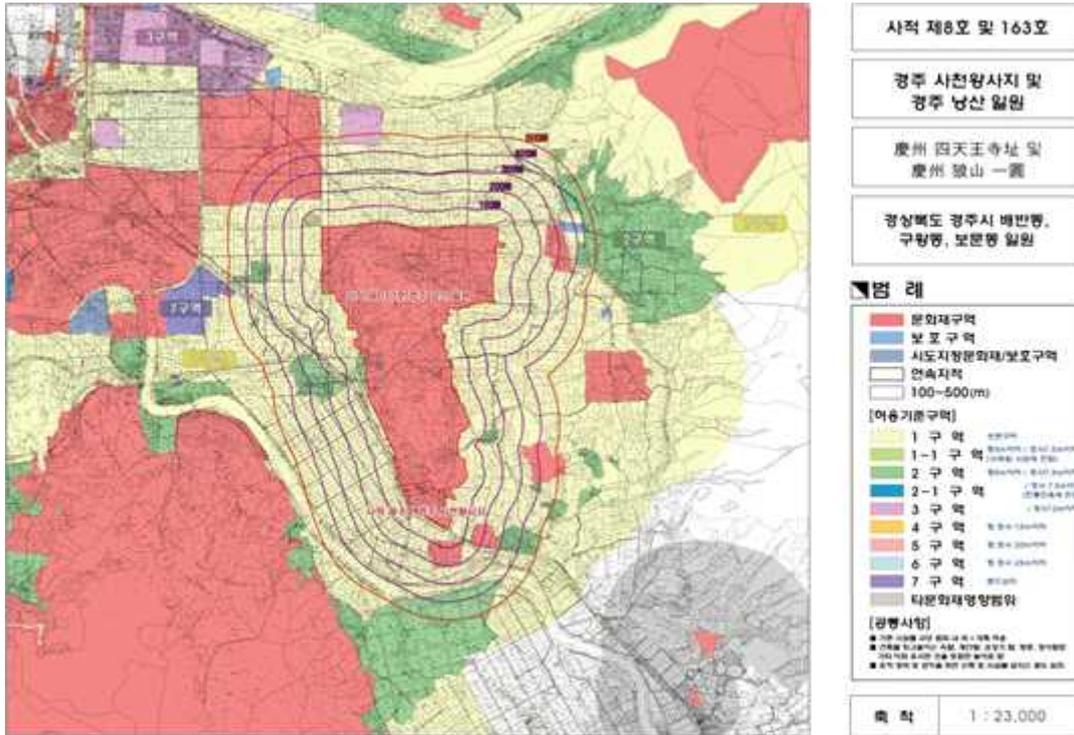
사적 제 163호 경주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고시 도면(조정 및 추가_안)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도심화 된 곳으로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1-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향후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9. 종합의견

○ 경주 낭산 일원은 2006년부터 시작된 경주 사천왕사지의 발굴조사와 동해남부선의 2020년 폐선 결정에 따라 강당지가 연결되는 북측과 남측의 도로 안쪽을 사천왕사

지에 편입하고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중 사역 밖을 낭산의 문화재 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타당한 조정으로 판단됨.

6.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곤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1992.03.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일원
- (3) 신청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4번지 등 4필지
 - 내용
 - 보호구역 지정 : 4필지 94,688㎡
 - ※ 문화재지정구역4필지 1,572㎡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봉분이 위치한 문화재지정구역은 정비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주변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진입로가 모두 사유지임에 따라 통행에 제한이 많고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장도 없어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수리 및 복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14명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06.05.(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지정구역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강화 곤릉(江華 坤陵) 문화재보호구역

3.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강화 곤릉은 고려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 유씨(?~1239)의 능으로 진강산 남쪽 능선에 위치하며 횡혈식 석실분으로 전체적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려시대 강도시기 강화와 관련이 있었던 왕과 왕비 중 희종릉(강화 석릉, 사적 제369호), 고종릉(강화 홍릉, 사적 제224호), 원덕태후릉(강화 가릉, 사적 제370호), 강화능내리석실분(시 기념물 제28호)이 강화에 축조되어 있다.
- 주변은 모두 임야로 개경에 위치한 고려 왕릉에 비해서는 소박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강화나들길이 조성되어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고려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 유씨(?~1239)는 고종 26년(1239)에 승하한 후 원덕태후로 추존되었으며 이듬해인 1240년에는 정강(貞康)이란 시호가 추가되었다.
- 봉분과 석축, 곡장은 붕괴되어 폐허가 된 것을 1974년 보수하였으며 석조물은 모두 없어지고 묘표만 남아 있다. 봉분 뒤에 곡장 대신 토담을 둘러쌓아 놓았고 그 안에 원형 봉분이 있으며 봉분 하단에 돌레돌이 일부 복원되어 있다.
-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24m, 동서너비 19.6m이며 석실 내부에 관대를 설치하고 대형 문비석을 이용하여 석실을 막았으며 전면 묘도부는 할석을 채워 폐쇄하였다.
-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2007년 정비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1단에는 봉분과 석실, 2단과 3단에는 정자각이 있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강화 곤릉 발굴조사 결과 고급 청자류와 금속류, 기와 등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 망주석, 난간석, 석인상 등의 부재가 다수 확인되어 고려시대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 고려 왕릉의 대부분이 개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 있는 왕릉으로 고고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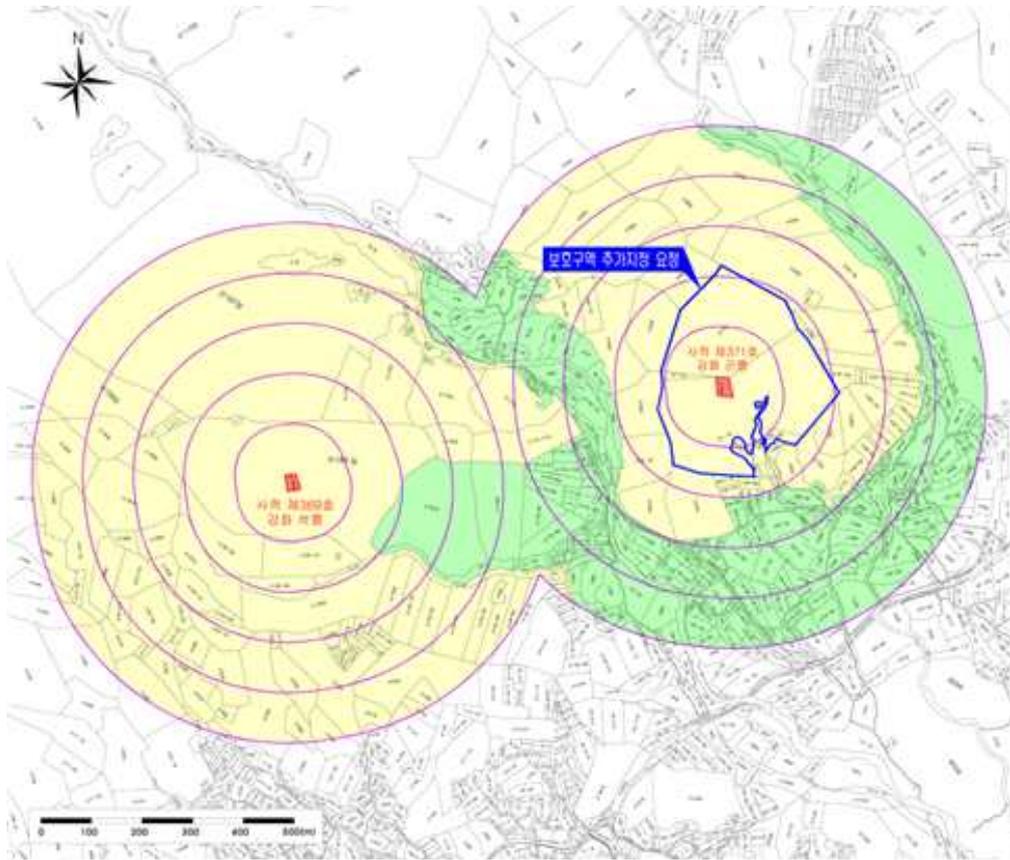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 『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燈錄)』에 조선 현종대 강화유수 조복양에 의해 정비되었으며 이후 숙종1년(1675)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곤릉은 능의 형태만 겨우 남아있으며 정자각터는 전과 다름없었다고 전한다. 『고종실록』에는 고종4년(1867)에 고려 왕릉 57기의 능을 봉축하고 묘표석을 세우면서 곤릉 역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추가 지정 면적 : 4필지 / 94,688㎡

연번	주소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지정구역 (㎡, 기존)	보호구역 (㎡, 추가)
1	양도면 길정리 산75	임야	1,091		1,091	-
2	양도면 길정리 산74	임야	37,125		231	36,894
3	양도면 길정리 231-1	임야	55,340		242	55,098
4	양도면 길정리 231-2	임야	1,761		-	1,761
5	양도면 길정리 231-3	임야	943		8	935
	소계		96,260		1,572	94,688
	총계				96,260	



□ 위성사진 및 도시계획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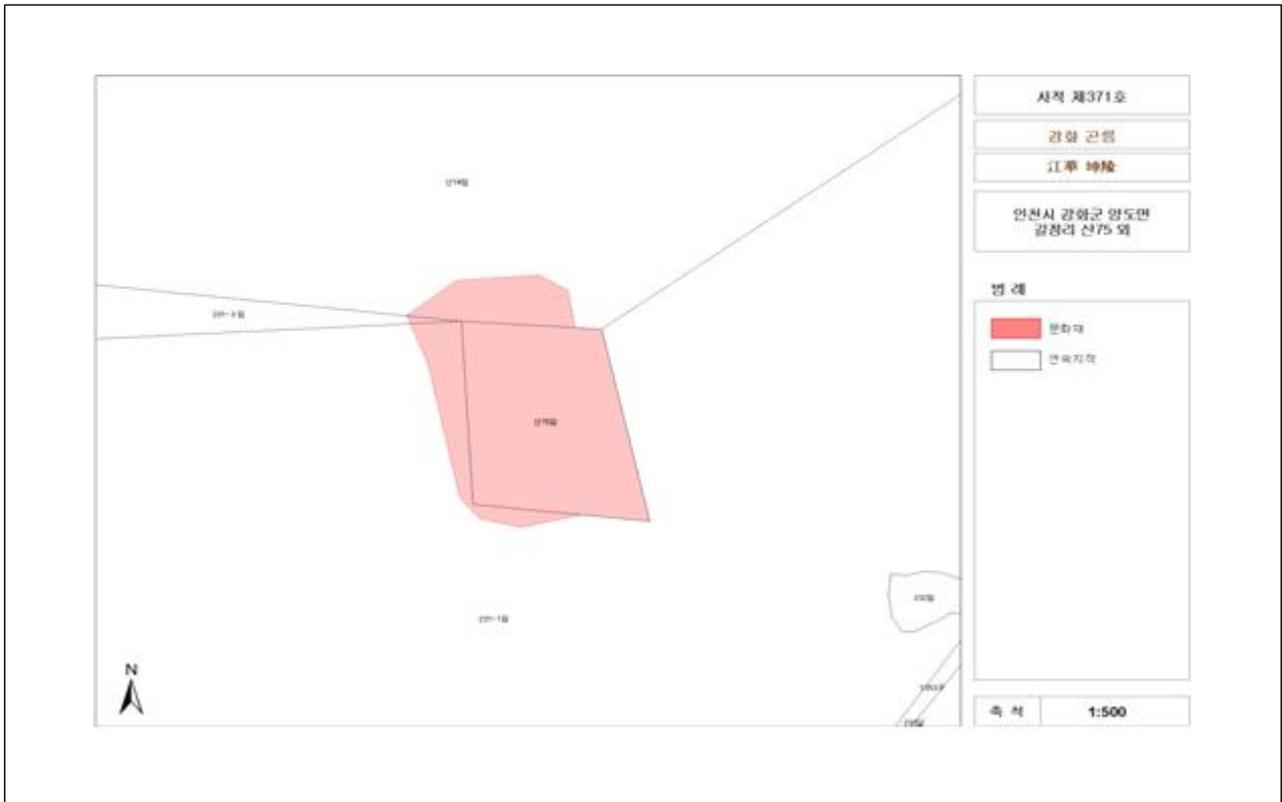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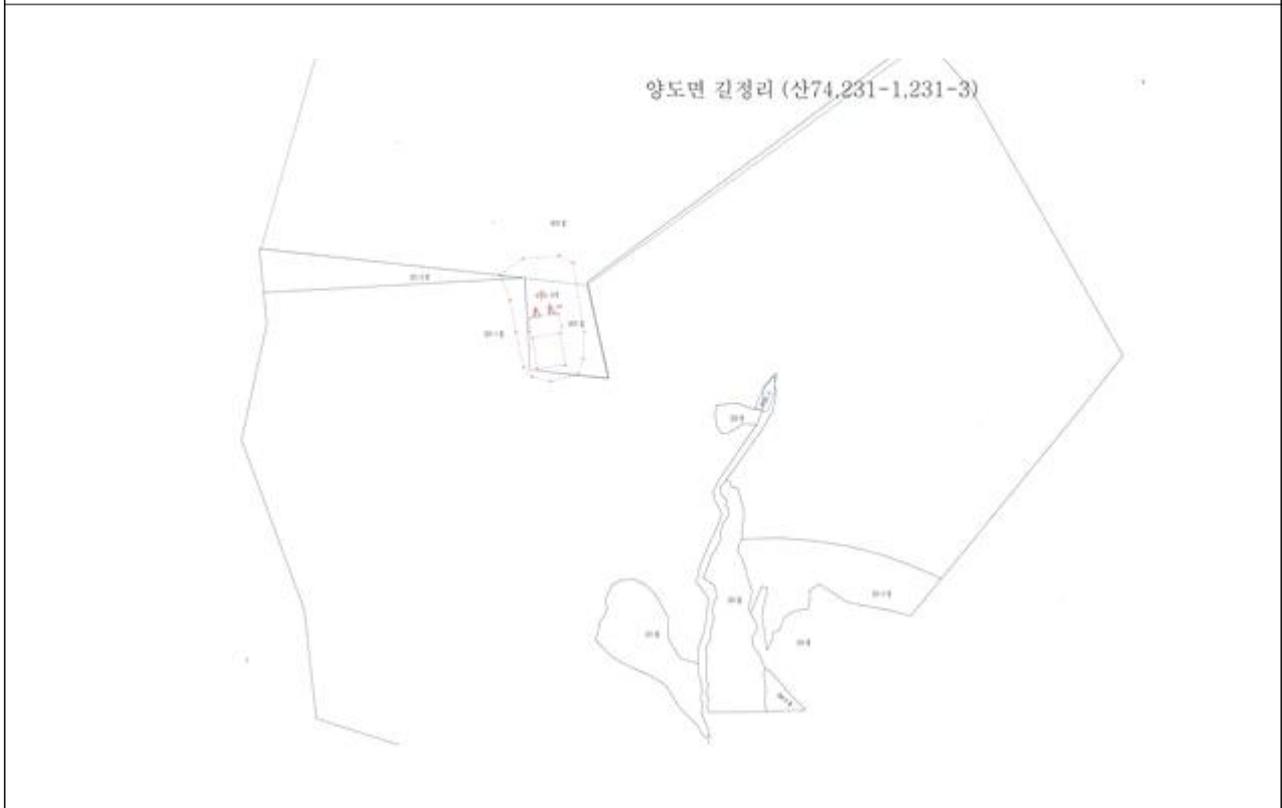


도시계획 현황도

□ 문화재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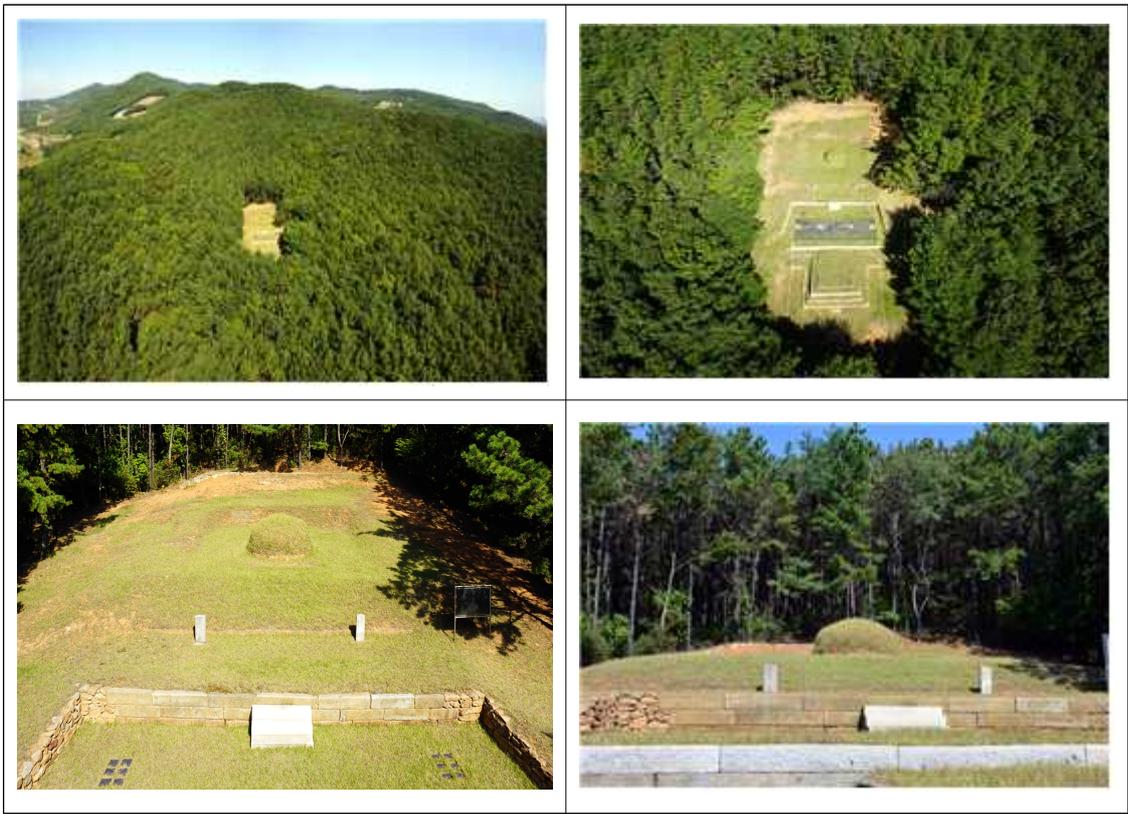


문화재지정구역도



문화재지정구역 현황측량

□ 문화재 사진



□ 발굴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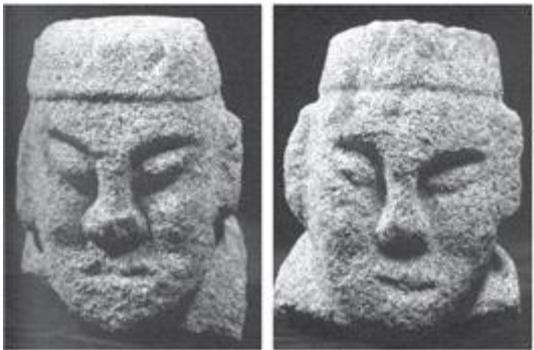




문비석 제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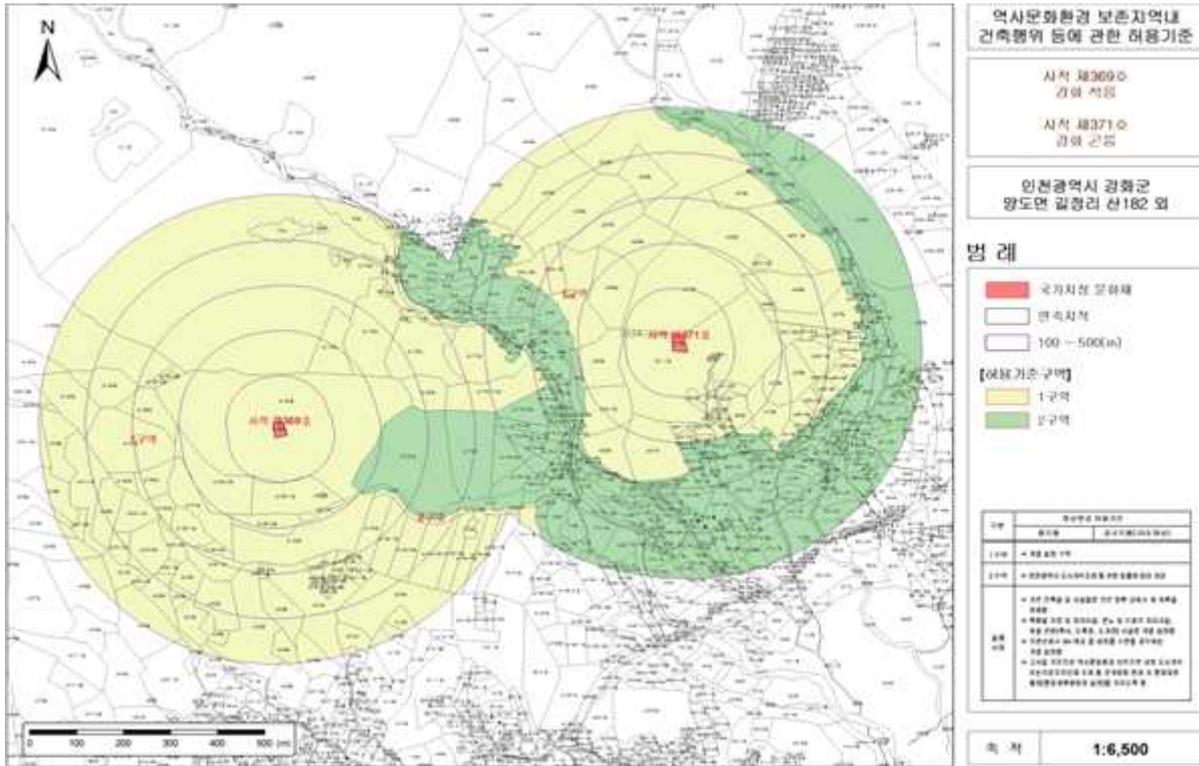
석실 북·동벽



출토유물 사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검토의견 : 현재 강화 곤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고분 내·외부에 설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되었음.
- 금회 건은 문화재지정구역은 변동이 없으며,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도 변동사항 없음.



8. 보존 정비 및 활용 계획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주변 경관확보를 위해 『강화고려왕릉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연차별 보수 정비 및 학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
-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등을 통해 진입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편리한 관람시설을 제공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9. 종합 의견

-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건은 기존 문화재지정구역과 인접한 임야지형으로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 강화 곤릉은 문화재지정구역만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보수공사나 주변 정비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진입로가 사유지로 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관람객의 방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번에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고려왕릉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7. 대구 불로동 고분군 봉분 정비 검토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고분군 봉분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 국고보조사업을 시행 중인 대구 불로동 고분군 시굴 및 고분군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제262호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봉분 정비 검토>
 - 위치 : 대구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조사대상
 - 시굴조사 : 봉분 7기(238, 239, 241, 246, 247, 248, 250호분)
 - 조사면적 : 2,392m²
 - 봉분정비 : 봉분 4기(238, 239, 250, 273('18발굴)호분)

고분번호	위치	면적
238호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 135번지 일원	196m ²
239호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36-1번지 일원	144m ²
241호분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산33번지 일원	961m ²
246호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220-4번지	169m ²
247호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220-4번지	144m ²
248·250호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145-1번지 일원	778m ²
		2,392m ²

라. 참고자료

(1) 자문의견서('20.06.11./○○○, ○○○ 교수)

- 대구 불로동 고분군 사적지 내 4개 - 238, 239, 250호분(금회 발굴), 273호분(2018년도 발굴) - 고분의 봉분정비가 필요함
- 발굴(시굴) 조사 보고서의 조사내용 내에 있는 봉분의 기저부 직경, 봉분의 추정 높이를 원칙으로 함
- 273호분의 경우 임시복토부분 제거 및 매시웬스 제거
- 273호분 발굴(시굴)조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봉분의 기저부 및 추정 높이 설정할 것
- 2019년 정비 완료된 274호분, 275호분의 봉분정비 사례 참고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봉분의 높이는 80% 수준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원안가결 3명, 조건부가결 11명

8. 아차산성 배수구 일대 보수공사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배수구 일대 보수공사 설계(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차산성의 배수체계 개선을 통하여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배수구 일대 보수공사 실시설계(안)을 검토 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4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배수구 정비를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
- 2015~18년 : 남벽 및 배수구 일대 발굴조사 진행
- 2019~20년 : 실시설계 용역 진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 1973.05.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로 117(광장동)
- (3) 주요내용<아차산성 배수구 일대 보수공사 실시설계(안) 검토>
 - 남벽 수구지 주변 월류(Overflow) 도수로 정비(L=8.0m, W=5.7m)
 - 성곽 하부 배수로 정비 (L=15m, W=6m)
 - 성벽 면석 드잡이(4.19m²) 및 성벽 및 보축부 보수(L=40m)
 - 배수구 서편 성벽 상부 적심 고르기 및 정비
 - 배수구 동편 성벽 범면 복토 및 녹화 처리 등
- (4) 사업예산
 - 2020년도 : 350,000천원(국비 245,000천원, 지방비 105,000천원)
- (5) 추진경과
 - 2011년 : 남벽 및 배수로 긴급보수공사
 - 2013년 :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15~18년 : 남벽 일대 발굴조사
 - 2019~20년 : 실시설계 용역

라. 참고사항

(1) 실시설계 기술지도의견(1차)

○ 문화재전문위원 ○○○, ○○○('19.12.19.)

- 수구지 배수시설은 유량이 많고, 집수시설 복구가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성벽 상부로 월류(Overflow)하되, 성내에서 출토된 유구의 형태로 도수 시설을 설치하여 배수를 유도함.
- 성벽은 외벽의 보축 상부 일부를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부는 복토, 체성 벽은 적심의 유실을 방지하는 정도로 보충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 보충면석은 채집 석재와 적심을 사용하여 설치토록 함.

(2) 실시설계 기술지도의견(2차)

○ 문화재전문위원 ○○○, ○○○('20.03.10.)

- 배수로 정비는 월류(Overflow) 방식을 채택하되 가급적 인공적인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함. 현대식 배수로 설치하는 유구 해체 범위가 넓고 향후 흙관이 막힐 우려가 있는 등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성벽상부 배수 마감 : 배수로 양측 석축은 인위적인 형태로 쌓지 말고 적심을 노출시켜 축조함. 적심은 북돌과 같은 작은 돌을 사용하고, 짧은 것과 긴 것을 교차해서 사용
- 성벽 하부 배수 마감 : 낙부 받이 부분은 보축을 제대로 설치하여 처리함. 사부 배수로 구간은 토사 정리 후 야자매트를 깔아 유구의 유실을 방지하고, 큰 돌의 자중으로 야자매트를 고정하도록 함.
- 성벽 정비 : 면석의 해체 정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면석 보충 높이는 하부의 기존 유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낮추도록 함. 인공적인 느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유구의 모습을 유지토록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9.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내 경관조명 설치 검토

가. 제안사항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사적 제434호 「부여 능산리 사지」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능산리 사지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0년 6차 위원회('20.06.10.)에서 '경관조명 수량 등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부여 능산리 사지(사적 제434호 / 2001.09.29.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일원, 산1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명 설치>
 - 위치 :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부여 능산리 사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형태	세부 규격	수량(개)		증감	비고
		당초	금회		
합 계		317	213	감 104	
블라드(H750)	LED 7W/3,000K	12	12	-	
블라드(H550)	LED 7W/3,000K	112	79	감 33	중간 탐방로 삭제
경내 보안등	LED 60W/3,000K	13	13	-	
주차장 보안등	LED 70W/4,000K	7	7	-	
유도등	LED 6W/3,000K	23	23	-	
	LED 10W/3,000K	17	-	감 17	사지 앞 탐방로 삭제

형태	세부 규격	수량(개)		증감	비고
		당초	금회		
고분조명	LED 48W/3,000K	11	11	-	
절터 스텝등	LED 4W/3,000K	30	30	-	
투광등	LED 60W/3,000K	2	2	-	
수목조명	LED 12W/3,000K	49	10	감 39	잔디광장 최소화
벤치 간접조명	LED 14W/3,000K	17	2	감 15	잔디광장 최소화
아트센터 앞 보행등	LED 8W/3,000K	24	24	-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0.06.0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사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함
-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이 75cm의 볼라드는 크기가 지나친 감이 있으므로, 볼라드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능산리 사지의 경우, 조명이 너무 과다함. 방문객 유도 조명 이외의 조명을 최소화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볼라드 매립 시 유적 훼손이 없도록 주의할 것(관계 전문가의 참관 하에 터파기 진행할 것)
- 볼라드의 크기와 디자인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10. 경주 월성 해자 용수공급 및 주변정비 계획(실시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해자 정비·재현에 관한 용수공급 및 주변정비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중인 경주 월성해자 정비·재현사업과 관련하여 용수 공급 및 주변정비 계획(실시설계)을 수립하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18년 6차 위원회('18.06.20.)에서 '유구보존 및 고증연구를 통한 담수해자 재현'에 대해 조건부가결(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칠 것)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일원
- (3) 신청내용<해자 용수공급 및 주변 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일원(문화재구역)
 - 용수공급(안) : 농업용수와 지하수개발안을 병행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순환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구 분	1안(남천 복류수)	2안(북천 복류수)	3안(농업용수)	4안(지하수 개발)
취수원 위치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근거리
수 량	안정적	부족	안정적(4~9월)	3개소(10~3월)
수 질	녹조발생	양호	양호	가장 양호
공사비(예상)	844백만원	1,389백만원	46백만원	569백만원
검토(안)			√(주된 수원)	√(보조 수원)

○ 주변정비(안) : 수목식재 확대, 경관조명 설치로 휴게공간 조성

내용	1안	2안
수목식재	감나무(기존) 1주, 은행나무(기존) 5주 왕버들나무 3주	감나무(기존) 1주, 은행나무(기존) 5주 왕버들나무 28주
경관조명 등	기둥형(30m) 20개 경관형(10m) 38개 벤치형 8개, 투광형(20m) 24개 벤치 7개소	기둥형(30m) 20개 경관형(10m) 38개 벤치형 8개, 투광형(20m) 24개 벤치 9개소
사면길이 연장	1-2호해자 경사도 5.74% 2호해자 경사도 3.73% 3호해자 경사도 9.53%	1-2호해자 경사도 <u>5.03%</u> 2호해자 경사도 <u>2.17%</u> 3호해자 경사도 <u>5.68%</u>
발굴유물 전시	와편 등	좌동
검토(안)		√

(4) 신청인 의견

- 월성해자 정비·재현사업은 해자의 담수를 목적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용수공급 타당성 조사결과 해자에 공급되는 용수는 기존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질과 수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 월성해자 주변정비는 해자 주변을 정비하여 월성과 해자가 하나 되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옛 신라의 경관을 회복하고 사적지에 대한 탐방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

○ 용수공급 관련

- (○○○ 위원/'20.06.01.)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하수 타공의 위치와 수량은 차후 검토가 필요함.
- (○○○ 위원/'20.06.01.) 대체로 계획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각 해자별로 자연스러운 단차에 의해 담수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해자 수면 상층부 물만 순환되면 담수가 오염 등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자 상하층수가 보다 넓게 순환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해자 호안석축 기저부는 담수의 증감 등 여러 요인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여타의 해자 바닥면보다 더욱 견고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용수공급은 오염정도, 취수거리 등을 감안할 때 1안(남천 복류수), 2안(북천 복류수)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하수 사용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가능

○ 주변정비 관련

- (○○○ 위원, ○○○ 위원/'19.11.18.) 월성해자 주변조경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임. 조명은 해자조명과 월성시설 조명을 통합하여 설치 개소를 최소화. 보행로 조명은 벤치형 조명으로 통합하여 개수를 줄이고 기능 다각화 도모(필요시 pole 조명 적극 활용을 통해 개수 최소화 방안 모색), 주변 식재와 쉼터공간을 중심으로 바닥도장, 식재 등을 활용하여 면 조경을 시행하고 작은 식재공간들이 너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2곳 정도의 쉼터공간 주변 조경 확장 보강), 사면 복토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 위원/'20.02.17.) 본 사업은 월성해자 주변 조경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인 바, 先 해자담수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조경, 조명 사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자 용수에 대한 정밀계획(용수량, 유속, 배수등)이 먼저 수립된 후 해자주변 경관계획이 이루어지면 경관상 매우 큰 효과를 이룰 것이라 판단됨.
- (○○○ 위원/'20.02.18.) 해자공간-해자와 산책로 사이공간-산책로-배후 녹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조경 구조를 계획한 후에 식재/휴식공간/시설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방문객(사용자) 행태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추진
- (○○○ 위원/'20.06.01.) 사면부 복토는 최대한 폭을 넓게 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탐방로 광장에 식재되는 나무는 원지반에 영향이 없도록 천근성 수종을 고려함이 타당함. 월성 쪽 경관조명은 성토 부위에 설치하고 눈에 띄지 않는 라인형 LED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보안등은 지주가 얇고 장식 없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설치함이 타당함. 보행등은 단순한 낮은 기둥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벤치 등은 해자별로 1개 정도가 적합함.
- (○○○ 위원/'20.06.01.) 사업구역이 성곽유적인 월성의 지근거리 지점이므로 성벽 관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나 식수는 최소화하고 특히

해자를 통해 성벽이 직접 목도되는 지점은 시설물 배치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경관조명은 최소화하되 낮은 조명등을 사용하고 성벽 조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둥형 조명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해자 연접부 복토에 따른 경사도 완화조절을 위한 부분적인 복토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20.06.03.) 조경을 위한 식재의 선정과 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조명계획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며 투광조명에서는 월성 성벽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한 직접적 조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구의 복토과정에서 발생한 급경사를 해소하기 위한 완만한 대지 조성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해당 지형의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20.06.18.) 월성 측면이 아닌 해자 측면에는 왕버들을 6~8m 간격으로 심어 녹도를 조성한다. 쉼터 조성은 원안(제시안)대로 시행한다. 포장은 제시안대로 황토 포장으로 한다. 조명은 조명등을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사용하되 제시된 안대로 설치한다.
- (○○○ 위원/'20.06.23.) 수변 산책로는 인위적 담장보다는 선형, 폭원 조정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휴식공간을 형성하고, 휴식공간 주변으로 식재를 계획. 조명시설은 너무 다양한 형태를 보다 단순화시키고 숲조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산책로 기본폭원은 현 3m를 기준으로 선형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조정하되 일부 지선이 필요한 경우 1.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III. 報告事項

안건번호 사적 2020-07-037

1.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안) 보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에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목 관아 내의 관리동 건물이 노후화되어 문화재적 경관 복원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 1993.03.31 지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30-1번지 등 52필지
- (3) 신청내용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30-1 번지 등 10필지
 - 사업내용 :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
 -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적정부지 선정
 - 현 관리사무소는 노후한 5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경관저해로 인해 철거 필요
 - 편익비용,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에서 현 관리사무소 위치가 사업 타당성 확보
 - 신축 기본계획(안) 마련
 - 지상·지하 각 1층(연면적 약 1,616m²) 규모로 계획
 - 사업예산 : 100,000천원
 - 2019년도 : 100,000천원(국비 70,000천원, 지방비 30,000천원)

라. 참고사항

(1) 추진경위

- 관리센터 신축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착수 : 2019. 8. 5
- 1차 자문회의 개최 : 2019. 11. 5
- 실무 검토회의 개최 : 2019. 12. 27
- 2차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 : 2020. 1. 20
- 조사연구 용역 최종 결과 제출 : 2020. 3. 2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현장점검 자문의견('20.07.0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제주목 관아 내 관리센터가 노후되어 철거하고 재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 관리센터는 5층 규모로 경관, 노후도에 따라 철거하는 것이 적절함
 - 신축 위치에 대하여는 구 시청자리와 현 위치가 검토되었으나, 현 관리센터가 현실적으로 적절하며, 규모와 건축형태 등은 관계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조사연구 용역 수행결과 요약

- 입지 후보지별 검토 기준 및 평가 결과

구	분	검토 기준				평 점
		개발 용이성	운영 용이성	접근성	역사성	
A	현 관리센터 부지	10	5	5	6	26
B	노인회관 부지	3	6	5	7	21
C	우체국 부지	4	6	6	7	23
D	구 시청 부지	8	5	6	5	24
E	객사터 부지	5	6	5	6	22
F	주차장 부지	2	2	4	3	11
G	북초등학교부지	2	5	5	6	18

- 입지 후보지 중 평점 1순위(A) 및 2순위(D) 부지에 대한 장단점 요약

구 분	장 점	단 점
A 현 관리동 부지 (1,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건물과 연계되는 문화재 관련 전시 전문 수장고 탐라순력도 보존으로 제주 정치의 역사적 상징 장소로서의 정체성 및 진정성 확보 가능 · 현 관리센터는 사적지 경관저해, 노후화로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여 정리 가능 · 또한, 우체국 등 목관아지내 미 정리된 우체국 건물 등의 정비 시발점이 됨 · 사다리형 토지형태로 외부공간과의 개방성이 좋으며 제주목 관아 주요 조망점에서 문화재 배경이 되는 후면 지역으로 경관 연속성이 뛰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출입구는 편도1차선으로 교통 혼잡 · 부지가 협소하여 외부 공간 활용성 및 추후 확장성은 다소 떨어짐 · 향후 객사터 복원까지 고려했을 경우, 목관아지 부지내 동측에 관리센터가 입지할 수 있어 목관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위치, 규모, 층수 등 세부적인 조정 필요
D 구 시청 부지 (2,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면적으로 부지 및 외부공간 활용성, 추후 확장성이 뛰어남 · 4차선 왕복도로와 인접한 출입구로 목관아 자원 외의 인근 원도심 자원과 연계한 행사·프로그램 유치가 용이함 · 향후, 객사터 복원까지 고려한다면 관리센터가 제주목 관아지 범위 밖으로 위치하게 되어 사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덕정 서측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으로 주차장 대안 마련이 별도로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계획 삼도이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이 있으나, 상위의 이유로 인해 주민센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자루형 토지로 1개면이 도로와 인접한 면이 좁아 외부공간과의 개방성이 떨어지고 비정형부지로 가용면적이 줄어들음 ·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가 필수적이어서 대규모 민원발생우려로 사업추진 곤란

○ 입지후보지 중 평점 1순위(A), 2순위(D) 부지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분석 지표	판단기준	산출 결과		타당성 여부 판단 결과	
		A 부지	D 부지	A 부지	D 부지
편익의 현재가치		17,482백만원	17,482백만원		
비용의 현재가치		17,448백만원	23,481백만원		
편익비용비율(B/C Ratio))	$B/C \geq 1$	1.0020	0.7445	타당성 확보	타당성 미확보
순현재가치(NPV)	$NPV > 0$	34백만원	△5,999백만원	타당성 확보	타당성 미확보
내부수익률(IRR)	$IRR \geq r$	4.56%	△0.18%	타당성 확보	타당성 미확보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리센터 건립위치 선정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보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접수 1명

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관리동 및 전시동 등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 보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에 2019년부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등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의 내성지의 성격 규명 등 고고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위치한 순의비, 관리동 미 전시관 등 부대시설을 이전·확장 건립하고자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사적 제396호 / 1997.04.18 지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12번지 등 577필지
- (3) 신청내용<내성지 내 부대시설 이전·확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12번지 등 577필지
 - 사업내용 : 전시관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 이전·확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 이건 건립의 타당성 조사
 - 전시관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이 존치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성지에 대한 시·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실정임.
 - 2012년 기 수립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위 계획과 부합하는 사업임.
 - 이건 부지의 결정
 - 2012년 기 수립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2개 후보지 외 2개 후보지를 추가 검토

- 대지조건, 접근성, 연계성, 환경성 등 종합적인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의한 후보지 평가 및 결정
- 건축 기본계획(안)
 - 옥상부지에서 내성지 및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1동 2층 구조로 기본계획(안) 구성
 - 전시 및 관리시설 비율은 약 30%:70%로 계획(안) 구성
 - 1층 일부를 전시시설로 구성하고 2층을 관리시설로 구성함으로써 전시 시설과 관리시설의 유기적 연계성 향상 계획(안) 구성
- 사업예산 : 110,000천원
 - 2019년도 : 110,000천원(국비 77,000천원, 지방비 33,000천원)

라. 참고사항

(1) 현장점검 자문의견('20.07.0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 관리동 및 전시동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 내성지 내 건물이 있는 곳의 발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시설자체도 노후되어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전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결과 제안된 1안(서측의 도로와 연결한 낮은 부지)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건축 외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는 실시설계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중간보고 자문의견('19.12.18.)

- 향파두리 이전 부지 결정(1안, 내성지 서측)
- (문화재전문위원 신석하) 중간보고는 위치 결정, 최종보고는 계획(안)까지 제시, 전시관을 계획하지만 유적지 우선, 전시관과 유적지 동선 관계 검토, 전시관 규모가 커질 경우 지하층 검토, 우천 시를 고려한 전통 건축의 회랑에 대한 검토
- (제주대학교수 박정근) 입지선정기준 추가 검토, 배치 관련 집중형/분산형에 대한 평가 필요, 각 대안별 블록플랜 검토 필요, 건축계획 이전 전시 콘텐츠 계획 수립, 건축계획은 TEXT위주 개략 수립
- (문화재전문위원 김영관) 건축물 외관이 제주적인 면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개선 필요
- (제주대학교수 전영준) 2안에 노천 전망 데크시설 검토, 토성 및 내성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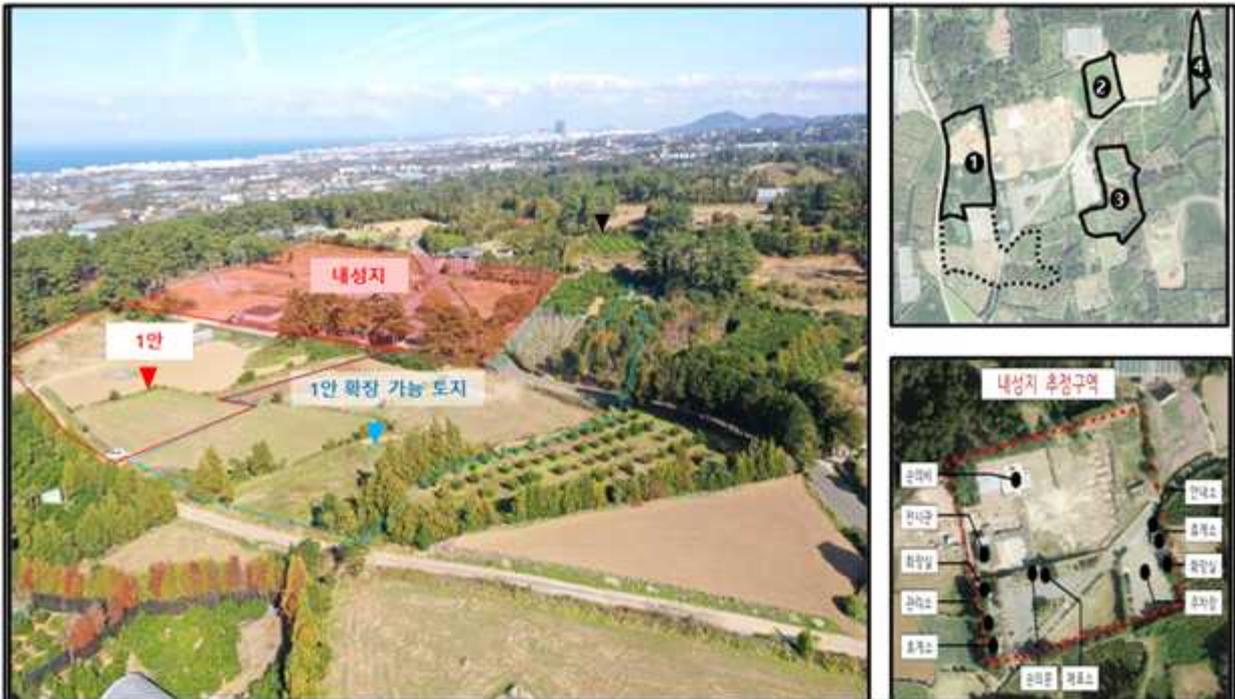
수목 이식 검토

- (제주고고학연구소장 강창화) 향파두리 유적 전시관 부지는 기 발굴이 진행된 부지를 택할 것

(3) 착수보고 자문의견('19.09.06.)

- (문화재전문위원 신석하) 내성과 전시관을 고려한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
- (제주대학교수 전영준) 내성 조망이 가능한 위치로 옮기는 것이 타당, 내성 도로 이설 및 소나무 군락 이식
- (문화재전문위원 김영관) 향파두리성 내성의 경관을 직접 조망하면서 자연 경관과 조화 필요
- (제주고고학연구소장 강창화) 건물의 배치와 동선계획 등의 도면 제시 필요, 면적과 배치를 고려한 입지 선정
- (제주대학교수 박정근) 대상지 선정기준 검토·보완, 방문객 증대방안 검토, 부지면적 적정성 검토

(4)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 건립 부지(안)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접수 14명

3. 남원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 보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 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1단계 공사인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임
- 기념관(1980년, 129㎡), 관리사무소(1977년, 133㎡) 등 주요시설이 노후·협소하고 전시·활용 콘텐츠 및 편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개선필요

※ 추진현황

- '16. 5. 10. :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전라북도 → 문화재청)
- '17. 9. 28.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완료
- '20. 2. 25.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 설계공모 발주
- '20. 5. 6.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 설계용역 착수
- '20. 5월 ~ 6월 : 설계용역 자문회의 시행 (3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남원 만인의총(사적 제272호 / 1981.04.01. 지정)
 - 소재지: 전북 남원시 만인로 3
- (3) 보고내용<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
 - 위치: 전북 남원시 만인로 3(문화재구역, 보호구역)
 - 내용: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

구 분	내 용
대지현황	남원시 향교동 681번지의 2필지 (21,976㎡)
건물면적	연면적 2,409.84㎡/ 건축면적 1,442.18㎡
기 념 관	연면적 1,891.44㎡/ 지상 2층/ 높이 10.8m
관 리 사 무 소	연면적 518.4㎡/ 지상 1층/ 높이 3.9m

※ '20년 실시설계 완료, '21년 공사착수 예정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0.05.21./문화재위원 ○○○, ○○○, 보존정책과 ○○○)

- 전체 마스터플랜을 고려하여 건물을 포함한 배치계획 요구됨
- 중앙광장은 주변 및 만인의총 개념이 고려되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진입광장은 진입동선과 광장 및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
- 기념관은 순의탑과 연지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열려있도록 계획

(2) 자문의견('20.06.03./문화재위원 ○○○, ○○○)

- 기념관은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만인의총 출입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차공간은 의총 및 기념관으로 접근을 고려하여 계획
- 기념관 등 신축건물의 동선 및 용도 등을 건물동수 및 매스와 연계하여 계획

(3) 자문의견('20.06.26./문화재위원 ○○○, ○○○, 보존정책과 ○○○)

- 제시된 계획내용의 전시관 프로그램 및 건물형상 등은 적절함
- 기념관의 남측 및 서측 광장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건물위치 조정 필요
- 연지위치와 형상은 금회 자문내용을 수정·반영할 계획안에서 조정 필요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제30호분 발굴조사 및 공공기준점 설치 보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내 제30호분 발굴조사 및 공공기준점 설치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제30호분 발굴조사 및 공공기준점 설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 / 2018.03.28. 지정)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746-1, 아영면 두락리 687-4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제30호분 발굴조사 및 공공기준점 설치>
 - 위치 : 전북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687-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조사대상
 - 발굴조사 : 봉분 1기(30호분)
 - 조사면적 : 1,600m²
 - 공공기준점 측량 및 설치(세 개 지점)

라. 참고자료

- (1) 자문의견('20.06.25.~6.26./○○○, ○○○, ○○○, ○○○ 교수)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현재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대상 중 하나로 가야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요한 유적이며, 30호분은 조사성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유구로 생각됨
 - 발굴조사는 4분법을 기본으로 층위를 파악하고 평면조사를 통해 봉분과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축조과정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호남지역 가야 고분은 영남과는 달리 호석이 없으며 일부 고분에서 주구가

확인되는 지역적 특징이 있어, 트렌치 조사시 구획을 길게 하여 봉분의 바깥부분에서 주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0호분의 경우 상면이 경작으로 인해 평탄화되어 훼손되었는데, 발굴조사 후 봉분의 원상복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실험고고학적 관점에서 축조의 역순으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재현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기초사된 수혈식 석곽묘인 32호분과 횡혈식 석실묘인 36호분을 참고하면 봉분 축조시 구간을 나누어 블록별로 축조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블록들 간의 상관관계(축조순위), 흙의 물성 차이를 통한 산지(공급지) 추정 등을 통해 봉분축조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5. 창덕궁 돈화문 월대 정비사업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돈화문앞 월대 및 월대 주변부에 대한 경화토 포장과 석축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돈화문 앞 도로 절치공사(서울시 율곡로 도로구조개선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월대 주변부 지면 단차를 보정하고, 그간 마사토 먼지와 흙패임 등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돈화문앞 월대 및 주변을 정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 122호 / 1963.01.18.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 (3) 신청내용<돈화문앞 월대 및 월대 주변 정비>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 사업내용
 - 월대 주변 바닥 경사도 조정 : 서울시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일환으로 새로이 조성된 율곡로 및 인접 인도에서 돈화문 기단까지 높이차(약 0.65m)를 보정(기울기 2~3%)
 - 월대 우측 주변부 석축 정비 : 높이차 보정시 현 임시매표소 뒤편 석축의 기초 노출로 인한 기존 석축정비(길이 74m)
 - 월대 및 주변의 기존 마사토 해체 후 경화토 포장(면적 2,080㎡)
 - 돈화문앞 월대 상부(680㎡)
 - 월대 좌우측 하단부(1,400㎡)
 - 사업기간 : 2020. 8월(*창덕궁 관람지원센터 완공 후 현 임시매표소 철거 이전 직후)
 - 서울시 선 공사 후 월대 상부 포장 등 창덕궁관리소에서 진행('20. 4분기 예상)

※ 월대 하단부 경화토 포장 및 바닥 경사도 조정 등은 서울시에서 울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기로 협의(창덕궁관리소 설계도서 제공)

(4) 신청인 의견

- 신청내용대로 추진하였으면 함

라. 참고사항

(1) 자문회의 의견('20.02.25./문화재위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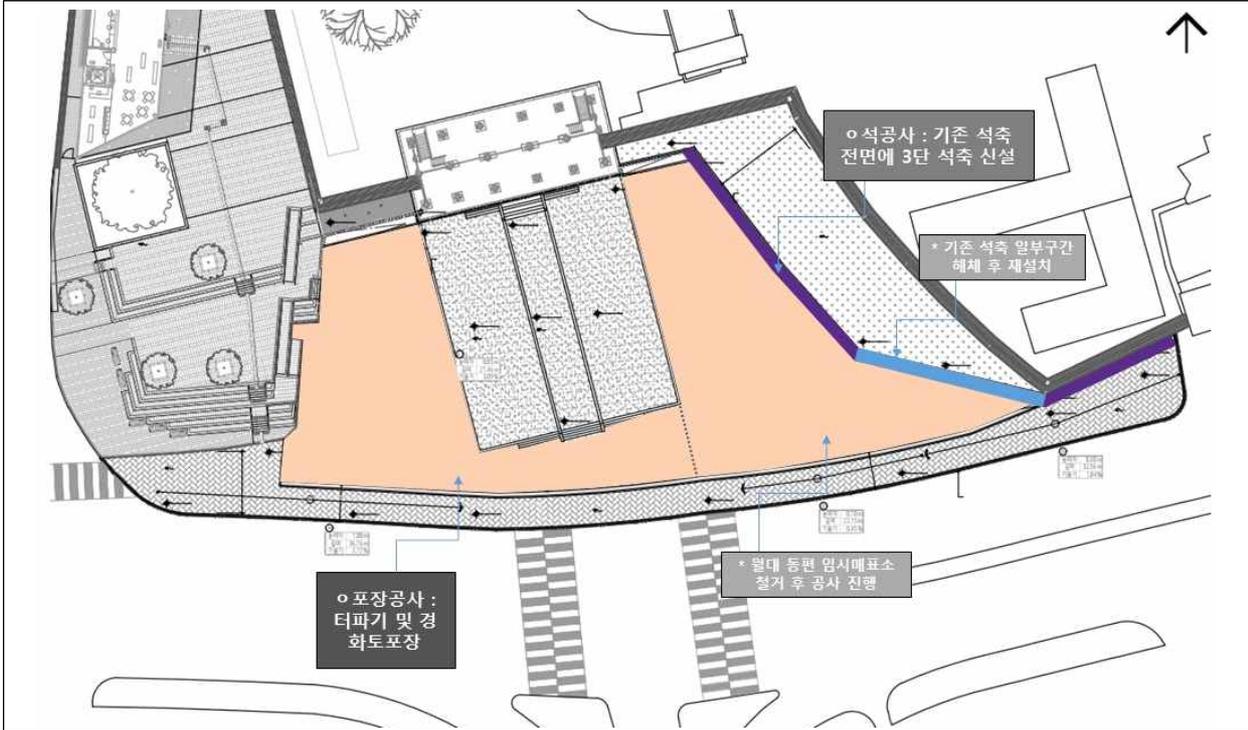
- 월대 상부와 주변은 이용자가 많은 곳이므로 견고한 경화마사토 포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이 지나면 표면 마감이 마사토와 비슷하게 자연스러워질 것임
- 월대와 주변부는 동일한 포장을 하며, 가능한 포장 영역을 넓게 하여 시각적으로 돈화문 전면에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붙임 1

돈화문 월대 정비 대상 위치도 및 현황



돈화문 월대 및 주변 전경



돈화문 월대 및 주변 현황 - 1



돈화문 월대 및 주변 현황 - 2(동남측)

6.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06.24(수) 14:00~16:5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3호
- 참석위원 : 이재운, 유재춘, 이승용, 진상철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등 현상변경 허가 심의 24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5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10건, 보류 3건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 경산 병영유적 주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내리 284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1, 2, 3, 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노선 : 국도대체우회도로(대로1-하4 호선) - 과업연장 : L=5.1km(B=19.5m, 4차로) - 출입시설 : 4개소(평면교차 4개소) - 구 조 물 : 교량4개소 / 75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접근성 확보에 대한 계획 제출 -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실시
2.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주상복합 건물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산시 조영동 239-4번지 외 6필지(매장문화재 유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05m 이격/5구역) ○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971.00㎡ - 건축면적 : 1,987.30㎡ - 연면적 : 37,854.35㎡(지상 22,869.52㎡ / 지하 14,984.83㎡)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4층, 지상23층, 최고높이 74.8m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95세대) / 오피스텔(13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3. 강화 외성 주변 국궁장 조성	<p>○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5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3, 4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54 383 1109 860"> <thead> <tr> <th>구분</th> <th>금회(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청면적</td> <td>13,281㎡</td> <td>3구역(12m 이하)</td> </tr> <tr> <td>지 목</td> <td>임야, 답</td> <td></td> </tr> <tr> <td>건축면적</td> <td>601.91㎡</td> <td>건폐율 4.51%</td> </tr> <tr> <td>연 면 적</td> <td>512㎡</td> <td>용적율 3.86%</td> </tr> <tr> <td>규 모</td> <td>지상 1층</td> <td></td> </tr> <tr> <td>절·성토</td> <td>최대 절토높이 10m (절토량 9,322㎡)</td> <td></td> </tr> <tr> <td>구 조</td> <td>전통한옥</td> <td></td> </tr> <tr> <td>최고높이</td> <td>10.05m</td> <td></td> </tr> <tr> <td>국궁장 규격</td> <td>폭 35m, 길이 145m</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금회(안)	비고	신청면적	13,281㎡	3구역(12m 이하)	지 목	임야, 답		건축면적	601.91㎡	건폐율 4.51%	연 면 적	512㎡	용적율 3.86%	규 모	지상 1층		절·성토	최대 절토높이 10m (절토량 9,322㎡)		구 조	전통한옥		최고높이	10.05m		국궁장 규격	폭 35m, 길이 145m		<p>○ 조건부가결</p> <p>- 법면은 최대한 단을 나누어 절토</p>
구분	금회(안)	비고																														
신청면적	13,281㎡	3구역(12m 이하)																														
지 목	임야, 답																															
건축면적	601.91㎡	건폐율 4.51%																														
연 면 적	512㎡	용적율 3.86%																														
규 모	지상 1층																															
절·성토	최대 절토높이 10m (절토량 9,322㎡)																															
구 조	전통한옥																															
최고높이	10.05m																															
국궁장 규격	폭 35m, 길이 145m																															
4. 용인 심곡서원 주변 판매시설 조성	<p>○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66-8 외 1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6m 이격 /1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54 1032 1109 1503"> <thead> <tr> <th>구분</th> <th>금회(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청면적</td> <td>6,759㎡</td> <td>1구역</td> </tr> <tr> <td>지 목</td> <td>대, 임야</td> <td></td> </tr> <tr> <td>건축면적</td> <td>1,223.82㎡</td> <td></td> </tr> <tr> <td>연 면 적</td> <td>2,423.96㎡</td> <td>지하층 및 진입로면적 제외</td> </tr> <tr> <td>규 모</td> <td>지하2층, 지상2층</td> <td>정면 90m, 측면 54.5m</td> </tr> <tr> <td>절·성토</td> <td>최대 절토높이 약12m</td> <td></td> </tr> <tr> <td>구 조</td> <td>철근콘크리트</td> <td></td> </tr> <tr> <td>최고높이</td> <td>10.51m</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금회(안)	비고	신청면적	6,759㎡	1구역	지 목	대, 임야		건축면적	1,223.82㎡		연 면 적	2,423.96㎡	지하층 및 진입로면적 제외	규 모	지하2층, 지상2층	정면 90m, 측면 54.5m	절·성토	최대 절토높이 약12m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0.51m		<p>○ 부결</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구분	금회(안)	비고																														
신청면적	6,759㎡	1구역																														
지 목	대, 임야																															
건축면적	1,223.82㎡																															
연 면 적	2,423.96㎡	지하층 및 진입로면적 제외																														
규 모	지하2층, 지상2층	정면 90m, 측면 54.5m																														
절·성토	최대 절토높이 약12m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10.51m																															
5. 서울 영희원과 송인원 주변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p>○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363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5m 이격/3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83,883.10㎡ - 건축면적(연면적) : 13,050.00㎡(218,637.22㎡) - 건물높이 : 최고높이 59.40m(경사지붕) - 용 적 률 : 245.09% - 건축규모 : 공동주택(지하 2층 ~ 지상22층) 	<p>○ 보류</p> <p>- 문화재 조망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p>																														

건 명	내 용	결 과
6. 서울 정릉 주변 정릉7주택 재건축 정비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06-159 외 1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면적 : 2,134.00㎡ - 사용면적 : 2,134.00㎡ - 건축면적(연면적) : 703.14㎡(6,689.36㎡) - 건물높이 : 최고높이 27.715m(경사지붕) - 용 적 률 : 249.99% - 건축규모 : 공동주택(지하 1층 ~ 지상10층, 1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7. 창덕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8-2, 15(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6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북촌)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조(지하1~1층) 목구조(지상2층) - 연면적 : 636.24㎡(용적률 119.98% / 법정 150%이하) - 최고높이 : 10m(허용기준: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이하) - 외장재 : 복층유리 + 금속재 경사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8. 창덕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3-3(문화재구역보호 구역으로부터 4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북촌)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 연면적 : 133.8㎡(용적률77.84% / 법정 150%이하) - 최고높이 : 7.8m(허용기준: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이하) - 외장재 : 스티코 + 경사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9. 종묘 주변 물배관 매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종묘공원 내(문화재 보호구역과 연결)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로드시스템설치를 위한 배관공사용 터파기 시공 226m(마사토 구간 182m, 녹지 구간 44m) - 제어반 설치(폭 2m × 깊이.0.7m × 높이1.2m × 1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경관 개선을 위한 제어반 위치 조정 검토

건 명	내 용	결 과															
10.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수평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09-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7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6.70㎡ 수평증축(용적률 273.3%→ 333% / 법정600%) · 돈화문로변 폭 1.97m(1-5층), 피맛길변 폭 0.8~1.1m(1층) 수평증축 - 증축부분 외장재 변경 · 돈화문로변 : 마천석→T24 복층유리+입체루버 · 피맛길변 : 스티코플렉스→T24 복층유리+치장벽돌 	○ 원안가결															
11. 여주 고달사지 주변 농업용 창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08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50%;">금회(안)</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청면적</td> <td>19.8㎡</td> <td></td> </tr> <tr> <td>규 격</td> <td>6.6m×3.0m(높이 3.3m)</td> <td></td> </tr> <tr> <td>용 도</td> <td>가설건축물(컨테이너)</td> <td></td> </tr> <tr> <td>차폐수목</td> <td>수목식재 37주</td> <td>측백, 사철나무</td> </tr> </tbody> </table> 	구분	금회(안)	비고	신청면적	19.8㎡		규 격	6.6m×3.0m(높이 3.3m)		용 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차폐수목	수목식재 37주	측백, 사철나무	○ 조건부가결 -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도래 전 재허가 신청
구분	금회(안)	비고															
신청면적	19.8㎡																
규 격	6.6m×3.0m(높이 3.3m)																
용 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차폐수목	수목식재 37주	측백, 사철나무															
12. 고령 주산성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94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62.0㎡, 지상 1층, 1개동, 최고높이 4.5m 	○ 원안가결															
13. 고령 주산성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107, 107-1번지(매장문화재 발굴허가구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60.0㎡, 지상 1층, 1개동, 최고높이 4.0m 	○ 원안가결															
14.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176, 176-6, 175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최고높이 : 6.3m - 연면적 : 90.9㎡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H=0~2.7m,) L=203 · 콘크리트포장.(t=0.2)A=82㎡ · 우수관로(D=300)L=136m · 집수정 및 우수받이 : 15개소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15.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42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기와 · 최고높이 : 6.0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99.72㎡ · 굴착깊이 : 0.6m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 한식담장 · 최고높이 : 1.5m · 길이 81.7m · 굴착깊이 : 0.6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6.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93-3, 9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8~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 · 굴착깊이 : 0m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쌓기 : 202㎡(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36m, PE우수맨홀 3개소(400*500*900) -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216㎡, 굴착없음 · 콘크리트 포장 : 약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7.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93-3, 9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8~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2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 · 굴착깊이 : 0m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쌓기 : 205㎡(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50m, PE우수맨홀 3개소(400*500*900) ○ 사업내용(3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 · 굴착깊이 : 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흙쌓기 : 222m³(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35m, PE우수맨홀 3개소(400×500×900) 	
<p>18.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93-3, 92-2(문화재구역의로부터 8~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4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m² · 굴착깊이 : 0m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쌓기 : 200m³(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38m, PE우수맨홀 3개소(400×500×900) -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277m², 굴착없음 · 콘크리트 포장 : 약 56m³ ○ 사업내용(6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m² · 굴착깊이 : 0m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쌓기 : 766m³(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19m, PE우수맨홀 3개소(400×500×900) ○ 사업내용(7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m² · 굴착깊이 : 0m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쌓기 : 84m³(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36m, PE우수맨홀 3개소(400×5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19.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93-3, 9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8~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지붕구조 : 한옥(목구조) / 한식토기와 · 최고높이 : 6.3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87.84㎡ · 굴착깊이 : 0m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쌓기 : 154㎡(성토고 0.3m) · 배수(우수)공 : Ø300 PE이중벽관 25m, PE우수맨홀 2개소(400×50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0.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6(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한옥(철근콘크리트구조) - 지붕구조 : 한식기와 - 최고높이 : 6.9m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1층, 1동 / 98.91㎡ - 건축용도 :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1. 창녕 계성 고분군 주변 돌계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산138번지(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아님)(1구역) ○ 사업내용 : 기존 임도에 돌계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길이 : 40여m - 계단 규격 : 가로 90cm, 세로 3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굴착 시 입회조사
22. 익산 토성 주변 도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서고도리 596번지 일원(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5m 이격/1,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포장 : 연장 1.7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간 내 : 1.16km, 황토콘 포장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간 외 : 0.58km, 아스콘 포장 - 도로폭원 확대 : 6.5m(1차선 도로(3.5m)+도로양쪽의 자전거도로(각 1.5m)) - 쉼터 조성 : 자전거 관광객 및 도보 여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테이블, 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도로 폭원을 현황도로 폭원 범위에서 추진

건 명	내 용	결 과																		
23. 익산 미륵사지 주변 작물재배사 신축 및 부지 조성	<p>○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747-1번지 외 4필지(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7m 이격/2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5,750㎡(부지 : 5,524㎡, 도로 : 226㎡) - 건축면적 : 23.86㎡ / 연면적 : 1,909.00㎡ - 건축높이 : 4.35m (가중평균높이) - 주요용도 : 작물재배사, 부속창고 <p>* 익산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협약된 작물의 납품 및 재배기술의 농가보급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시설(차폐) : 사업부지 외곽(잣나무 H5m), 건물주변(대나무 H3m), 구조물(담쟁이 넝쿨), 유리온실 주변(잔디 식재) <table border="1" data-bbox="454 763 1109 1218"> <thead> <tr> <th>구분</th> <th>금회 신청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부지면적</td> <td>5,750㎡</td> <td>-</td> </tr> <tr> <td>연면적</td> <td>1,909.00㎡ (B1F 1,909㎡)</td> <td>유리온실+작물재배실→작물재배실 (△ 1F 689.46㎡)</td> </tr> <tr> <td>건축면적</td> <td>23.86㎡</td> <td>△667.2㎡</td> </tr> <tr> <td>건축높이</td> <td>4.35m (가중평균높이)</td> <td>△2.15m</td> </tr> <tr> <td>조정시설</td> <td>사업부지 외곽(잣나무 H5m), 건물주변(대나무 H3m), 구조물(담쟁이 넝쿨), 1층(잔디 식재)</td> <td>유리온실 주변(잔디 식재)→1층(잔디 식재)</td> </tr> </tbody> </table>	구분	금회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5,750㎡	-	연면적	1,909.00㎡ (B1F 1,909㎡)	유리온실+작물재배실→작물재배실 (△ 1F 689.46㎡)	건축면적	23.86㎡	△667.2㎡	건축높이	4.35m (가중평균높이)	△2.15m	조정시설	사업부지 외곽(잣나무 H5m), 건물주변(대나무 H3m), 구조물(담쟁이 넝쿨), 1층(잔디 식재)	유리온실 주변(잔디 식재)→1층(잔디 식재)	<p>○ 원안가결</p>
구분	금회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5,750㎡	-																		
연면적	1,909.00㎡ (B1F 1,909㎡)	유리온실+작물재배실→작물재배실 (△ 1F 689.46㎡)																		
건축면적	23.86㎡	△667.2㎡																		
건축높이	4.35m (가중평균높이)	△2.15m																		
조정시설	사업부지 외곽(잣나무 H5m), 건물주변(대나무 H3m), 구조물(담쟁이 넝쿨), 1층(잔디 식재)	유리온실 주변(잔디 식재)→1층(잔디 식재)																		
24. 공주 우금치 전적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p>○ 위치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82-4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0m 이격/1구역), 웅진동 9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3m 이격/5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금치 전적) 심의대상 사업면적 : 9,660㎡, L=644m, B=15.0m - (송산리 고분군) 심의대상 사업면적 : 1,860㎡, L=124m, B=15m <p>* 전체 사업면적 : 36,900㎡, L=2,460m, B=15m, 왕복 2차선, 1:5구간으로 구분</p>	<p>○ 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에 장안동 어차 차고지 철거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70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장안동 어차 차고지 철거>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3-6번지 외 7필지(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600㎡ - 차고지 건물철거(230㎡) 및 조경 식재	허가	'20.06.30.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충남 부여군	○○○	<느티나무 둘레석 보수 및 휴게의자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 번길 16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신청) 가림성 느티나무 둘레석 보수 및 휴게의자 설치 - (허가) 느티나무 둘레석 보수 ○ 허가조건 - 느티나무 둘레석 보수에 한해 허가	조건부 허가	'20.06.17.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	<황룡사 중문 및 남회랑 증강현실 시 연회>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문 화재구역) ○ 사업내용 - 황룡사 중문지 목재 계단 2개 - 중문~남회랑 연결데크 4개 - 몽골텐트(5*5m) 1개, 테이블 2개, 의자 10개, 배너 3개, POP배너 4개 ○ 설치기간 : 6.25. ~ 6.26. ○ 허가조건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 (소화기 등) 비치	조건부 허가	'20.06.1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 최우선 고려할 것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그늘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40번지 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그늘막 설치 2개소 	허가	'20.06.10.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03-11, 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5권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257.00㎡ - 건축면적 : 750.98㎡ - 연면적 : 3,349.46㎡ - 규모/최고높이 : 지하1층, 지상4층 /20.7m 	허가	'20.06.18.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군	○○○	<p><물리지하탐사(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5일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일대 물리탐사 ○ 변경사항 : 허가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20.2.24.~'20.6.30. - (변경 후) '20.2.24.~'20.12.31.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착수 지연 	허가	'20.07.03.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충남 부여군	○○○	<p><농막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6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컨테이너 1동 18㎡(6m×3m) - 용도: 농자재 및 기구보관 창고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막위치를 대지 서쪽 조망되지 않은 구역으로 이전(현지조사시 권장한 지역) -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3년) 준수 	조건부 허가	'20.06.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8호 관문성	울산시 북구	○○○	<p><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북구 달천동 산160-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99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편백숲 관광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사무실(공모사업) - 규격 : 3×6m(18㎡), 컨테이너 2개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에 따라 3년 존치가능하며 연장설치시 재허가 필요함. 	허가	'20.06.30.																											
사적 제48호 관문성	경북 경주시	○○○	<p><휴게음식점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 307-30, 산307-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인</td> <td>이윤희</td> <td>(주)신화테크</td> </tr> <tr> <td>사업기간</td> <td>'19.10.14. ~ '20.10.13.</td> <td>'19.10.14. ~ '21.06.30.</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r> <tr> <td>규모</td> <td>지상2층, 1동</td> <td>지상2층, 2동</td> </tr> <tr> <td>최고높이</td> <td>8.7m</td> <td>8.6m</td> </tr> <tr> <td>건축면적/연면적</td> <td>303.45/479.1㎡</td> <td>521.71/906.27㎡</td> </tr> <tr> <td>토공</td> <td>사토 371㎡ (절토 822㎡, 성토 451㎡)</td> <td>사토 372㎡ (절토 823㎡, 성토 451㎡)</td> </tr> <tr> <td>구조물공</td> <td>석축(H 0.0~ 2.9m), L=90m</td> <td>석축(H 0.0~ 2.9m), L=102m</td> </tr> </tbody> </table>		당초	변경	신청인	이윤희	(주)신화테크	사업기간	'19.10.14. ~ '20.10.13.	'19.10.14. ~ '21.06.3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2층, 1동	지상2층, 2동	최고높이	8.7m	8.6m	건축면적/연면적	303.45/479.1㎡	521.71/906.27㎡	토공	사토 371㎡ (절토 822㎡, 성토 451㎡)	사토 372㎡ (절토 823㎡, 성토 451㎡)	구조물공	석축(H 0.0~ 2.9m), L=90m	석축(H 0.0~ 2.9m), L=102m	허가	'20.06.10.
	당초	변경																														
신청인	이윤희	(주)신화테크																														
사업기간	'19.10.14. ~ '20.10.13.	'19.10.14. ~ '21.06.3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2층, 1동	지상2층, 2동																														
최고높이	8.7m	8.6m																														
건축면적/연면적	303.45/479.1㎡	521.71/906.27㎡																														
토공	사토 371㎡ (절토 822㎡, 성토 451㎡)	사토 372㎡ (절토 823㎡, 성토 451㎡)																														
구조물공	석축(H 0.0~ 2.9m), L=90m	석축(H 0.0~ 2.9m), L=102m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정자형 퍼걸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6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연접/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20.16㎡(4.8×4.2m) / 1층 / 1동, 최고높이 5.66m(기성품) 	허가	'20.06.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	<p><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허가 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2번지 일원(문화재구역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탐방로 재포장, 휨스교체, 야자매트 설치 및 남문진이로(보도)포장 등 - 변경 : 탐방로 재포장, 휨스교체, 야자매트 설치 및 남문진이로(보도)포장 등 	허가	'20.06.12.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	<p><육묘장(비닐하우스 축조 및 부지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3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4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411㎡(최고높이=4.7m) - 콘크리트 포장: 363㎡ - 전석쌓기 27㎡ - 보강토블럭: 13㎡ 	허가	'20.06.12.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북 고령군	○○○	<p><농산물 가설 직판장 설치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71-1(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연면적 / 층수 : 84㎡ / 1층 - 규모 및 구조 / 최고높이 : 1동, 경량철골구조 / 4.20m 	허가	'20.06.09.
사적 제89호 부여 석성산성	충남 부여군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90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대지면적 817㎡, 건축면적 59.85㎡, 최고높이 5m - 1동 1층, 경량철골조 · 고도과-1920('18.7.20.)호 및 1588('19.6.28.)호로 기 허가받은 사항이나 허가기간 만료 및 건물위치 변경에 따라 재신청한 사항임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원형지 보존을 위해 식재처리계획의 준수 	조건부 허가	'20.07.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전북 익산시	○○○	<p><진입도로개설 및 기간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45-2, 산53-1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7m 이격/1,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화 측사면적 축소: 대지면적 9,280㎡→8,970㎡(△310㎡), 연면적 2,349.20㎡→2,341.00㎡(△8.2㎡) - 진입도로 개설 940㎡(신규), 도로 가장자리에 이팝나무 식재(16그루) - 허가기간 연장 : '20.6.30→'20.12.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허가받은 사항(고도보존육성과 -1046 ('20.4.6.)호) 및 허가조건 준수 	조건부 허가	'20.06.25.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	경남 산청군	○○○	<p><산청군 배양마을 LPG배관망 시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07번길 16 외 54개소(총 55개소)(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규모 : 연장 1,367km, 관직경 63mm (소형저장탱크 2.0톤 1개, 0.25톤 5개, 매설배관63mm, 가스계량기 4.0㎡/h 55개) - 가스 용도 : 취사용 및 난방용 - 가스 종류 : 액화석유가스(발열량 24,000kcal/㎡, 비중 1.52) 	허가	'20.06.11.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전북 진도군	○○○	<p><태양광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1020-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기존 태양광 부지 옆에 태양광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판넬 설치(248장) - 508㎡, 1장당 2m×1m×0.4m - 최고 높이 1.7m 	허가	'20.06.11.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가설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화성길 50번길 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6㎡(2동설치) - 건축면적/연면적 : 36㎡(2개동)/36㎡(2개동) - 구조 : 컨테이너 설치 	허가	'20.06.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근린생활시설(3동)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국화리 272-14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387㎡ - 건축면적 / 연면적 : 213㎡ / 213㎡ - 층수 / 최고높이 : 지상1층 / 4.9m - 석축시공(85.38m), 보강토옹벽(70.23m) 	허가	'20.06.12.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다세대주택(2동)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남산리 181, -2, -3 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1, 7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343㎡ - 건축면적/연면적 : 268.44㎡/1,023.6㎡ - 층수/최고높이 : 지상4층/14.8m 	허가	'20.06.25.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시 강화군	○○○	<p><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1132, 113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3, 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600㎡ - 건축면적/연면적 : 710.5㎡/710.5㎡ - 층수/최고높이 : 지상1층/7.5m 	허가	'20.06.12.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17-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 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신청면적(652.6㎡), 건축면적/ 연면적 (128㎡/128㎡), 최고높이5.5m - 변경 : 신청면적(652.6㎡), 건축면적/ 연면적 (129.2㎡/182.54㎡), 최고높이 7.55m 	허가	'20.06.12.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시 강화군	○○○	<p><형질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79-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0m 이 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298㎡ - 성토높이 : 3.0m - 신청사유 : 우량 농지 조성 	허가	'20.06.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17-3(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신청면적(653㎡), 건축면적/연면적 (100㎡/165㎡), 최고높이6.7m - 변경 : 신청면적(653㎡), 건축면적/연면적 (120.08㎡/189.87㎡), 최고높이 7.5m 	허가	'20.06.30.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	<p><등산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구간 : 11.9km - 안내판철거 및 설치(20개소), 의자교체(47개소), 평상철거 8개소, 보행매트 설치 2,430m - 안전로프웬스설치 691경간 	허가	'20.06.25.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경기도 고양시	○○○	<p><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83번지외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3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설치(0~4.9m) : 122.5㎡ - 신청사유 : 단독주택 신축(2층 / 최고높이9.0m) 	허가	'20.06.12.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62-5, 262-6(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7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890㎡ / 연면적: 115.20㎡ - 건축면적: 79.2㎡(1동, 높이 7.1m), 36.0㎡(1동, 높이 4.2m) 	허가	'20.06.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9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m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규모 : 부지 497㎡, 건축 85.91㎡ 높이 4.28m, 1층 - 진입로 규모 : 54㎡(폭2.03m, 길이 23.32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신축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0.06.17.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94-1, 494-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63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규모 : 부지 478㎡, 건축 85.91㎡ 높이 4.28m, 1층 - 진입로 규모 : 28㎡(폭1.94m, 길이 16.7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신축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신축 주택 뒷면에 계곡이 위치해 있어 계곡으로 인한 배수량이 많기에 강수시 우수처리 시설 등의 구축을 권고함 	조건부 허가	'20.06.18.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9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규모: 부지 487㎡, 건축 85.91㎡ 높이 4.28m, 1층 - 진입로 규모: 19.7㎡(폭1.29m, 길이 15.3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신축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신축 주택 뒷면에 계곡이 위치해 있어 계곡으로 인한 배수량이 많기에 강수시 우수처리 시설 등의 구축을 권고함 	조건부 허가	'20.07.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울산시 울주군	○○○	<p><고정형 파라솔 그늘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73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대수 : 1대 - 고정판 면적 : 0.25m², 기초 : 550mm - 그늘막폭(펼쳤을 때) : 11.7m²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등 관계부서와 협의 	허가	'20.06.30.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경북 경주시	○○○	<p><2020세계유산축전 : 경북의 세계유산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0 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대릉원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아트 : 천년유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전시관(35*12*H8m), 굴착없음 · 기간 : 8월 전체 - 무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 15*9*H0.6m · 음향 : 메인스피커 6, 서브스피커5 · 트러스타워구조물 : 7m, 2ea · 대기실 4동, 안내 2동 · 기간 : 8.28.(금) ~ 8.29.(토) - 체험행사 : 유상곡수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석정모형 : 7*3.5m · 기간 : 8월 중 매주 토요일 - 폴리마켓존 : 8월 매주 토요일 야간 ○ 사업내용(동부 사적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문관측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체관측 망원경 10대, 체험부스 2동 · 기간 : 8월 중 매주 토요일 ○ 사업내용(계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 스피커, 의자 80ea · 기간 : 8.8.(토), 8.22.(토) ○ 설치기간 : 7.23. ~ 9.3.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 최우선 고려할 것 	조건부 허가	'20.06.1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름	경북 경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676-1, 676-4(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골기와의기 - 건축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연면적 : 8.04m/219.24㎡ - 용도 : 휴게음식점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경계 경사면 옹벽구조물(H1.5m, L형) 25m 설치 추가 - 신청인 : 오은경 → 한은지(지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완료) ○ 허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19.09.02. ~ '20.10.31. - 변경 : '19.09.02. ~ '21.03.31. 	허가	'20.06.26.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름	경북 경주시	○○○	<p><경주 남천 수변공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사정동 498-17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0~33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하천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터파기 3,195㎡, 되메우기 5,802㎡, 순성토 4,412㎡, 때붙임 10,171㎡ - 구조물공 : 식생바구니(1*1*0.5m) 1,805㎡, 돌계단(B=2.5m) 79㎡ - 포장공 : 흙콘크리트포장(T=20cm) 3,045㎡ · 최대 터파기고 : H=0.8m · 최대 성토고 : H=1.5m 	허가	'20.06.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건물(버섯재배사)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2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설치위치)한쪽면(남측)/경사면, (발전량)46.48kw, (모듈)415w*112ea - 1차변경 : (설치위치)양쪽면(남,북측)/경사면, (발전량)92.96kw, (모듈)415w*224ea · 건물 지붕면에 패널 부착 - 금차변경 : (설치위치)양쪽면(남,북측)/경사면, (발전량)92.96kw, (모듈)415w*224ea · 건물 지붕면에서 50cm 이내 이격 부착 ○ 허가기간 : '19.07.02. ~ '20.11.30. 	허가	'20.06.24.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	<p><도수계획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번지 40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7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L=0.234km, B=8~10m · 소로 1-1호선 = L=211m, B=10.0m · 소로 1-17호선 =L=11m, B=10.0m · 소로 2-1호선 -L=12m, B=8.0m -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면적 : A=2.576m² 	허가	'20.06.26.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경기도 여주시	○○○	<p><농지 성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2-1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5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1,968.8m² - 신청면적: 902.0m² - 옹벽설치: 87m(H=0.5m~4.0m) 	허가	'20.06.26.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충남 홍성군	○○○	<p><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17-9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241.68m(B15m) 	허가	'20.06.0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서울시 종로구	○○○	<p><서울대병원 연결통로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병원본관과 어린이병원 간 기존 연결통로(본관 3층↔어린이병원 4층) 하부에 신설 연결통로(본관 2층↔어린이병원 3층)를 기존연결통로와 동일 규모로 1개층 증축 - 연면적(본관) : 107,115.87㎡→107,171.09㎡(55.22㎡ 증축) 	허가	'20.06.22.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북 경주시	○○○	<p><축사 양성화 및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73-1, 97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59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6.2m -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 연면적 : 1,0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허가 : 435㎡ · 무허가증축 양성화 : 315㎡ · 신규증축(퇴비사,착유시설) : 373.5㎡ - 굴착깊이 : 10~20cm - 배수공 : U형플룸관 L=80m, 집수정 4개소 	허가	'20.06.26.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시 송파구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50-29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87.70㎡ - 건축면적 : 111.22㎡ - 연면적 : 369.18㎡ - 규모 : 지상5층(최고높이 15.9m) 	허가	'20.06.29.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	<p><단독주택(창고)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413-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124㎡(기존 주택면적 91㎡ / 증축 창고면적 33㎡) - 대지면적 : 660㎡(기존 대지면적 1,698㎡에서 660㎡ 분할) 	허가	'20.07.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전북 남원시	○○○	<p><도로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721-5(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1,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 및 정비(A=1,382㎡), 잔디 및 영산홍 식재 	허가	'20.06.08.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수목 임의 벌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산20-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 벌채 : 리기다소나무 12주, 참나무 1주 ※ 인접 필지와외의 경계부 경사지에 있는 수목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질 우려가 있어 민원이 제기 된 사항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 벌채 후 경작 등으로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조건부 허가	'20.06.05.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내남 노곡소하천 재해복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51-2 ~ 이조리 770-3(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고(H) : (1지구)0~0.7m, (2지구) 0~1.0m, (3지구)0~2.4m · 절토고(H) : (1지구)0~3.5m, (2지구) 0~3.5m, (3지구)0~4.2m · 흙깎기 : 78,973㎡ · 터파기 : 9,586㎡ · 흙쌓기 : 11,194㎡ · 되메우기 : 4,417㎡ -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옹벽블록 A=6,633㎡, H=1.5~4.0m · 계비온블록 A=5,327㎡, H=1.0~4.5m · 홍수방어벽 : L=425m, H=1.2m -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암거(1.5x1.5~9.0x2.0) L=95.5m · 배수통관(흙관 Ø800~1,200) L=99.6m - 교량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무명교: B=5.5m, L=30.0m · 제2무명교: B=5.5m, L=27.0m · 노곡교: B=7.5m, L=36.5m · 제7무명교: B=7.5m, L=23.6m 	조건부 허가	'20.06.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9,332.5㎡, L=2,789.5m(B=2.5m, L=1,243m), (B=3.0m, L=30.0m), (B=3.5m, L=1,377m), (B=4.5m, L=139.5m) · 아스팔트포장 A=3,522㎡, L=474.5m (B=6.5m, L=423.5m), (B=7.0m, L=51.0m) - 부대공 : 1식 ○ 허가조건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실시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옥룡암 남산 진입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144(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진입로 흙콘크리트 포장 : B=3m, L=90m - 수로 측면 자연석 쌓기(30*40*50) : H0.3~1.2m, L=66m 	허가	'20.06.26.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황남 배동 배상저수지 보수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44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제당 그라우팅 33공 	허가	'20.06.26.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배동 이영석(농사, 을)저압 3kw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272-6(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콘크리트 전주(14m) 4기 신설 	허가	'20.06.26.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월성동 마을가꾸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144, 산 54-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통담장 쌓기 : L=38m, W=0.6m - 전통벽화 : A=105㎡ ○ 허가조건 - 도시미관 분야와 문화재관련 분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20.06.29.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경북 영주시	○○○	<p><농로 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512번지(매장문화재유존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콘크리트포장(B=3.0m, L=103.0m) 	허가	'20.06.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제조업소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02-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신청면적(4,898㎡), 건축면적/연면적 (450㎡/450㎡), 최고높이7.3m - 변경 : 신청면적(5,126㎡), 건축면적/연면적 (1,772.6㎡/2,764.8㎡), 최고높이8.7m 	허가	'20.06.12.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도립공원 불량목 및 고사목 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7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목 등 불량목 제거 432주(잣나무) - 가지치기 : 3.86ha - 넝쿨제거 : 4.82ha 	허가	'20.06.25.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충남 부여군	○○○	<p><무허가축사 면적 및 허가기간 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443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화된 축사의 실측상황과 도면상 산입면적 차 반영: 기존 1,436.8㎡→1,485.75㎡ - 필지분할 : 북고리 442, 443, 444-1, 620, 621-1 → 북고리 442, 443, 444, 444-1, 620, 621-1, 621-2 - 허가기간 연장 : '20.6.30→'20.12.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허가받은 사항 및 허가조건(고도 보존육성과-2418('19.9.25.)호) 준수 	조건부 허가	'20.06.25.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제주도 제주시	○○○	<p><우수저류조 및 배수관로 등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125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9m 이격/7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저류조(A=3,016㎡, V=18,500㎡, 터파기 깊이 8.7~9.7m) · 배수관로(BOX 1.0m×1.0m, L=170m), 배수관로(BOX 2.5m×2.0m, L=2m) · 자동배수문(3.5m×2.5m, 1개소) 	허가	'20.05.1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전남 여주시	○○○	<p><태양광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여주시 덕충동 1902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판넬 설치(125장) - 130㎡, 1장당 2.16m×1m×0.4m - 최고 높이 2.4m 	허가	'20.06.15.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국방시설(차량호)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98-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028㎡ - 건축면적/연면적 : 66.9㎡/88.5㎡ - 층수/최고높이 : 지상2층/6.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허가	'20.06.30.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전북 익산시	○○○	<p><가설건축물(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37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임시창고(농막) - 규모: 부지 340㎡, 건축면적 9.6㎡, 높이 2.1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사항(3년) 준수 	조건부 허가	'20.06.17.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전북 익산시	○○○	<p><행사개최 임시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1-30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야행 행사개최용 임시시설물 설치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내 화기 및 폭죽사용 금지 - 행사 기간 중 및 행사후 주변 환경관리 철저 	조건부 허가	'20.06.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경기도 이천시	○○○	<p><형질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읍동 165-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743㎡ - 신청사항 : 임야를 대지로 변경 - 신청사유 : 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가	'20.06.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단지 진입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70-16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4, 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82㎡ - 진입로 규격 : 진입로폭(4~6m), 연장(103.6m) - 최대 성토높이 : 4.0m(연장25m) 	허가	'20.06.1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70-16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0m 이격/4, 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25㎡ - 옹벽설치 : 보강토 옹벽(0.5~3.5m), 연장74m - 신청사유 : 단독주택 부지조성 	허가	'20.06.1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절토에 따른 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513-6번지 등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291㎡ - 옹벽설치 : 보강토 옹벽(0.5~4.8m), 연장288m - 신청사유 :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허가	'20.06.1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절토에 따른 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70-16번지 등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4, 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99㎡ - 옹벽설치 : 보강토 옹벽(0.5~3.5m), 연장 52m - 신청사유 : 단독주택 부지 조성 	허가	'20.06.1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상수도관 매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35-10, 811제(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1.5㎡ - 상수도관 설치 : 연장45m, 깊이1.2m, 구경15mm, 굴착폭0.72m - 신청사유 : 지선을 분리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선행 	조건부 허가	'20.07.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상수도관 매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1-6, 888제(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3.04㎡ - 상수도관 설치 : 연장32m, 깊이1.2m, 구경15mm, 굴착폭0.72m - 신청사유 : 지선을 분리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선행토록 함 	조건부 허가	'20.07.03.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소초 생활관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3249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028㎡ - 건축면적/연면적 : 466.95㎡(감1.43㎡) /847.57㎡(증380.62㎡) - 층수/최고높이 : 지상2층/7.8m(증1.8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허가	'20.07.03.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경남 창원시	○○○	<p><도시계획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511번지 6호(문화재구역과 연결)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 2-280호선(B=8.0m, L=111.2m) - 소로 2-282호선(B=8.0m, L=38.2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굴지에 대해 시굴조사를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0.06.22.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도 서귀포시	○○○	<p><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중로2-2-2호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352번지 1호 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6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중로2-2-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A) : 2,733m² · 도로길이(L) : 272m · 도로폭(B) : 10m(기존 7.7m 마을도로 → 10m 2차선 도로) · 포장공사 : 아스콘포장 	허가	'20.06.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경기도 안성시	○○○	<p><도시계획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43-15번지 등 8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905㎡ - 사업규모 : 길이 113m, 폭 8m - 아스콘포장 및 옹벽설치 	허가	'20.06.12.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경기도 안성시	○○○	<p><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70-7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9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신청면적(4,000㎡), 건축면적/연면적 (495㎡/495㎡), 최고높이5.0m - 변경 : 신청면적(9,320㎡), 건축면적/연면적 (495/495㎡), 최고높이5.0m 	허가	'20.06.12.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